

스포츠 立國을 위한



또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새로운 반성과 희망이 엇갈리는 한해의 마무리를 지으며 「스포츠」 百年大計를 생각할때 여러가지 設計와 提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重要的 것은 우리나라 「스포츠」를 어깨에 짊어질 다음 世代의 教育이라고 생각된다.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룩한 高度의 經濟成長도 우리의 教育水準이 높은데 힘입은바 크다는 것은 누구나가 認定하고 있는 바이며 이웃나라 日本을 비롯해서 急速度로 發展을 이룩한 나라의 歷史를 볼 때 훌륭한 教育이 밑거름이 되지 않은 것이 없다.

본인은 跆拳道協會長으로서 태권도를 통한 後輩教育에 힘써 왔다. 태권도教育의 目的은 태권도 기술을 익힐 뿐만 아니라 태권도 정신에 입각한 全人교육을 통해 훌륭하고 씩씩한 人間, 學校에서나 家庭에서나 社會에서나 남의 모범이 되며 나라와 겨레의 부름에 응할수 있는 人材를 키워내는 것이다.

또한 태권도의 國技化和 世界化過程을 통해서 나라의 이름을 빛내고 나라를 지키는 護國의 先鋒에 서는 民族的 要請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다.

全人教育의 必要性

세계태권도연맹총재
대한태권도협회회장

金 雲 龍

이런 점에서 「스포츠」 양성을 위해선 競技技術의 양성만이 전부가 아니다. 정신적인면과 신체적인면 그리고 창의 정신으로 빛에지는 자기개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世代를 위한 教育은 「엘리트」意識에만 사로잡힌 個人主義思想과 事大主義觀念이 많은 人材보다는 國家觀이 뚜렷하고 自己의 일에 忠實할 수 있는 人材를 育成하도록 指向되어야 할 것이며 自己 育은 自己가 할 수 있는 實學教育이 바람직하겠다. 굳건한 그 土臺위에서 人類文化發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수많은 태권도인재와 나라의 이름을 빛낼 優秀한 「올림픽」 金 「메달리스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완수하는 사람만이 훌륭한 「스포츠」인이 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태권도인들은 깊이 명심하여 지도자나 수련생은 성실과 믿음으로 자기완성의 탐을 쌓아야 겠다.

80년의 마지막을 보내며 그간 반세기동안 우리가 쌓아온 업적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각오와 반성으로 태권도세계화와 올림픽체택을 위한 도약의 80년대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와 각오를 새롭게 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한 호국의 기수가 되도록 자기완성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

제 4 회 아 시 아 대 회



강

(국기원 부원장)
원
식

1980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자유중국 태
북시내 대북 시립체육관에서 제 4 회 아시아 태
권도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자유중국 태권도협회가 주관한 금번 대회에는
한국 선수단을 비롯하여 부르네이, 자유중국,
일본, 팜,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요르단등
9개국의 선수단이 참가하였으며, 회의참가를 위
해 선수단 없이 참가한 나라는 말레이시아, 태
국으로 모두 12개국이 참가한 셈이다.

한국 대표 선수단은 11월 11일 오후 4시 30분
KAL기 편으로 김포공항을 떠나 대표선수라는
금지를 뿌듯하게 가슴에 새기며 느림한 모습으
로 2시간 후에 대북국제공항에 들어섰다. 현지
시간은 한국보다 정확히 1시간 늦고 있었다. 대
북 국제공항을 나서 준비된 뱌스에 승차, 곧장
숙소인 태북시내에 소재한 로마호텔에 도착하여
태권도 중주국 선수단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행
동을 할 것을 다짐하며 여정을 풀었다.

선수들은 앞으로 있을 경기를 대비하여 각자
체중조절에 신경을 쓰며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그 어느때 보다도 침착하고 외지생활에서 자칫
흔들리기 쉬운 심신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치적인 것을 지향하는 모범적인 통솔로 선수
들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계속 현지에 적응하
는 로드워크와 트레이닝을 하면서 가볍게 몸을
풀었다.

11월 13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선수단 숙소
인 로마호텔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경기운영에 있어서는 체급별로 당일 결승전까
지 마치고도록 하였으며,

11월 14일에는 Light, L. Middle급
L. Heavy Heavy급

11월 15일에는 Fly급, Bantam급, Feather급,
Welter급

11월 16일에는 Fin급 Middle급
으로 해서 3일간의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추첨에 들어가 보인 현상으로는 각국
대표들이 모두 한국선수와의 대전을 기피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었다.

대표자 회의가 끝난 그날 오후 2시부터는 로

마호텔 부근에 위치한 외교구락부에서 제 2차 아세아태권도연맹 총회가 시작되었다. 총회는 자유중국협회측의 무질서한 회의진행과 회의대표들의 대리참석 등으로 장시간 끌었으나 알맹이 없는 회의로서 자유중국협회측의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오후 6시부터는 대북시장 주최 만찬회가 외교구락부에서 부폐식으로 거행되어 각국 선수들은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나눌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11월 14일 제 4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가 대북시립체육관에서 드디어 개막되었다.

개막식에서 김운용 세계태권도 연맹총재는 대회사를 통해, 세계적인 태권도의 행사가 열리게 되었음을 치하했고, 회를 거듭해 감에 대회의 규모와 경기내용이 더욱 알차지도록 선수 임원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 9시 개최식에 이어 경기에 들어갔다. 경기는 3일간 매일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뉘어 하루에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라이트급의 대전> 한국대표선수인 김영국 선수는 예선전에서 일본선수를 맞아 가볍게 눌러 판정승을 건우고 준결승전에서 싱가포르선수를 누르고 올라온 요르단선수를 맞아 또한 판정승을 거두어 결승전에 올라섰다.

결승전에서는 자유중국의 Lee Hong-Hsian 선수를 맞아 일방적인 공방전을 펼쳐 압도적으로 판정승을 건우어 영예의 금메달을 첫번째로 획득하므로써 태권도 중중국의 면모를 과시하게 되었다.

- 1위 김영국(한국)
- 2위 Lee Hong-Hsian(자유중국)
- 3위 Mohamed Mahark Madi(Jordan)
Sahagan Angelo Pablo(Guam)

<라이트 미들급의 대전>

한국대표선수인 오일남선수는 예선전에서 싱가포르선수를 맞아 1회전에서 TKO승을 건우었으며 마치 고양이와 쥐를 갖고 놀듯 일방적으로 게임을 리드하여 준결승에 올라서는 Brunei 선수의 기권으로 부전승을 얻어 곧바로 결승전에 올



입장한 한국선수들

라 자유중국의 Wang-Chi-Chad 선수를 맞아 역시 일방적인 게임으로 판정승을 건우어 2번째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 1위 오일남(한국)
- 2위 Wang Chi-Chad(자유중국)
- 3위 Khalf Ibrahim Najeh (Jordan)

<라이트 헤비급의 대전>

한국대표선수인 정찬선수는 예선전에서 자유중국의 Liu Chien-Chung 선수를 맞아 일방적인 공방전을 펼쳐 1회전 말에서 TKO승을 건웠고 준결승전에서는 상대선수들의 기권으로 부전승을 얻어 곧바로 결승전에 진출, 요르단의 Khadair Dueilan Kassem 선수를 맞아 겨뤘는데 힘에 눌려 최대한의 실력 발휘를 하는데 장애를 느끼는 것 같았으나 원래 기술실력의 차가 두드러지므로 다득점에 의해 판정승을 거두어 3번째의 금메달을 확보하였다.

- 1위 정 찬(한국)
- 2위 Khadair Dueilan Kassem (Jordan)

<헤비급의 대전>

한국대표선수인 강용구선수는 예선전에서 요르단 선수의 기권으로 준결승도 없이 곧바로 결승전에 임하여 자유중국의 Suen Hsin-Nen 선수를 맞아 판정승을 건우어 4번째의 금메달을 확보하였다.

- 1위 강용구(한국)
- 2위 Suen Hsin-Nen(자유중국)
- 3위 Low Fang Hian

<플라이급의 대전>

한국대표선수인 양기모선수는 예선전에서 인도네시아선수를 누르고 준결승전에서 자유 중국의 Wu Han-Chie선수를 맞아 우승을 건우어 결승전에 임하였다.

결승전에서는 싱가포르의 Cheok Siew Ghee선수를 맞아 일방적인 공방전 끝에 2회전에서 기권승을 건우어 2일째 경기에서는 처음으로 5번째의 금메달을 확보하였다.

- 1위 양기모(한국)
 - 2위 Cheok Siew-Ghee(싱가폴)
 - 3위 Wu Han-Chie (자유중국)
- Nasser Ali Al-dmoor (요르단)

〈반탑급의 대전〉

한국대표선수인 최승용선수는 예선전에서 싱가포르선수를 맞았으나 싱가포르선수도 만만치 않은



첫날 경기에 우승하고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로 힘겹게 판정승을 건우어 준결승전에 진출하였다. 준결승에서는 요르단선수를 맞아 판정승을 건우고 결승전에 진출하여 자유중국의 Lie Shun-long선수를 맞아 3회전을 통하여 득점은 많이 뺏었으나 공격후 2번이나 넘어져 관중들을 고조된 분위기로 몰았으며 게임운영에 있어서는 비슷하였다.

그러나 판정결과 다득점으로 최승용선수의 판정승이 내려지자 자유중국의 박중화코치의 항의와 더불어 자유중국선수가 경기장을 퇴장할 않고 앉아서 경기장을 점거하는 등 다음 경기가 지연되었다.

- 1위 최승용(한국)
- 2위 Lie Shun-long(중국)
- 3위 Moussa Bdeiw(요르단)

〈페터급의 대전〉

한국대표선수인 이준걸선수는 예선전에서 인도네시아선수를 맞아 일방적인 공격을 가해 TKO에 가깝도록 몰고 갔으나 타임 아웃으로 판정승을 건우었다. 준결승에선 판선수와와의 대전에서 역시 TKO로 승리를 거두었고, 준결승전에 올라섰다.

홍봉선수를 맞아 판정승을 거두어 결승전에 올라 자유중국의 Lie Kau-Ming선수를 압도적으로 제압하고 판정승으로 또 하나의 금메달을 확보하여 7번째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 1위 이준걸(한국)
 - 2위 Lie Kau-Ming(중국)
 - 3위 Li Ping-Hong(홍콩)
- Rov Tang Wai Weng(싱가폴)



종합우승을 차지한 한국

〈웰터급의 대전〉

한국대표선수인 김정국선수는 예선전에서 요르단선수를 맞았으나 요르단선수의 기권으로 준결승에 올라 자유중국선수를 맞아 판정승을 거두고 가법계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결승전에서는 판의 Finley Jerry선수를 맞았으나 1회전 1분 30초만에 통쾌한 K.O승을 건우어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KO승을 내므로서 금메달의 영광은 물론이거니와 태권도 종주국의 우수성을 여실히 과시하여, 한국선수의 사기를 돋우는 역할을 착실히 해내었다.

1위 김정국(한국)

2위 Finley Jerry(판)

3위 Wang Chien-Hsie(중국)

Richard Goh Pui Kwong(싱가폴)

〈핀급의 대전〉

한국대표선수인 이진우선수는 예선전에서 요르단선수를 맞아 1회전 2분 30초만에 통쾌한 KO승을 건우고 준결승전에 진출하여 싱가포르선수를 맞아 판정승을 건우고 결승전에 진출 자유중국의 Su Chen-Chia선수를 맞아 치친 몸으로 약간 힘겨웠으나 판정승을 건우고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1위 이진우(한국)

2위 Su Chen-Chia(자유중국)

3위 Chia Pheng Pheng(싱가폴)

Li Chi Hung(홍콩)

〈미들급의 대전〉

한국대표선수인 조남재선수는 예선전에서 일본선수를 맞았으나 기권으로 부전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올라 홍콩의 Lin King Wan선수를 맞아 2회전 1분만에 통쾌한 KO승을 거두어 결승전에 올라섰다. 그러나 자유중국의 Huang Min-Teh선수와와의 대전에서 너무나도 힘겹게 게임을 운영한 나머지 판정패 당하므로서 금번 대회에 처음으로 은메달에 머물고 말았다.

1위 Huang Min-Teh(중국)

2위 조남재(한국)

3위 Alwanah Ahmed Moh'd Hessein(요르단)

Lin King Wan (Hong Kong)

금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은 그 어느때 보다도 침착하여 선수단의 일치 단결이 잘 되었다고 보며 경기운영면에서도 1~2명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태권도 종주국의 대표선수답게 화이팅이 좋았다고 생각된다. 국내경기에서도 볼 수 없었던 KO승이 4회 TKO승이 5회나 속출되었다.

자국별 메달 획득수는 다음과 같다.

	금	은	동	총위
한 국	9	1		1
자 유 중 국	1	6	2	2
요 르 단	0	1	6	3
싱 가 폴	0	1	4	4
판	0	1	1	5
홍 콩	0	0	3	6
부 르 나 이	0	0	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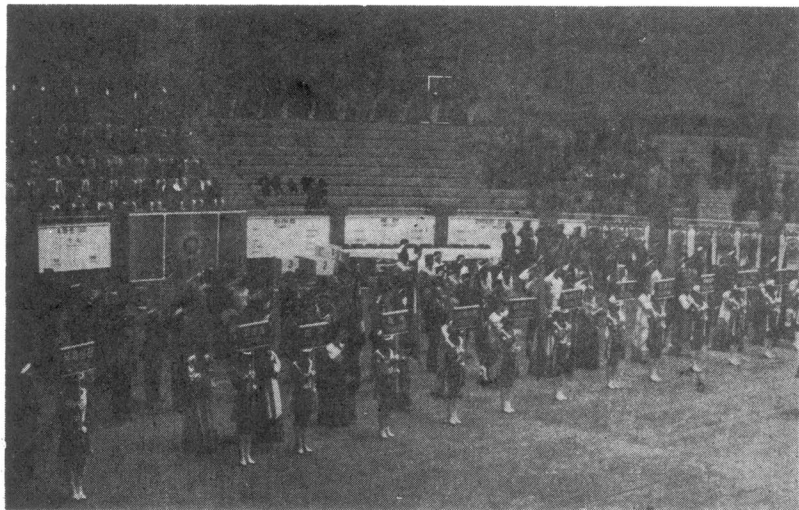
항시 느껴왔던 바이나 특히 금번 제 4회 아세안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지인 자유중국 북부 시에서 대회기간동안 보고 느낀점을 요약한다면 은연중 자유중국에서는 태권도 종주국이 한국보다는 중국일 것이라는 환상에서인지 본래의 태권도 특성 기질이 있어서인지, 태권도에 대하여 협회 임원들은 물론 자유중국 정부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몇일전에도 많은 태권도사범들을 해외에 파견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요르단 태권도선수단을 위시해서 중동, 남미지역의 태권도 수련생을 자유중국에 초청하여 교육을 시키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를 간파할 수만은 없을 것이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총화 단결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겨루거나 직결할 수 있는 품세 제정, 고차원적인 기술개발 태권도 철학의 정립을 서둘러 교본 및 콤팩트, 기타 유인물을 통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여야겠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전 태권도 회원은 너나 할것 없이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태권도 종주국의 면모를 세우는데 다 같이 참여하여 새 시대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선봉이 되어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제 1 회 국제군인 태권도 대회

The 1st C.I.S.M Taekwondo Championships



개 회 식 전 경

제 1 회 국제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개막되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등 세계 15개국 160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한국 주체로 열린 것이다. 지난 79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3차 국제군인 체육회(CISM) 총회에서 태권도를 정식 경기종목으로 채택한 이래 처음으로 갖게되는 이 대회는 태권도의 종주국인 한국을 그 첫번째 개최지로 선정하고 각국의 태권도 군인선수들이 모여 띠, 플라이, 반탐, 등10체급에 걸쳐 토나먼트로 진행되었다.

경기는 국가별과 체급별로 구분 3위까지 순위를 가리며 내한한 국제군인 태권도 선수들은 신

라호텔에 여장을 풀었고 국립묘지 참배, 국방부장관 예방및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인 김운용총



국제군인 대회에 참석한 각나라의 대표들이 국기원으로 김운용회장을 방문했다.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는 세계연맹 김윤용회장

재를 방문한 후 경기일정에 들어갔다.

싱가포르, 미국,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가나, 케냐, 모로코, 영국,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태국, 에콰도르 등이 출전국으로 참가했으며 그중 영국,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태국, 에콰도르는 업저버로 참가했다.

상당수의 군고위 관계자들이 이 대회를 위해 입국하여 우방국 관계자들과 우의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라 하겠다.

1일 하오 2시에 화려한 막을 올린 이 대회장에는 대회장인 국방부의 차관 박찬국씨 김윤용 세계태권도연맹총재, 국제군인체육회 공식대표인 사우디의 투지소장 및 각국 선수단과 5,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박찬국 국방부차관은 이번대회를 통해 국제군인체육회의 이념인 회원국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친목을 도모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고, 김윤용 세계 태권도 연맹총재는 태권도가 국제올림픽정식종목으로 승인된 이때에 전세계의 태권도인들은 태권도의 기술과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국기원에서 한국대표 선발전을 갖었는데 편급엔 특전사의 정창호, 플라이급 특전사의 강종길, 밴텀급 특전사 최중복, 페더 특전사 임대택, 라이트 해군 박상권, 웰터 특전사 김정국, 라이트미들 특전사 김현태, 미들 특전사 조남재, 라이트헤비 특전사 김무영, 헤비 특전



협회를 방문한 콜롬비아 선수단

사 용영록 선수가 1위에 입상하여 한국대표선수로 선발 태능선수촌에서 합동훈련을 받으며 대회에 대비한 준비를 해왔다.

첫날 개회식이 있은뒤엔 공개행사가 화려하게 펼쳐졌는데 시립무용단의 꽃부채춤, 북춤, 장고춤 등 서울미동국민학교, 청산여상, 육군특전사의 태권도시범 및 동두천여상의 고적대연주 등으로 참가한 외국선수와 내외귀빈, 관중들을 흥겹게 했다.

각국선수들은 모두 정모 정장차림으로 근엄한 자세를 갖고 개회행사에 참석, 규율과 질서의 군인대회 면모를 보여주었다.

첫날 4시부터 시작된 편급 1회전 첫경기에서 한국의 박순철(해군) 선수는 쿠웨이트의 모하마드를 맞아 선전분투 2회 15초만에 KO로 첫승리를 거두었는데 박순철선수는 주특기인 오른발후리기로 상대의 얼굴을 명중시키며 공격의 주도권을 잡았는데 2회전에서 앞차기 돌려차기 등으로 다양한 기술을 발휘 뒤차기로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 한국에 첫 KO승을 안겨준 것이다.

첫날은 편급 한계임과 플라이급, 반텀급, 모두 4게임이 벌어졌는데 플라이급에서 요르단의 아메드선수가 싱가포르의 윈펑청 선수를 판정으로 이겼고 플라이급의 또 한계임에서 콜롬비아의 라이에즈선수가 자파선수(바레인)를 밴텀급 1회전에서 싱가포르(장록생)이 모로코의 무스타파를 판정으로 각각 눌러 첫 승리를 장식했다.

그리고 준결승에 모두 진출한 한국선수들은 확실한 성적을 쌓으며 이겼는데 준결승경기에서

웰터급의 김정국선수(육군)은 미국의 피피제임스(P.P. James, E)와 맞서 원발돌려차기로 열구리를 강타 2회2분 30초만에 통쾌한 KO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한 반면, 미들급의 조남제는 존스톤 미첼과 1회에서 접전을 벌이고 2회에 되돌려차기등으로 안면을 강타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었다.

헤비급의 용영록선수의 탈락을 제외한 9체급의 결승진출로 종합우승이 확정된 한국은 6일결

승전에서 헤비급을 제외한 9체급을 석권했다. 결승에서 웰터급의 김정국선수는 국가대표선수답게 바레인의 하산선수를 맞아 2회에 TKO승을 거두었고 다른체급들은 판정승으로 금메달을 차지 1일부터 5일간 거행된 이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9개 동메달 1개로 종합위를 차지했고 2위는 금메달 1개 동메달 4개로 美國이,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바레인이 3위를 각각 차지했다.



自 由

참자유라 함은 낮에 근심이 없어지고, 밤에 걱정과 슬픔이 없어진 때도 아니요, 차라리 그 모든 것이 너희 생활에 휘감기는 가운데서 그것을 벗고 끊고 일어서는 데 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떼어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너희 자신의 부스러기이다.

—칼릴 지브란—

1980년도 전국 태권도 우수 선수선발 대회

1980년도 전국 태권도 우수선수선발대회가 11월 25일부터 국기원에서 이틀동안 열렸다. 전국에서 참가한 237명의 선수들이 그동안 쌓은 실력을 겨루며 80년도 최우수 선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자리에서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회장은 개회식사를 통해 세계속의 태권도의 주인공들답게 좋은 경기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하며 80년도를 기점으로 우리 모든 태권도인들은 자체내의 정화와 태권도 풍토의 거국적인 쇄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올림픽 종목으로 승인된 것을 명심하고 각자각자 최선을 다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

도록 노력해야 할것은 물론이고 연구와 창의 정신을 길러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협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개회사를 끝맺었다.

개회사에 이은 경기는 각부별 10체급으로 구분하여 시작되었는데 토나멘트식의 개인전으로 1위 2위에 입상한 선수는 81년도 대표선수선발 삼비군에 편입할 자격을 얻게되며 이 대회에 가장 성적이 우수한 선수 한명을 선발하여 최우수 선수선정의 영광을 주게 된다.

80년도 최우수 선수선발대회의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980년도 전국 우수선수 선발대회 입상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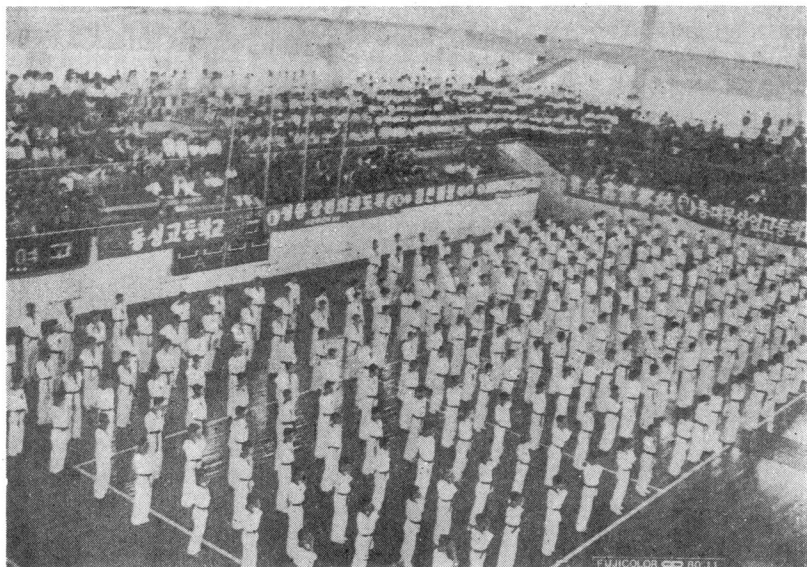
체 급 별	1 위				2 위				3 위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핀	급	權基文	서울체고		金基浩	한국체대			鄭奎永	풍	색		鄭載均	관동대학		
플	라 이	梁基模	한국체대		安明一	서울체고			李印宰	광	성		李啓雄	학다리고		
밴	텀	韓吉燮	천호상고		韓洪植	동성고			金學萬	전북체육관			李庚培	풍	생	고
페	머	李載鳳	한국체대		徐鍾鑽	유도대			林官仁	청주대			李鎔俊	중앙대학교		
라	이 트	金英國	해	군	全廷祐	동성고			李東秀	유도대			李相愛	한국체육대		
웰	터	金貞國	5	공수	朴天在	한국체대			柳鍾哲	동성고			張益壽	천호상고		
라	이 트 미	車相赫	한국체대		金鍾石	오수고교							金起弘	청파도장		
미	들	李東煥	청주대		金鍾寬	현대자동차			李澤珪	이천체고			林在起	간석도장		
라	이 트 해	鄭 讚	동아대		金善洪	전남체고			鄭富根	서울체고			金東煥	한국체대		
해	비	張勝和	한국체대		陳重義	유도대			李鍾豪	인천체고			朴鍾萬	서울체고		

평화라는것도 생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모든 생명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넘치고 부족하고 하여 순화와 시련을 이기고 변천을 겪지 않으면 안된다.

—헤르만 헷세—

제 7 회 중고연맹회장기 쟁탈 전국중고태권도대회

The 7th Middle & High School TKD Champion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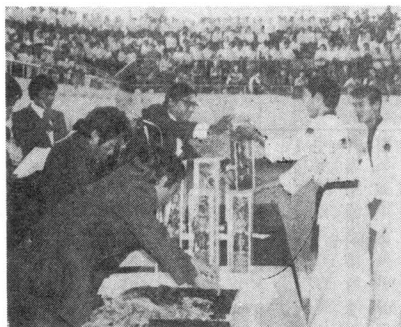
제 7 회 회장기 쟁탈 전국 중고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80년 9월 17일 국기원에서 개막되었다. 국내 태권도인사 및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개막식에서 김한선 중고연맹회장은 질서 있는 생활을 생활화하고 배우며 익히는 청소년의 미래는 밝은 것이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태권도로 심신을 단련하는 것에서 체육정신을 명심하고 슬기와 용기로서 행동하고 끈기와 희생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자고 역설했다.

김한선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세계속에서 도

약하는 태권도와 그 주인으로서 우리가 처신해야 할 올바른 태권도 인상은 곧 의지가 굳고 신념에 가득차 있으며 불의에 일어설 줄 아는 숭선 수범적인 양심을 지닌 것이라고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은 축하사를 이었다.

10시부터 시작된 올 80년도 중고연맹회장기 쟁탈전에는 682명의 남고부 선수, 66명의 여고부 162명의 중학부가, 각 시도지부에서 참가하여 열띤 경합을 펼쳤다.

3일동안 열린 이번대회의 전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승팀에게 우승컵을 전달하고 있다.

1980년 중등부 수상자 명단

체급 순위 종목 및 수상 내용	수 상 자	
	학 교	성 명
중등부핀급 1위	삼 광 중	李 善 長
" 2"	동 생 중	金 哲 基
" 3"	배 명 중	李 鍾 善
" 3"	고 려 중	金 鍾 俊
푸라이급 1위	배 명 중	崔 龍 德
" 2"	한 영 중	吳 泳 周
" 3"	동 성 중	崔 天
" 3"	백 제 중	金 仁 虎
넵 텀 급 1"	한 영 중	金 知 泰
" 2"	삼 광 중	金 星 九
" 3"	백 제 중	宋 庸 遠
" 3"	청 량 중	金 盛 翰
페 더 급 1위	종 생 중	趙 哲 植
" 2"	한 영 중	金 俊 泰
" 3"	한 영 중	崔 利 海
" 3"	청 량 중	崔 鎭 鑽
라이트급 1위	삼 광 중	朴 相 萬
" 2"	한 영 중	申 相 敦
" 3"	공 항 중	金 地 春
" 3"	한 영 중	李 周 煥
웰 터 급 1위	영 등 포 중	金 湧 豪
" 2"	불 광 중	金 湧 洙
" 3"	한 영 중	洪 龍 燮
" 3"	한 영 중	宋 鍾 錫
미 들 급 1위	영 등 포 중	羅 龍 昶
" 2"	한 영 중	林 允 澤
" 3"	청 량 중	高 承 燁

체급 순위 종목 및 수상 내용	수 상 자	
	학 교	성 명
" 3"	공 항 중	李 泰 日
해 비 급 1위	고 려 중	許 韓 煥
" 2"	배 명 중	韓 京 鍊
" 3"	한 영 중	李 在 鎬
" 3"	삼 광 중	朴 良 錫
단체 (중등부) 우승	한영중학교	金 正 男
"	"	吳 泳 周
"	"	金 知 泰
"	"	金 申 泰
"	"	申 相 敦
"	"	宋 鍾 錫
"	"	林 龍 澤
"	"	李 在 鎬
2위	삼광중학교	李 善 長
"	"	金 權 九
"	"	權 相 鉉
"	"	朴 玉 鍾
"	"	朴 贊 錫
"	"	朴 贊 良
3위	영등포중학교	林 春 默
"	"	朴 英 澤
"	"	康 誠 洙
"	"	禹 相 敬
"	"	朴 鍾 洙
"	"	李 幸 周
"	"	羅 允 豪
"	"	姜 昶 珉
"	"	姜 錫

1980년 여자고등부 수상자 명단

체급 순위 종목 및 수상 내용	수 상 자	
	학 교	성 명
여고부핀급 1위	인 천 여 상	吳 明 花
" 2"	청산여상전수	朴 賢 淑
" 3"	청산여상전수	金 淑 玉
" 3"	은 광 여 고	李 福 任
푸라이급 1위	인천체육고	林 信 子
" 2"	청산여상전수	許 仁 成
" 3"	은 광 여 고	嚴 成 恩
" 3"	성암여상고	嚴 順 子
넵 텀 급 1위	인천체육고	崔 善

체급 순위 종목 및 수상 내용		수 상 자	
		학 교	성 명
"	2"	청산여상전수	辛 美 淑
"	3"	성암여상고	黃 蓮 禧
"	3"	은 광 여 고	徐 正 南
페 더 급	1위	청산여상전수	鄭 汾 玉
"	2"	청산여상전수	李 金 子
"	3"	인천체육고	朴 侁 用
"	3"	인천체육고	黃 요안나
라이트급	1위	대전체육고	崔 京
"	2"	은 광 여 고	徐 英 實
"	3"	인천체육고	姜 明 伊
"	3"	상명여사부고	金 泰 淑
웰 터 급	1위	청산여상전수	李 鎮 英
"	2"	대전체육고	李 殷 淑
"	3"	은 광 여 고	李 玉 熙
"	3"	청산여상전수	李 安 淑
미 들 급	1위	청산여상전수	金 喜 女
"	2"	인천체육고	尹 如 蘭
"	3"	은 광 여 고	高 京 子
"	3"	청산여상전수	孔 德 基
헤 비 급	1위	청산여상전수	全 五 順
"	2"	은 광 여 고	權 孝 淑
"	3"	신 명 여 고	鄭 美 敬
"	3"	청산여상전수	李 銀 珠

1980년 고등부 수상자 명단

체급 등의 종목 및 수상 내용		수 상 자	
		학 교	성 명
남고부민급	1위	동대문상고	李 鎮 雨
"	2"	인천체육고	金 允 煥
"	3"	풍 생 고	鄭 奎 永
"	3"	서울체육고	權 基 文
푸라이급	1위	동대문상고	全 雄 煥
"	2"	동 성 고	韓 洪 植
"	3"	인천체육고	金 白 弼
"	3"	동 성 고	金 永 基
판 탐 급	1위	동 성 고	張 明 三
"	2"	풍 생 고	李 庚 培
"	3"	천호상전수	韓 吉 燮
"	3"	진 체육고	金 鶴 烈
페 더 급	1위	대전체육고	李 鍾 虎
"	2"	풍 생 고	張 漢 培
"	2"	협 성 상 고	安 金 晉
"	3"	동 성 고	金 永 勳
라이트급	1"	동 성 고	郭 東 秀
"	2"	인천광성고	李 根 浩
"	3"	한 성 고	崔 溶 泰
"	3"	천호상전수	李 聖 植
웰 터 급	1위	동 성 고	柳 鍾 哲
"	2"	성동상전수	崔 光 根
"	3"	협 성 상 고	孔 贊 圭
"	3"	천호상전수	張 益 壽
L-미들급	1위	동 성 고	文 元 載



체급 등의 종목 및 수상 내용	수 상 자	
	학 교	성 명
" 2"	전남체육고	趙炳赫
" 3"	경북체육고	張賀煥
" 3"	성동상전수	崔燦雄
미 들 급 1위	대전체육고	李康植
" 2"	전남체육고	金良基
" 3"	송도상고	金龍甲
" 3"	경북체육고	劉洙鍾
L-해비급 1"	서울체육고	朴鍾萬
" 2"	협성상고	金容旭
" 3"	중생고	姜承佑
" 3"	전남체육고	金善洪
해 비 급 1위	서울체육고	鄭富根
" 2"	전남체육고	曹忠鉉
" 3"	대성고	高旭鍾
" 3"	송도상고	文憲泰
(여자고등부) 단 체 유 승	청산여자전수	朴賢淑
"	"	許仁子
"	"	辛美金
"	"	李金子
"	"	朴愛京
"	"	李銀英
"	"	金喜女
"	"	全五順
2 위	인천체육고	徐銀淑
"	"	林信子
"	"	崔善子
"	"	黃요안나
"	"	姜明伊
"	"	申愛子
"	"	尹如蘭
"	"	文佑榮
3 위	은광여고	李福成
"	"	李恩淑
"	"	高婉雲
"	"	白雲珠

체급 등의 종목 및 수상 내용	수 상 자	
	학 교	성 명
"	"	徐英實
"	"	李玉熙
"	"	高京子
"	"	權孝淑
(남자고등부) 단 체 유 승	동성고	文炳虎
"	"	韓洪植
"	"	張明三
"	"	全廷祐
"	"	郭東秀
"	"	柳鍾哲
"	"	文元載
2 위	서울체육고	權基文
"	"	金尙泰
"	"	洪銀錫
"	"	楊周英
"	"	崔軫河
"	"	方滿圭
"	"	李孝周
"	"	尹漢敦
"	"	朴鍾萬
"	"	鄭富根
3 위	전남체육고	李柄錫
"	"	鄭吳洙
"	"	金鶴烈
"	"	趙光勳
"	"	蔡炯稷
"	"	玄東洙
"	"	趙炳赫
"	"	金良基
"	"	朴炯大
"	"	曹忠鉉
남중최우수선수상	한영중	金知泰
여고	청산여상전수	李銀英
남고	동성고등학교	柳鍾哲

세계속에 도약하는 태권도의 주인으로서, 굳은 의지와 신념 그리고 술선수법적인 바른 양심을 키워야 한다.

그러므로써 곧 기술의 발전을, 정신으로 뒷받침하여 완전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운용총재의 축사에서—

제 6 회 국민학교 연맹 회장기쟁탈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 단체 대항전

The 6th National Primary School Taekwondo Tournament.



'80년 10월 18일, 제 4 회 국교연맹회장기 쟁탈 전국국민학교태권도 단체대항전이 국기원에서 개막되었다.

약 300여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막을 올린 개막식에서 국교연맹의 박영훈회장은 특중한 물에 건진한 정신을 갖자고 말하며 태권도로 인한 준법과 예의의 정신을 기르는게 중요하고 대회를 갖는 의미는 승부에서보다 참가하는 어린이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더 깊다고 했다. 대한태권도협회 강원식 전무이사의 축사가 끝나고 시작된 경기에서는 우렁찬 기합소리와 갖가지의 묘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어린이 태권도의 또다른 면모를 과시하며 질서정연하게 계속되었다

다음날인 19일에 열린 결승전의 단체대항전에서 광희교는 웰터급 우승등 8체급에서 고른 성적을 거두어 총 23.5점으로 종합우승의 자리를 굳혔고, 서울광장교가 22점, 동명교가 18.5점으로 각각 그 뒤를 쫓았다.

전국 5개 시도의 38개 국민학교에서 329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결승전의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8개 체급별 우승을 비롯 단체우승이 확정되었는데, 원급 결승전에선 서울광장교의 하태경 선수는 서울 광희교의 권태호 선수를 맞아 주무기인 앞올려차기로 판정승으로 우승했고 또한 가장 치열했던 플라이급 결승전에선 박지영 여자선수(경기 성남세 2교)가 오태환

광장교) 선수를 맞아 뒤돌려차기와 열차기등으로 당당히 판정승, 여자선수로서 관중들의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플라이급에서 우승한 박지영 선수는 지난 5월 5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 1회 전국 태권도왕 겨루기대회에서도 우승한 바 있는데 올해 전국대회의 2관왕을 차지한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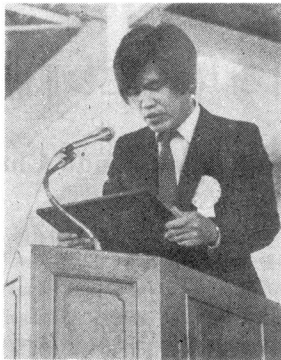
대회 전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체종합성적

우 승 : 서울광희교(23.5점)
준우승 : 서울광장교(22점)
3 위 : 서울동명교(18.5점)
정려상 : 성남제 2 교, 서울대신교
대 구 수창교
전 북 무주구천교

개인체급별 우승지명단

핀 급 1위 하태영(광장)
2위 권태호(광희)
3위 이창훈(광장)
김동규(흥인)



플라이급 1위 박지영(성남 제 2 교)
2위 오태환(광장)
3위 서대원(광희)
박철민(삼양)
반 탈 급 1위 김덕홍(대구 수창)
2위 김진선(광장)
3위 최효석(광희)
조준원(광희)
페 더 급 1위 정석용(동명)
2위 윤성식(성남)
3위 이건일(대신)
이희영(대구 수창)
라이트급 1위 경규선(동명)
2위 양춘열(삼양)
3위 장 혁(광희)
엄만식(노량진)

웰 더 급 1위 김성호(광희)
2위 이병철(대신)
3위 이동윤(목동)
민태남(마천)
미 들 급 1위 양대승(송천)
2위 현철인(연가)
3위 이여백(선곡)
정홍주(송정)
헤 비 급 1위 김명환(흥인)
2위 박영희(잠일)
3위 김용태(송정)
황성수(신길)

송년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갈 곳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 2 회 전국여성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The 2nd Woman's Taekwondo Championship

1980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국기원에서 제 2회 전국여성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1979년도에 창설되어 매년 연중행사로 여성태권도대회를 개최하는데 작년 9월에 그 첫치를 갖아 국내여성 태권도인들의 적극적인 호응하에 여성태권도의 기발을 높이 들었다.

개회사에서 김학선 여성태권도연맹 회장은 태권도가 바야흐로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된 시기에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룰 수 있음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하며 화랑정신이 맥맥히 계승되어 온 민족정신의 도화인 동시에 우리 겨레의 자력이 담겨있는 무도 태권도의 후예로서 굳은 의지로 한국여성의 지존하고 고매한 성품을 다듬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회사에 뒤이어 전 초대문교부장관 안호상박사는 축사를 통해 공평한 인간 가치관 위에 공존의 미덕을 실현할 이 세역사앞에 여성태권도가 이나라 여성의 잠재적인 슬기를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우리 한국여성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자랑하고 나아가 국력 배양과 국위선양의 뿌리가 될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회를 거듭할수록 찬란한 업적을 체육사에 기록하기 바란다고 하며 축사를 끝맺었다.

개회식에 참가한 선수는 유단자부에 68명 유급자 59명으로 127명의 여성태권도 선수가 출전했다.

대회전적은 다음과 같다.

제 2 회 한국여성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입상자명단

체 급 별	1 위		2 위		3 위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핀 급	吳明花	인천여상	金善玉	청산여상전	김금련	이수체육관	정연희	은광여고
플라이급	林信子	인천체고	박현숙	청산여상전	장희인	동명여고	선은숙	인천체고
밴 텀 급	김경주	중앙대	전애연	동명여고	파옥윤	청산여상전	양인옥	이태원도장
패 머 급	최철자	인천체고	이혜숙	산성도장	김명숙	은광여고	이영섭	청산여상
라이트급	박필순	광안도장	신정분	청산여상전	박애경	청산여상전	이혜경	유도대학
웰 터 급	공덕기	청산여상전	권오순	청산여상전	김태숙	상명사대부고	송혜경	동명여고
미 들 급	김노마	이태위도장	안숙경	청산여상전	이은주	청산여상전	김영란	승신여고
헤 비 급	김희여	청산여상전	안설기	유도대학	허정희	은광여고	박경숙	이태원도장

제61회 전국체전을 마치고

The 61st National Games TKD Competition

오 광 웅

높고 푸른 10월의 가을하늘 아래 서마다 타고난 재질을 앞세워 용도자의 기상을 빛내기 위하여 호남의 중심지인 전주땅에 발을 디으며 각도입원 선수들은 필승을 다짐하고 있었다.

개회식장인 전주공설운동장 스탠드에 마련된 관중석엔 각도에서 찾아온 체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팬들이 열띤 박수를 치고 있었고, 우렁찬 악매의 행진곡에 발맞추어 순서대로 각도입원 선수들은 가슴을 펴고 나뭇대로의 세련된 단복 차림으로 용도의 기량을 양 어깨에 걸머지고 자신있게 트랙의 라인선을 밟고 입장했다.

개회식에서는 각도의 입원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인 광경을 볼때 그렇게 반가울수가 없고 체력이 곧 국력이며 체력으로 총화단결하여 우리의 국민성을 드높이자는 격려사가 운동장 가득 울려 퍼졌다.

개회식이 끝나고 각계 종목별로 대회장을 찾아서 들어섰다.

태권도 대회장은 이리시 원광대학교 강당이었다.

대회직전에 만난 각도입원 선수단들은 오래동안 그리웠던 얼굴들이라 그간의 안부를 물으면서 웃는 낯으로 인사를 했다. 또한 이층 관중석에 웅원단 또는 관람자들도 열띤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필승의 야욕에 승리를 앞세워 용도의 사명감을 통째로 지고 왔다고 하지만 다 같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특히 무인의 기를 터득한 경기인으로서 대회에 참가하는 태도엔 문제가 있었다.

경기장에서 발생한 부정할 수 없는 소란을 생 각할 때 태권도를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우리 입

원선수들은 진심으로 기본양식 선언을 하고 자 각의 기회를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개 체육관에서도 많은 수련생들중에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발굴할 수 있으며, 학교나 기타 단체 행정당국에서 훌륭한 스포츠로 태권도가 인정되므로써 각분야별 대회가 알차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즈음에 지도자는 참다운 태권도인의 모범을 보여야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서로가 태권도란 간판을 중요하게 느끼고 우리가 선택한 종목을 사랑할 줄 아는 성인이 되어 우리들의 디딤돌을 앞장서서 구축해 나가야겠다. 현실의 태권도 경기장엔 우리들만이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이 지도하는 것도 수련하는 것도 아니란 것을 깊게 깨닫고 세계속의 태권도가 비단 우리의 국기며 우리나라가 주국일지라도 영원한 명예를 우리들만이 갖고 있으리라고 믿지말아야겠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영예의 금메달과 보람으로 불리워질 애 국가를 우리 태권도인의 노력으로 전국민에게 들려주자.

태권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지도자들은 태권도 세계화를 이끌기 위한 길잡이가 되어 지구과도 상에 한알 한알 태권도 진실의 씨앗을 뿌려 영예의 결실을 거두어 들어 중주국의 면모를 수호해야겠다.

우리 지도자들은 성과 열을 다하여 참신한 마음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여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발견, 세계무대에 내세워 영예의 메달을 안겨주는 것이 그 책임이라 하겠기에 이제 다같은 태권도인끼리 부딪쳐 싸우는 시간을 이용하여 범태권도 경기 및 심판의 공정성을 되찾기를 바란다면 연구 노력하여 보다알찬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자자의 숨은 재질을 개발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토론하여 획기적인 태권도발
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다.

이틀동안 성황리에 끝낸 제61회 전국체전태권도계
입의 전적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

〈고등부〉

등위 체급	1 위		2 위		3 위			
	성 명	소속도명	성 명	소속도명	성 명	소속도명	성 명	소속도명
핀 급	이계웅	전 남	최준호	전 북	곽호경	충 북	전만봉	경 북
플 라 이 급	이종열	부 산	도용석	강 원	김충욱	세 주	백춘기	경 울
밴 텀 급	박기성	서 울	전광수	전 북	이경배	경 기	김윤표	경 북
페 터 급	한재구	충 북	정범수	서 울	이종호	충 남	정성철	세 주
라 이 트 급	손인덕	충 북	이근호	경 기	안선준	충 남	나일환	충 북
웰 터 급	서화수	부 산	문종국	경 북	김양우	충 북	한강수	충 남
라이트미들급	김종석	전 북	조병혁	전 남	홍대근	서 울	성관용	충 남
미 들 급	김병삼	부 산	김양기	전 남	김재열	경 북	윤한돈	서 울
라이트헤비급	강승우	경 기	박종만	서 울	박형대	전 남	주덕용	경 남
헤 비 급	최호성	전 북	조중현	전 남	박봉익	충 남	최충남	경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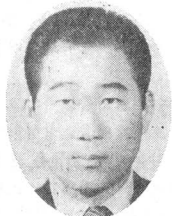
〈대학부〉

등위 체급	1 위		2 위		3 위			
	성 명	소속도명	성 명	소속도명	성 명	소속도명	성 명	소속도명
핀 급	강학원	경 북	정재유	강 원	여성기	충 북	허종순	세 주
플 라 이 급	김은철	전 북	박대원	경 북	양기모	서 울	이승형	부 산
밴 텀 급	윤용철	전 남	윤주철	서 울	최승용	경 남	강명덕	세 주
페 터 급	이재봉	전 울	최재춘	전 북	하서광	경 남	유석근	전 남
라 이 트 급	윤오남	전 남	최덕진	충 남	지용범	충 북	김한노	부 산
웰 터 급	최인식	경 기	김성훈	세 주	노승구	서 울	오준환	강 원
라이트미들급	이종찬	세 주	심원정	부 산	황태진	경 기	이태훈	서 울
미 들 급	신재근	전 북	김상천	서 울	서삼동	경 남	이중균	부 산
라이트헤비급	정 찬	부 산	강광효	세 주	하용성	서 울	최재용	경 북
헤 비 급	강용구	경 북	천세형	충 남	최태서	경 남	진중의	서 울

〈일반부〉

등위 체급	1 위		2 위		3 위			
	성 명	소속도명	성 명	소속도명	성 명	소속도명	성 명	소속도명
핀 급	장현직	경 기	김원택	세 주	장현수	전 남	박성현	부 산
플 라 이 급	이길홍	경 남	김준현	서 울	박상철	부 산	이 광	전 남
밴 텀 급	김종기	경 남	박임생	강 원	박승동	충 북	이 진	경 북
페 터 급	정근표	경 기	김진양	전 북	김순태	경 남	김명환	충 남
라 이 트 급	박오성	경 남	시인규	경 북	정기수	경 기	김태우	충 남
웰 터 급	박익용	경 기	김형중	충 남	김영국	경 남	박태상	서 울
라이트미들급	황선두	경 기	김무천	충 북	전갑진	전 남	권진용	재 미
미 들 급	노옥상	경 기	한민식	전 남	이대성	서 울	이기수	경 북
라이트헤비급	김영승	경 남	이문희	경 기	조병구	충 남	최경양	원 당
헤 비 급	민원기	경 남	양언서	경 기	서일원	충 남	김진갑	전 남

국제심판이 본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최 오 영
(강원도협회부회장 국제심판)

體育的인 則面에서의 跆拳道와 지난 11월 9~11월 17일까지 自由中國 臺北市에서 개최되었던 第4회 아세아태권도 선수권大會에 파견되었던 國際審判으로서 그곳 臺北市에서 열렸던 大會實情과 大韓民國 跆拳道選手들의 技術開發등에 對하여 이야기 하고져 합니다.

體育은 人間을 形成함을 그 目的으로 하고 運動이라고 하는 手段과 方法을 利用하게 되며 어디까지나 人間을 基礎(기저)로 하는 까닭에 人間の 全體가 기반이며 全人的 運動을 對象으로 합니다.

그래서 體育은 실천의 科學이며 實行的 수업이며 몸으로서 배우는 科學입니다. 그러므로 言行一致의 人間을 形成하되 身體의 能力을 높이고 心理的 社會的으로 건전하며 社會生活을 하는데 個人으로서나 社會人으로서 不足함이 없이 훌륭한 生活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主로한 과정을 體育이라 합니다.

跆拳道!

우리는 그 뿌리를 찾아서 부단하게 고증 研究史料의 발굴과 분석 연구로 명실상부한 中主國으로서의 世界化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가 생각됩니다.

跆拳道 수첩에 기록된 跆拳道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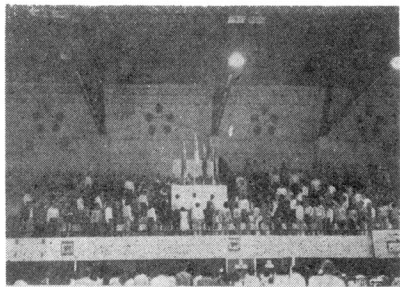
相對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맨손과 맨발로 自身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護身의 武術을 스포츠化 한 것으로 精神的 修養과 투지를 기르며 强者에게 剛하고 弱者에게 柔하며 公손과 겸양 또는 禮儀를 지키며 나아가서는 용맹과 忍耐로서 自身의 德을 닦는 行動哲學으로서의 現代 스포츠라고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한국선수들의 입장

어려운 여진속에서 韓國出身의 국제심판 5명은 11월 9일 05:05분 KAL기편으로 출발했습니다. 문득 20년전 국민학교 교사 시절이 연상되었습니다. 구름의 종류를 가르치며 지도하던 나의 어린 꼬마들에게 선생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나 하는 회한등이 겹치며 나는 수많은 구름의 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포국제 공항어륙후 자유중국 中正 국제공항에 2시간10분만에 도착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한국을 위시 우승국의 국기가 게양되고 있다.

노란색 국제심판 유니폼을 입은 우리는 영접 나온 자유중국 태권도協會任員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臺北市內 Roma Hotel에 여장을 풀수 있었습니다.

氣溫은 영상 20°C의 초여름 날씨이며 시계를 한시간 늦게 뒤로 돌려야 했습니다.

10일부터 12일까지는 국제심판 강습회가 있어서 우리국제 심판들은 各國에서온 단장 임원들과 CISM大會를 통하거나 또한 전부터 익숙해있는 얼굴을 만나 시내관광을 했습니다. 자유중국에 거주하는 해병대 김기동 중령님(문화대학 부교수, 법학박사)과 자유중국 영화배우 김사육사범, 김정남 사범이 차로 초대하여 주었으므로 태권도인들간의 우애를 생각하며 잠시 한국을생각했었습니다. 문화가 다른 타국에서 거주하면 처도 민족성을 잃지않고 일하는 그들을 볼때 나는 태권도라는 매개체를 고마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 관광중 北投 계곡 온천은 입구에서 날계란을 사서 100°C라는 계곡에 호르는 온천수에 넣어 삶아진 계란을 신기하게 보았는데 유황 냄새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개회식에서 참가국은 한국, 자유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브르네이, 바레인, 팔, 인도네시아, 요르단 10개국이었습니다.

13일은 09:00~12:00각국 대표자 회의가 있었고 아세아 태권도 연맹정성大會가 스게출에 있었습니다.

오후 3~5시까지, 臺北市 市立體育館에서 예행연습을 끝내고 오후 6시30~9시까지 외교구락

부에서 대북시장 초청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푸짐한 요리와 그나라 특유의 오락등은 이국의 밤의 정취를 더욱 느끼게 했습니다.

14일부터 정식 경기가 시작되는 날인데 10시 30~12시까지 경기하고 점심식사한후 오후 2시~5까지 경기를 속행하여 한국은 금메달 4개를 획득했습니다.

15일엔 09:00~12:00까지 경기를 마치고, 다시 오후 2시~5시까지 오후계임을 실행하여 한국이 4개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관중들은 흥분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으며 경기 장내가 소란해졌고 연맹측에 가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15일 저녁신문(중화일보 연합보)에는 15일 경기의 내용을 誤報를 하여 16일 아침 호텔 로비에서 신문을 보니(한문글자여서 해석가능) 기사내용이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었는데 그중 그 內容은 ① 중요한 시험은 언제나 중국선수의 실력이 아주 월등하지만 최종에는 항상 한국 배심의 손에 의해 패배하고 만다.

② 현재 태권도의 심판과 배심은 모두 한국인이 장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시험이 있을때마다 반드시 강력한 태도로서 한국심판들의 편파적인 행위를 막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었습니다.

우리는 비장의 작오를 하고 꼭 그 기사를 쓴 신문기자의 오도에 대한 해명과 공개사과를 받거나, 자유중국 태권도協會의 권위있는자(전무급 이상)가 나와서 해명을 하지 않으면 경기를 보이콧트 하겠다고 다짐하고 오후 2시 경기장에 당도하니 많은 관중이 나와 있었습니다.

심판진은 한국 출신 국제심판 5명, 자유중국 5명, 홍콩 1명, 싱가포르 1명, 말레이시아 2명, 호주 1명, 요르단 1명, 캐나다 1, 전부 18명의 가족이 코였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중국 5명의 국제심판들의 편협한 태도가 그 모임을 우물하게 했습니다.

국제심판이라 함은 게임에 입하는 순간에 국적을 초월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종일경기는 필급(한국 이진우: 중국선수) 미필급(한국 조남제: 자유중국인)이었는데 예정된 시간이 1시간 지연되자 세계연맹측에서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문보도를 읽고는 죽어도 경기에 임할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니 자유중국협회 전무인가. 하는분이 정중하게 관중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관중들에게 게임의 흐름에 對하여 설명했습니다. 자국선수가 땀때는 자국출신의 국제심판이 주부심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니 관중들이 그제서야 전부 주부심이 한국 출신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박수를 보내주었지요.

마지막 경기의 배심은 전부 필자와 자유중국 국제심판 진봉유가 봤습니다.

미들급 시합에서 자유중국 선수가 우승을 하여 관정을 내렸는데 바로 자유중국에 영웅이 탄생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관중은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지막 결승을 끝으로 회비가 엇갈리는 모든 감정과 환희의 종지부를 찍고 저녁 6:30~9:30분까지 외교구락부에서 자유중국 문교부장관과 올림픽 위원회 주최의 만찬회가 있었습니

다. 밤 늦도록 자국팀의 특기자랑 속에 우정을 나누며 영원한 추억을 간직할채 이국의 밤을 보냈습니다.

제 4 회 아시아대회 경기를 모두 마치고 나는 한국선수들의 기량은 과연 어느정도 수준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도가 日本에서 世界로 뻗어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宗主國으로서의 자부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좀더 고도의 기술 開發로 각체급에서 석권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자각이 싹텄습니다. 이번 大會에서의 重量級에서 3체급 정도는 어려운 게임이 아니었나 사료됩니다. 득점面에서 완전하게 우세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이런 관중들도 준심판의 경기까지 도달해서 흥분하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선수나 임원, 모든 태권도인들이 합심하여 올림픽광장에 휘날릴 태극기의 그날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宗主國으로서의 자부심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종주국의 면모를 살리기 위한 부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심판들이 심판을 보고있다.

가는 곳마다 “원더풀”

이 경 란

(서울 미동국교 교장)

이 글은 스포츠소년동아에 5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미동국민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순방기이다. 지난
80년 8월에 있었던 미국 순회시범의 감동을 다시 엮는
다.
—편집자주—

대한 태권도 협회의 국가 대표 시범단인 우리 서울 미동국민학교 시범단 29명(임원 3·선수 26)은 지난달 1일 꿈에서나 그리던 미국에서 우리나라 교유의 무술인 태권도 연무 시범을 갖기 위해 26일 동안의 먼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다.

고종 34년 5월 1일에 개교되어 약 85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미동교로서는 너없는 영광이며 경사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이 시범단의 단장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미국의 12개시를 돌며 국기인 태권도 시범을 통해 태권도의 우수성과 한국 어린이들의 씩씩한 기상을 선보이는 현장을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이들의 활약상은 앞으로 계속 소개하기로 하고 우선 미동교 태권부의 역사와 미국에 시범을 가게된 동기와 그 배경을 소개한다.

60여년 가까이 된 낡은 미동교 강당에서 우렁찬 태권 소년들의 합성 소리가 맨 처음 울려 퍼진 것은 약 11년 전.

그 뒤 73년 현 지도 사범이며 이번 선수단 사범인 이 규형 씨(32살·공인 6단)가 우리 학교의 태권도부를 맡으면서 시범단이 태어났다.

그리고 시범단의 본격적인 활동은 지난 78년 2월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130여 회의 시범 기록을 세웠다.

그 시범 가운데는 사우디아라비아 반달빈 왕자 일행(78년 2월·국기원)에게 보여준 시범을 비롯, 재일 교포 대학생들에게 시범(78년 8월·

중앙교육 연수원) 태평양 지역 42개국 대표시범(79년 4월 국기원)비 올림픽 총회 참석 31개국 위원장 시범(80년 5월·국기원)등 외국의 귀한 손님들 앞에서 가진 것 등이 있다.

이처럼 우리 학교 시범단의 눈부신 활약이 계속되던 때에 시범단의 실력을 직접 보아서 알던 현 미국 체육회(AAU) 태권도 위원장인 양 동자 씨(41·워싱턴하위즈대 체육과 교수)가 미국초청장을 학교에 보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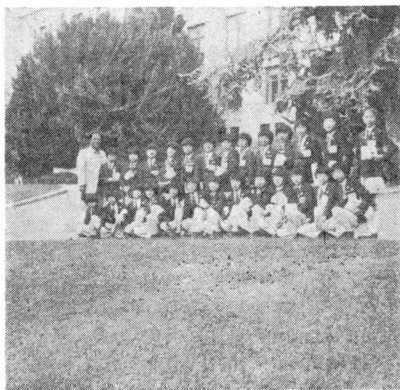
사실 우리 시범단은 초청이 온 6월 중순부터 출발일까지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8월 1일 우리시범단은 서울발 뉴유 요오크행 대한 항공의 대형 비행기 속에 몸을 싣었다. 26명의 어린이들은 모두 진한 곤색 상의에 베이지색 하의를 입었고 가슴에는 태극 마야크가 빛을 발했다.

우리 서울 미동교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은 서울을 출발한지 약 14시간만에 세계 제 1의 항공도시 뉴유요오크 땅에 첫발을 내딛었다.

호텔에서 여장을 풀 뒤 돌레를 살펴보다 우리 시범단은 빌딩 숲에 둘러싸여 있고 지금까지의 미국 시범에 관한 모든 꿈이 현실로 변해 있는 것을 깨닫고 몇가지 걱정부터 앞섰다.

우선 어린이들이 길고 긴 여행으로 병에 걸리지나 않을까, 또 어린이들이 넓고 낯선 땅에서 길을 잃지나 않을까 그리고 어린이들이 국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범을 마치고

처럼 시범을 잘 해 낼 수 있을까 등등.....

8월 3일, 우리 시범단은 뉴오르를 떠나 남동부에 위치한 플로리다주 최대의 도시인 마이애미에서 마침내 첫 시범을 가졌다. 이날 이곳 시청 부속 강당에서 열린 우리 어린이들의 태권도시범은 마이애미 시장과 한국의 총영사 등 귀빈과 최병우씨 (태권도 사범) 등 교포 100여 명 그리고 미국인 2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졌다.

조그마한 맨발과 맨손이 공중을 날며 두꺼운 송판을 깨뜨리는 등 어린이들의 묘기가 잇달아 펼쳐질 때마다 그곳 사람들은 어른이나 어린이 할것 없이 특유의 몸놀림과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놀라움을 나타내면서 그들의 눈을 의심하는 눈치였다.

태권도가 뿌리를 내린지 얼마 안되는 이곳에서 이날 어린이들의 시범은 앞으로 그곳의 태권도 인구를 넓히는 큰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또 이날 이곳에 모인 우리 교포들도 시범을 통해의 교판 100명보다 더 나은 민간 의교를 해 낸 장한 시범단 어린이들을 찾아와 모두 눈시울을 적시며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었다.

격정스럽던 첫 시범을 성공리에 마친 우리 시범단은 복상길에 같은 플로리다주의 탬파 시에 들러 두번째 시범을 가졌다. 이곳에서의 시범도

대성황을 이루었고 특히 관중 중 미국 어린이들이 깨진 송판에 사인을 해달라고 물러들어 당시의 인기도를 잘 반영해 주었다.

다시 탬파에서 3시간 동안의 비행기 여행 끝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하루를 지낸뒤 주미 한국대사관 김용식 대사를 예방했다.

김 대사는 이 자리에서 어린이들의 눈부신 활약상을 높이 치하하고 앞으로 나머지 도시에서도 우리 교유의 무술인 태권도의 뛰어난 한국 어린이들의 용감한 기상을 깊게 심어주길 바란다며 자상하게 일러 주었다.

이어 우리 시범단은 어린이들의 사회 건문을 높여주기 위해 짜임새 있게 기획된 워싱턴 시가지와 대통령이 산다는 백악관 그리고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 이름난 관광지를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세 번째의 보울티모어 시범을 계획하면서.....

세 번째의 시범은 보울티모어에서 가졌다. 워싱턴에서 버스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보울티모어는 우리나라 부산항구처럼 큰 빌딩만 한 배들이 부두가를 가득 메웠고 우리나라 교포들도 약 7~8천여명이 살고있는 항구 도시다.

이곳에서의 시범은 밤 7시에 있었는데, 어느 지역과는 달리 보울티모어 한인 노인회의 50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환호가 가장 인상깊었다.

이날에도 우리 미동교 태권도 시범단 어린이들의 뛰어난 묘기를 보려는 사람은 이곳에 사는 교포 1천여명을 비롯, 미국인 3천여명을 헤아렸다.

특히 이곳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시범을 끝낸 우리 어린이들에게 달려와 오랫동안 못본 손자를 대하듯 열싸안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머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어찌면 우리 시범단 어린이들은 그곳 사람들이 말하듯 신동일런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들이 불과 10~12살밖에 안되는 어린나이라 몸을 공중으로 날리는가 하면 그 작은 발과 손으로 두께 2.5~3cm의 송판을 간단히 깨뜨리는 등 어른도 해내기 어려운 시범을 펼쳐 보였기 때문이

다.

머우기 우리 시범단 어린이들의 절도 있는 동작은 가는곳마다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지난 8월 7일 버지니아주의 노오펜시에서 가진 네번째의 시범댄 태권도의 기본동작을 기계처럼 정확하게 펼치는 어린 시범단을 본 이곳사람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역시 한국은 올림픽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의 주인나라임이 틀림없음을 우리 어린이들이 유감없이 선보여 준 것이었다.

8일 우리 시범단은 워싱턴에서 다음 시범을 가졌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 그 중에서도 그곳의 수도에서 가지는 시범이라 전날 밤 우리 시범단은 상당히 긴장했다.

워싱턴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이날의 시범은 생각보다 훨씬 성황을 이루었고 시범은 NBC(엔 비이 시이)등 미국 내의 일류 텔레비전 방송에서 실황 중계까지 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활약상이 널리 알려졌다.

그야말로 우리 어린이 시범단이 대한민국의 명예를 펼친 것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워싱턴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태권도가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며 양동자 이준구 차수영 씨등 이름난 태권도 사범이 약 20여 년전부터 국기인 태권도를 퍼뜨린 곳임을 알았다.

우리 시범단이 다음에 갈곳은 중부아메리카. 다시 먼길을 떠나면서 나는 세계의 모든 정치권을 움직인다는 워싱턴 이곳에서 우리의 2세인 어린 시범단이 감히 그조마한 맨발과 맨손으로 그들을 지배(?)했다며 혼자 중얼거렸다.

우리 서울미동교 태권도 시범단의 우렁찬 함성은 미국 중부지방의 신시내티 인디애나폴리스 케노샤 시카고 등지에서 크게 메아리쳤다.

지난 8월 11일 오후오주 남부에 있는 공업도시 신시내티의 시범은 그곳 어린이 대공원안의 야외무대에서 펼쳐졌다. 그곳에서 활약중인 안경원 사범의 주선으로 열린 이날 시범은 3천여 관중들의 대부분이 미국 어린이들이었는데 우리 어린이들의 높은 기량을 보고서는 눈이 동

그래져 환황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날 대공원측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의 시범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어린이들이 무료로 공원안의 오락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식사까지 제공하는 특별대우를 해줘 더없이 즐거운 하루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시범단은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다음 시범을 성공속에 끝내고 위스콘신주의 케노샤에 도착했다.

미국의 5대호중의 하나인 미시간호를 끼고 있는 낭만의 작은 도시 케노샤, 이곳에서 나는 전혀 뜻밖의 일을 맞았다.

이곳에서 모델을 경영하고 있는 조수연 씨라는 옛여자제자를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가 17년 전 전 종로국민학교 5학년 때에 내가 그녀의 담임선생이었다. 그녀는 나를 단번에 알아보고 어머니 선생님 아니셔요 하며 물례의 시선에 아랑곳 없이 나의 품에 안겼다. 나는 뭉클해진 가슴을 겨우 달래며 교육자의 보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새삼 뿌듯한 마음을 가졌다.

12일 가진 케노샤의 사범은 그곳 김광원 사범의 큰 체육관에서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그 체육관 소속의 미국 소년들이 차렸! 경례! 등 우리만의 구령에 맞춰 태권도를 익히고 있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크게 놀랐다.

우리 어린 태권도 2세들에게 높은 긍지를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

시카고의 시내 관광을 마치고 서부지방으로 떠난 것은 13일. 오리건주의 포모를 랜드로 향하는 비행기 속에서 우리 시범단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넓고 기름진 땅을 가진 아메리카 합



중국을 내려다 보면서 놀라움과 부러움으로 가득찬 탄성을 지르고 있었다.

교국을 떠난지 13일, 미국에서의 시범도 어느덧 막을 내리게 되었다. 옛날 미국 광복운동의 본거지로 이름난 오리건주의 포오틀랜드 대학체육관에서 가진 10번째의 시범은 지금까지의 시범중 가장 인기를 모았다.

포오틀랜드 한인회가 광복절 기념 행사로 마련한 이 시범에는 약 2천여 교포들과 미국인 3천 명이 참석, 우리 시범단의 갖가지 묘기에 뜨거운 박수 갈채를 보내 주었다.

시범이 끝나자 우리 시범단의 홍일점 김해영양(5년)과 종원군(4년) 남매는 우리 교유의 민속무용인 탈춤을 선보여 교국을 떠나 이곳에서 살고 있는 외로운 교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그리고 8월 16일 우리 시범단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 체육관에서 그곳의 민정호 사범의 주선으로 11번째의 시범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에 앞서 우리 시범단은 샌프란시스코 시가와 금문해협을 건너 마린반도를 연결하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강철다리인 금문교(길이 2천825m) 등 관광지를 돌아보는 견문을 넓혔다.

18일 우리 시범단은 미국 시범의 마지막 코오스인 로스앤젤레스에 도착, 시범을 주선해준 김용길 사범의 도산 도장에서 가법게 몸을 풀뒤, 오후 로스앤젤레스의 고교 체육관에서 시범을 가

졌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약 3천여 관중은 우리 시범단의 1시간여에 걸친 한 동작 한 동작에 거의 정신을 빼앗긴듯 환호했으며 시범이 끝나도 함성과 박수소리는 그칠 줄 몰랐다.

이렇게 하여 우리 어린이 들은 처음의 열려와 는 달리 12차례의 힘은 시범을 무난히 마무리지 었던 것이다.

정말 우리 어린이들은 장했다. 그리고 우리시범단은 미국의 구석구석을 돌며 의젓한 한국인의 힘을 선보이며 한국의 얼굴을 심었다.

또 우리 시범단은 꿈에 그리던 어린이들의 천국 디즈니랜드를 구경하는 등 학교에서 간접적으로 배웠던 많은 미국의 문화와 풍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익히는 계기를 갖기도 했다.

21일 오후 1시(현지 시간) 드디어 우리시범단은 미국에 올때 탔던 바로 그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우리는 멀어져가는 로스앤젤레스의 마천루를 내려다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시범단을 뒷바라지해 준 많은 교포들과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 했다.

우리 시범단은 귀국길에 일본 토요코오에도 들러 13번째의 시범을 가져 가라테(태권도 비슷 한 일본의 무술)의 높은 컷대를 꺾어놓기도 했다.

지난 8월 26일 오후 우리 시범단 어린이들은 능률한 모습으로 김포공항에 개선, 그림던 부모님의 품에 안겼다.

모든 자유의 시도를 나는 싫어한다.

결국은 각자가 자기 멋대로 요구할 뿐이 아닌가.

다수를 해방하려 하거든 다수에 봉사할 용기를 가져라.

그곳이 어느 만큼 모험적인 것인지를 알고 싶거든 실천해 보라.

각자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남에게는 남의 이익을 인정해 준다면 영원한 평화는 성취될 것이다.

대상의 넓이를 찾는 일을 「배운다」고 하며, 대상의 깊이를 잡아 내는 일을 「발견한다」고 한다.
—피에테—

80년 최우수선수의 영광을 안고

참석자 사회 황춘성(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장)
 선수 이재봉(페더급 최우수 선수)
 김영국(라이트급 최우수 선수)
 김정국(웰터급 최우수 선수)
 장승화(헤비급 최우수 선수)
 이동준(미들급 최우수 선수)
 차상형(라이트 미들급 최우수 선수)

장 소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실
일 시 1980년 11월 29일

사 회 : 우선 1980년도 최우수 선수 선발전에 우승한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태권도가 국제 올림픽 종목으로 승인을 받고 바야흐로 올림픽 광장에서의 영광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이 때 태권도의 최우수 선수가 되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태권인들의 뜻있는 의견과 반성을 필요로 하는 개선책의 일환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기회에 말하고 싶은 건의가 있거나, 경기 운영에 관한 제반 개선점, 선수로서 대회를 대비해 갖는 훈련의 내용 등을 나름대로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선 그동안 갖었던 훈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김정국 : 저는 군인으로서 이번 10월에 있었던 국제 군인태권도 대회를 대비하여 8월 20일부터 태능 선수촌에서 합숙훈련을 했습니다. 2달동안의 훈련에서 느낀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었는데, 무엇보다 군인선수들의 훈련을 친편 일률적인 규칙 생활과 훈련 일정으로 좀 강박감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엄격한 훈련은 오히려 선수들의 자발적인 훈련 의욕을 저하시키고 무의욕의 태도를 갖게 하는데 앞으로 국가 대표 선수들을 훈련시킬 땐 이점을 감안하

여 선수들의 사기와 용기를 북돋우는데 주력, 스스로 훈련에 참가하여 자신의 실력을 닦도록 훈련분위를 만드는게 좋겠습니다. 저는 1978년에 입대하여 그동안 79년도의 세계대회와 80년 아시아대회에 참가했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은 좀더 긴 시간과 철저한 기술 보완 선수 체력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최우수 선수 선발전에 처음으로 우승을 했는데 10월 4일에 아시아대회를 치르고 난후 충분한 컨디션 조절도 못하고 출전한 반면 성과가 좋아서 기쁩니다.

사 회 : 대개의 선수들이 대표 선수 선발전에선 자신의 최대한 갖고 담은 기량을 발휘하는데, 반면 국제대회나 최우수 선수 선발전 같은 때엔 오히려 평소 실력보다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가대표선수라는 중압감과 부담으로 기량보다는 기술 위주로 경기에 임하기 때문인 것 같더군요. 그러나 상대방 선수는 전력을 다해 겨루므로 국가대표 선수급이나 우수선수들은 더욱 자기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장애감을 느끼죠. 그럼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체육대학의 경우는 어떤가요?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는 그 어느 곳보다도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차상형 : 저는 4학년으로서 4년간의 체육대학 생활을 회고할수록 감회가 깊습니다. 무엇이든지



차 상 혁

발산하길 좋아하는 젊은 나이에 하루 하루를 시간표에 짜여진 대로 공부하고 운동하고 잠자고 또 공부하고 한다는 일은 어렵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2학년이 고비인 것 같아요. 학교생활에 대한 알

수 없는 불만이 많아지는 때가 바로 2학년 말기가 아닌가 하는데 그 때만 잘 견디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의 생활은 6시에 기상해서 점호를 받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나면 아침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후에 오전 수업에 들어가고 다시 오후엔 의무적인 훈련을 받죠. 3시간 30분동안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강행되는 이 훈련은 매우 지루하다는 감도 없지 않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식사후에야 비로써 자유시간을 얻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외출하기를 희망합니



김 영 국

다. 기숙사 생활이라는 것은 하려고 들면 착실하게 공부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지만 반면 풀 수 없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해야겠지요.

장승화 : 많은 종목의 체육선수들이 함께 운동하는 분위기에서 느끼는 건데 착실한 수업과 운동의 균형을 지키고 안정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일반대학에도 장학생제도가 마련되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태권도 선수들이 선수로서 충분한 대우를 받으며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죠.

사 회 : 79년도에야 대학부를 일반부에서 분리하는 시도를 했는데 전국의 11개 시도 중 대학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도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1980년도 전국 체전에서야 비로써 대학부 분리의 경기운영 방식을 취했습니다. 대학생 분포도

를 생각할 때 충청남북도와 제주도, 강원도를 우려했었는데 올 대회에 제주도에선 8체급, 충북 10체급, 강원도 8체급이 출전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체급은 다 못 출전했지만 제주도는 대학부에 2위를 차지하여 예상을 뒤엎었고 그래서으로 기술의 평준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입증한 것이죠. 태권도의 경기엔 정신적인 면의 비중이 상당하고 평소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선수들의 훈련 일정은 어땠나요?



김 정 국

바로 훈련에서 오는 권태감을 이기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국 : 저는 해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대령기 생탈대회를 준비하여 갖었던 대천에서의 하루 8시간 훈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엔 선수들이 자자 밖에 나와 운동을 하는데 여름을 이용한 한 달의 합숙훈련은 해군소속의 선수들간의 우애와 협동을 도모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달이 여덟시간이지 모래밭 뛰기 아침의 로드워크 등 기상해서 취침까지 계속 운동을 한다는 건 어려웠습니다. 한달동안



장 승 화

합숙훈련을 하며 모두 체중이 감소되었지요. 그러나 한번도 그런 강행군의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는데도 운동을 한다는 게 지루한 감이 없었습니다. 감독이나 코치 없이 선수들끼리 일체 단결하여 스스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택한 것이고 운동을 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곧 자기 자신의

차상혁 : 태권도 훈련은 짜여진대로 3시간씩 했습니다.

사 회 : 똑같은 시간과 일정의 훈련보다 다른 운동도 병행하여 지구력이나 주력을 기르는 축구나 개인 주특기 운동을 하는게 좋겠죠. 그러

로 훈련에서 오는 권태감을 이기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국 : 저는 해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대령기 생탈대회를 준비하여 갖었던 대천에서의 하루 8시간 훈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엔 선수들이 자자 밖에 나와 운동을 하는데 여름을 이용한 한 달의 합숙훈련은 해군소속의 선수들간의 우애와 협동을 도모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달이 여덟시간이지 모래밭 뛰기 아침의 로드워크 등 기상해서 취침까지 계속 운동을 한다는 건 어려웠습니다. 한달동안

합숙훈련을 하며 모두 체중이 감소되었지요. 그러나 한번도 그런 강행군의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는데도 운동을 한다는 게 지루한 감이 없었습니다. 감독이나 코치 없이 선수들끼리 일체 단결하여 스스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택한 것이고 운동을 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곧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그 때의 훈련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아파 쉬었다가 운동하고 연습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시합에 출전하여 컨디션이 잘 풀리지 않아 고생을 했는데 그 열에도 운동을 하는데 무리를 안느기는 것은 그때의 훈련 덕이 아닌가 합니다.

사 회: 하루 여덟 시간의 훈련이라면 대단한 강행군이었군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출전했던 대회중 가장 인상깊었던 대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국: 시합을 하다보면 선배나 후배가 결승전에서 우승을 놓고 싸워야 하는 때가 있죠. 제경우엔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이종사촌형인 박오성형과의 대전을 인상에 심고 있습니다. 같은 라이트급으로 결승에 올라 오성이형이 양보를 해주었지요.

(모두 웃음)



이 동 준

운동을 했는데 율해에 갇은 3개의 게임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대학 졸업반으로 선발대회, 대통령기쟁탈대회, 최우수 선수권대회에 출전했는데 올 대학내의 소요사태 때문에 제대로 운동할 시간이 없었죠. 앞으로 군대에 가거나 사회에 나가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훈련으로 성심 성의껏 노력하여 뭘 예정입니다.

사 회: 태권도의 테크레이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태권도 선수와 태권도 수련인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내년엔 월드컵입과 제5회 세계대회 등 국제규모의 대회가 있을 예정인데 앞으로 선수들은 어떤 과목없이 시합에 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정국: 외국 선수들과의 대전에선 게임을 풀



이 재 봉

종의 요령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국: 국내에서의 득점포인트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김영국: 이번 대회에서 요르단 선수는 신장이 184cm 었는데, 그런 신장을 갖고 있는 국내 선수와 대전해 보지 않은 선수로선 당연히 상단발휘하기가 힘들고, 또 한다 해도 자세의 불안정이나 득점을 울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 깨끗한 득점과 플레이가 울려지지 못하는 사베도 있었지요.

사 회: 국제대회에 파견할 선수를 선발하는데 그런 모든 점을 감안하여 키와 체력도 중요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느낀점은 없습니까?

이동준: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선수로서 느껴지는 차별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권도의 대외적인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심판의 공정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 회: 제가 보기론 집행부의 편파적인 입장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오히려 지방선수들이 위촉당하지 않을까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압니다. 간혹 불공정한 판정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태권도가 커가는 시련과정이고 차츰 경기인으로서 심판인으로서의 수양을 쌓으면 자연히 사라질 요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제대회에 참석한 선수들이 여기 몇몇 있는데 반성한 점과 느낀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정국: 음식이 안맞아서 컨디션과 체증조절에 힘들었습니다.

이동준 : 외국의 한국식당에서 할 수 없나요?

김영국 : 대표선수는 실력도 문제지만 외국에 나가서의 자신도 자신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을 기억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후나 음식 모두 생소하니까 컨디션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인솔자가 아니라 선수 자신이라는 말이지요. 최선이나 최악이나 어떤 환경에 신경을 쓰면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 회 : 김영국 선수의 말도 옳지요. 인솔하는 데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선수나 인원들은 자신이 한국 태권도의 대표라는 것을 생각하고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처리할 줄 아는 능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능력을 위주로 인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장승화 : 81년도에 있을 세계태권도대회나 월드게임을 대비하여 기초체력에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대부분 기술중점운동이었는데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장과 체력 체격 등이 우월한 외국선수와의 대전을 위해서는 체력위주운동도 중요할거예요.

이재봉 : 저는 대표선수는 한번도 못해 봤지만 이제 외국선수들과는 실력면에서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대표선수 훈련은 철저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지훈련 일정이 짧아 몸의 피곤을 완전히 풀 수가 없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죠.

김정국 : 태능선수촌에서 갖은 합숙훈련에서 느낀점은 음식면에서 운동하기에 좋은 칼로리를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승화 : 잘 먹는다는 것도 중요하죠. 주력을 강화시키고 내구력을 갖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체력훈련, 기술훈련, 영양섭취의 삼위일체라고 해야겠죠.

사 회 : 내년부터는 태권도대표선수들의 장기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능합숙훈련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대표선수를 선발하는 때도 평소 훈련도 평가할 예정입니다. 훈련성과와 게임성적을 종합해서 평가위원을 두어 우수한 선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차삼혁 : 시합을 뛰다보면 하루에 4게임까지 뛰는 경우가 있는데 시정할 수 없을까요.

사 회 : 경기에 참가한 인원수가 많은 경우엔 경기일정에 맞추어야 하는 관계로 그럴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대진표작성방안을 연구하여 선수들에게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승화선수는 중량급에서 아주 이상적인 체격을 갖고 있는데 대표선수 선발 최종전에 서 탈락했었죠.

차삼혁 : 경기에 임하는 정신도 문제일거예요. 장승화선수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 어리다고 할까요. (모두 웃음)

사 회 : 장승화선수는 계속 지켜봐 왔는데 신체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선수는 승부욕이 강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승부를 내야만 하는 경우에 있어선 거의 동물본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상대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랬죠. 마라토너는 그 코스를 다 뛰고난 후엔 간신히 숨릴 수 있는 힘만 남기고 전력을 다해야 하는게 경기에 임하는 정신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좋은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선수 훌륭한 태권도인으로서 태권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길 바라며, 오늘 좌담회를 여기에서 마쳐야겠습니다.

(일동 박수)

태권도의 레크레이션 時代는 이미 지났다.

태권도선수와 수련인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겠다.

각종 대회와 국제적 규모의 대회에 대비하여 선수들은 기초체력과 주력을 강화하고 개인기술에 역점을 두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새로 개편된 집행부 명단

財團法人 國技院 執行部 名單

順番	職 位	姓 名	備 考
1	理事長	金雲龍	GAISF執行委員
2	理 事	奉斗玩	T.B.C論評委員
3	"	金振永	旅團長(陸軍)
4	"	金英俊	서울地檢檢事
5	"	金新正	斗山유리社長
6	"	鄭鎬溶	特戰司令官
7	"	張翼龍	眞露酒造社長
8	"	金永煥	延大教授
9	"	姜元植	副院長代理兼務
10	"	安秉珪	國保委文公委員
11	"	韓昇助	高大教授
12	"	洪文植	洪友産業社長
13	"	李相彬	서울 JC會長
14	"	安賢泰	聯隊長(陸軍)
15	"	李賢雨	旅團長(陸軍)
16	監 事	金鍾植	東大門稅務署長

대한태권도협회 집행부 명단

순번	직 위	성 명	비 고
1	회 장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총재
2	부회장	한봉수	국무총리실기획조정실장
3	"	정호용	육군특전사명관
4	이 사	이현우	수경사 30여단장
5	"	김신정	두산유미사장
6	"	김원원	진도그림회장
7	"	강원식	국기원부원장
8	"	김종수	덕성무역사장
9	"	곽영훈	홍익대교수
10	"	권영찬	전국대교수
11	"	고홍환	연세대교수
12	"	박승복	샘표식물사장
13	"	안원태	수경사연대장
14	감 사	인창근	공인회계사
15	"	마의웅	내외공업부사장

社團法人 世界跆拳道聯盟 執行部 名單

順番	職 位	姓 名	備 考
1	理事長	金雲龍	N.O.F會長
2	理 事	張翼龍	眞露酒造社長
3	"	金永煥	延大教授
4	"	李今洪	事務總長
5	"	閔丙元	東大行政大學院長
6	"	鄭鎬溶	特戰司令官
7	"	金振永	旅團長(陸軍)
8	監 事	金鍾植	東大門稅務署長
9	"	印彰謹	合同會計士

대망의 80년대를 출발하고

기초적인 디딤돌을 마련한

태권도는 한해를 마무리지으며

새로 집행부를 개편했다.

개편된 새 집행부는 새시대

새역사의 흐름에 발맞추어

최선을 다해 태권도 백년대계의

꿈을 실현할 다짐을 굳혔다.

멕시코의 호르헤 디아스 세라노 석유총재

(H.E. Ing Jorge Diaz Serrano)



한국과 멕시코와간의 경제 협력 관계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멕시코의 호르헤 디아스 세라노 석유공사 총재 일행은 지난 10월 21일 국기원을 방문하여 미동국민학교 태권도 시범단과 한국 성인시범단이 펼치는 시범을 관람하고 명예단증과 기념패를 받았다.

이날 국기원에서 명예 4단증과 태권도 도복을 받은 세라노 석유공사 총재는 검은띠를 두른채 태권도 시범을 관람하고 시종 웃음을 띄며 기쁨을 나타냈다. 특히 어린이 시범단의 질서정연한 시범태도와 표기에 박수를 치며 한국의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태권도 무술실력은 대단하고 그



질서정연한 모습과 힘찬 기합소리는 매우 아름답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인 시범은 다만 경탄과 경탄일 뿐이라는 디아스 세라노 멕시코 석유공사 총재는 돌아가면 멕시코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적극 태권도를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美國의 컬럼니스트

잭 앤 더 슨

재미교포 감독인 박우상 감독이 만드는 태권도 영화 “돌아온 용쟁호투” 촬영을 앞두고 미국의 저명한 컬럼니스트인 잭 앤머슨씨가 국기원을 방문했다.

잭 앤머슨씨는 그의 아들 랜디 앤머슨군이 출연하는 한미합작의 태권도 영화의 촬영을 참관

하기 위해 방한하여 태권도의 본산국인 한국의 국기원에 9월 2일 부인과 함께 방문한 것이다.

8남매가 모두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 태권도 가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명예 유단의 단증을 갖고 있는 앤머슨씨는 태권도가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높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국제스포츠연맹 首席執行委員으로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며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인 김 운용 박사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의 몬테카를로에서 개최된 국제스포츠연맹(GAISF) 총회에 참석하여 수석집행위원에 당선됐다.

구미지역의 스포츠인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김 운용총재는 프랑스의 국제테니스연맹회장인 사트리에쉴를 28대 1로 물리치고 당선된 것이다.

후앙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을 비롯한 토마스켈러(Thomas Keller) GAISF 회장등 56개국 GAISF(국제스포츠연맹)회원국 회장단과 IOC 집행부가 참가한 이번 총회는 모스크바(Moscow)올림픽 이후 처음 갖는 세계스포츠의 최고정상회담으로서 Moscow 올림픽 이후의 세계스포츠 문제, 1981년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

지 미국의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제 1회 월드게임(World Game) 문제등이 논의 되었다.

김 운용 총재는 이 회의기간중 사마란치(Samaranche) IOC 위원장을 비롯한 IOC 집행부와 의 단독회견, 그리고 GAISF 의 토마스 켈러(Thomas Keller) 회장과 의 단독회견을 갖고 NOF(비올림픽종목연맹)과 월드게임총회 및 집행위원회를 주관했다.

이번 제14차 국제스포츠연맹총회에 참석한 김 운용총재의 보고에 따르면 김 운용총재는 NOF 회장으로서 NOF 회의를 주재하여 NOF 규약을 통과시키고, 월드게임(World Game)에 대한 안건을 종결시켰으며 Ray Evans 탁구연맹 회장의 도전을 물리치고 4년 임기의 NOF 회장으로 재선임을 받았다.



〈IOC 부위원장인 Giranduo씨가 80년 5월 국기원을 방문했을 때〉

81년 美少年體典 跆拳道 종목 채택

1980년 9월 19일 미국체육회(AAU)는 81년도 미국소년체전에 태권도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키로 했다고 AAU 존헨스(John Hens)회장이 세계태권도연맹의 김운용총재에게 전했다.

태권도인구가 300만이 넘어서고 있는 미국에선 자 대학교와 중학교에 체육과목으로 태권도를 정규과목에 넣어 보급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태권도사범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태권도는 현대스포츠로 자광을 받으며 꽃을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제다 김운용총

재의 체육의교활동과 해외주재사범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진 IOC(국제올림픽위원회) 공식종목승인으로 인해 태권도에 대한 진부했던 모든 인식이 쇠신되었으므로 미소년체전에 태권도종목을 채택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9월초 미국의 각지방을 순회하며 시범을 보이고 돌아온 미동국민학교 시범단들은 80년도 미소년체전 제막식에 초청되어 환영을 받은바 있었다.

여군단 창설 30주년 기념 태권도시범

여군단 창설 30주년 기념식이 1980년 9월 5일 상오 10시 여군단 연병장에서 내외귀빈들을 모신 가운데 거행됐다.

여군단은 조국국방의 큰 뜻으로 창설되어 30년의 역사를 장식해오고 있는데 모두 태권도로 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태권도 정신과 호신술로서의 뛰어난 기술을 익히며 자랑스러운 대한의 여군으로 성장한 것이다.

기념식에서 순백의 하얀 태권도 도복을 착용한 여군들은 격파와 품세를 시범으로 보여 그들의 기량을 과시했고 연약한 여자이지만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뜻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군단은 기념식과 함께 창설 30돌을 더욱 뜻깊게 하기 위해 기념우표와 여군지를 발행하였다.

<社 告>

● 독자 원고 모집 ●

跆拳道誌를 꾸미는데 독자의 原稿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종 류: 論文(태권도 발전을 위한 內容), 수필, 시, 수필기, 콩트, 단편소설
2. 방 법: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단 論文과 단편소설은 매수 제한 없음.)
3. 보내실곳: 134-03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 76번지 국기원총무부 태권도지 편집실

※백지나 도서지방의 학교소식도 기다립니다.

타이티에 번진 태권도 불

화가 고갱의 주옥같은 작품들의 산실인 남태평양의 낙원 타이티 섬에 태권도의 씨를 뿌리는 유일한 한국인이 있다.

지난 9월 초순에 잠깐 한국을 방문하고 5년만에 돌아와본 모국의 발전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는 장보영사범은 현재 타이티섬 파페테시의 파페테 태권도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장보영씨가 파이티에 건너가 영주권을 얻은 것은 74년 봄.

하와이 브라캄영 대학의 선교사 통역겸 태권도 사범으로 있던 중 타이티출신 태권도 제자들의 정식 초청을 받아 건너간 후 현지 태권도의 개척자로 또한 이따금 중간 보급차 기착하는 한국 원양어선들의 길잡이로서 공판없는 외교관 노릇을 하고 있다.

원주민 60%에 백인과 중국계가 약 20%로 그야말로 완전한 타국을 실감케하는 곳이지만 유일한 한국인으로 그동안 타이티에 제자를 양성하여 5개의 도장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수백에 이르는 제자들에게 한국의 고유한 전통

의식과 무술을 전수하며 한국의 향기를 타이티에 번지게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겨뤘도 좋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타이티에는 정식공관이 없고 한국산품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하며 장보영 사범은 태권도로 인해 중산층 이상까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그들의 세계에 자동차, 농기구, 전자제품 등의 이곳 상품을 적극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인과 딸 셋 모두 5명의 일가족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이 현지에 융합되고 있으나 그래도 외로움을 느낄때가 많으면서 연간 약 30여척의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맞을 때가 가장 즐겁다고 했다.

태권도의 기술과 새로운 연구발전된 변모를 그들에게 새롭게 알려주고 싶어하며 앞으로 자주 국내의 태권도 사범들과 연락을 하여 전통적인 태권도를 보급하는데 전심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제5회 미국대학 태권도 대회

미국 아마추어 경기연맹(AAU)은 지난 80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전국 대학태권도 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미국 아마추어경기연맹의 태권도 협회는 또한 미국올림픽위원회 산하연맹으로 약 300만의 수련 인구나 3,000명의 사범(한국인 미국주재 사범 1,000명, 미국인 사범 2,000명)을 가지

고 있으며, 650여개의 4년제 정규대학 250여개의 2년제 대학에서 태권도는 필수 과목이거나 체육과목의 하나로 보급되고 있다.

그리고 미시건(Michigan), 위스콘신(Wisconsin), 뉴욕(New York)등의 자주대학등 많은 대학에서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태권도 동정

80년 10월 5일

제96회 승단심사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600명

80년 10월 6일

캐나다 언론인 Dr. Kenneth A.Pole씨 국기원
방문
미동국민학교 시범단의 태권도시범

80년 10월 12일

제124회 승품심사대회 개최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560명

80년 10월 18일~19일

제 6 회 연맹장기쟁탈 전국 국민학교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선수 : 329명

80년 10월 21일

멕시코 국영석유공사(Pemex)총재 디아즈세라
노(Jorge Diaz Serrano)와 그 일행 7명 국기원
방문
미동국민학교 시범단 성인시범단 태권도 시범

80년 10월 26일

제125회 중앙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670명

80년 10월 31일

CISM 대회에 참가한 15개국 대표임원들 국기
원 방문 김운용회장 예방

80년 11월 3일

국제관광공사에서 초청한 프랑스 사진기자단
촬영시범
미동국교 태권도시범 촬영

80년 11월 6일

나이지리아 경제사절단 국기원 방문
시범과 명예단증, 명예회원증 수여
방문자 : Mr. M.B.G.Dong-Yaro, Mr. Mores
U.Ali, Mr. Dan Suleiman, 최성준, Dr.

Suleiman Sani, Mr. Mú Azu Bin Maiyak
등 26명

80년 11월 9일

제126회 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300명

80년 11월 8일~12일

제61회 전국체전 태권도제임
장 소 : 전북

80년 11월 13일~16일

제 4 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장 소 : 타이페이
참가국 : 12개국

80년 11월 21일

제 2 회 전국여성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선수 : 117명

80년 11월 23일

제127회 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900명

80년 11월 25일~26일

1980년도 최우수선수 선발대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선수 : 237명

80년 12월 4일~13일

제29기 지도자교육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110명

80년 12월 7일

제128회 중앙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500명

80년 12월 14일

제97회 승단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950명

Taekwondo Journal

October 5, 1980

The 96th Dan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Participants: 600 persons

October 6, 1980

Dr. Kenneth A Pole, Speech man of Canada, visit Kukkiwon.

Demonstration of Midong primary school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for him.

October 12, 1980

The 124th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Participants: 560 persons

October 18, 19 1980

The 6th Middle & High School's Taekwondo Championships

Place: Kukkiwon

Participants: 329 persons

October 21, 1980

Dr. Jorge Diaz Serrano, President of Pemex visit at Kukkiwon

Midong primary school Taekwondo demonstration and Korea demonstration and Korea demonstration team demonstrate at Kukkiwon

October 26, 1980

The 125th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Participants: 670 persons

October 31, 1980

The representations of CISM Taekwondo championships visit at Kukkiwon and received a honorary memberships certificate from President Kim Un Yong.

November 3 1980

The team of French photo Journalist visit at Kukkiwon

Demonstration of Midong primary school's Taekwondo demonstratioteam for them.

November 6, 1980

The team Economy Mission of Nyzeria visit at Kukkiwon

Visitors: Mr. M.B.G.Dong-Yaro

Mr. Mores U. Ali

Mr. Dan Suleiman

Mr. Choi Sung Jun

Dr. Suleiman Sani

Mr. Mu Azu Bin Maiyaki etc.

November 9, 1980

The 126th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Participants: 300 persons

November 8~12 1980

The 61st National Athletic Championship. Taekwondo Game

November 13~16 1980

The 4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Place: Taipei

Participate Nation: 12 nations

November 21, 1980

The 2nd National Woman Taekwondo Championships

Place: Kukkiwon

Participants: 117 persons

November 23, 1980

The 127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Participants: 900 persons

November 25~26, 1980

1980's Excellent player championships

Place: Kukkiwon

Participants: 237 persons

December 4~13

The 29th Taekwondo Instructors Refresher Course

Place: Kukkiwon

Participants: 110 persons

뜻으로 본跆拳道

— 하나의理 —

師範李完培

目次

1. 序論
2. 跆拳道의 起源과 傳統性
3. 跆拳道의 基本精神(宗教性)
4. 跆拳道의 世界性(世界속의 跆拳道)
5. 結論

1. 序論

우리 교유의 武道인 跆拳道가 이제는 世界의 武道로서 光榮을 받고 있다. 오늘날 國際舞臺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外交나 政治 못지 않게 重要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참으로 기꺼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碧眼의 外國인들이 우리말 구명에 맞추어 跆拳道정기에 열중하는 것을 볼 때 하나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跆拳道의 명성이 世界的으로 알려지고 跆拳道人口가 급증할수록 이에 대한 우리의 覺悟와 반성이 시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跆拳道의 宗主國이라는 단일한 자부심과 허세만을 부리며 오늘에 만족하다가 가는 과학적인 분석과 研究로 일취월장 뻗어나가는 外國의 跆拳道 實力에 밀려날 우려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事實 跆拳道에 對한 종래의 우리들의 자세는 단일했었고 理論이나 技術의 開發이 뒤따르지 않는 답보상태였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武道라 하더라도 부단한 研究와 努力이 없이 現狀에 머물러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뒤따르는 外國에 뒤로 밀려날 것은 당연한 理致이다. 그리하여 後生可畏라는 옛말처럼 후배들을 두려워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이에 筆者는 韓國 跆拳道界의 오늘을 反省하고 來日을 전망하는 意味에서 이 小論을 쓰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跆拳道에 對한 많은 研究가 쏟아져 나와 명실공히 韓國의 跆拳道가 宗主國으로서의 位置를 공고히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本稿는 跆拳道의 技術的인 則面보다는 主로 跆拳道의 起源과 傳統, 그리고 跆拳道人의 精神 姿勢에 主안점을 두었음을 덧붙여 둔다.

2.跆拳道의 起源과 傳統性

우리의 古代史를 살펴볼 때 三國時代 훨씬 以前 上古時代부터 “태권”(跆拳道)이 있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문헌에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高句麗의 선비(上古대제단)(蘇塗祭壇)의 武士—조의 선인(早衣仙人)선비 등으로 불림), 新羅의 花郎(花郎道, 國仙, 風月主道, 風流教等으로 불림), 또한 崇武 思想의 根本理念으로 지녔던 百濟, 高麗의 手搏, 또는 手搏戲 등이 있고 이것들은 李朝로 이어지는데 時代의 變遷에 따라 그 명칭도 다양했다. 이처럼 “태권”은 어느 特定된 地域에서 홀로 發生된 것이 아니라 原始的인 鬪技로서의 自己防禦 내지 공격법으로 오랜 世月 동안 地域의 特徵을 갖고 傳統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하나의 文化가 꽃을 피우기까지는 장구한 세월속에서 깎이고 패이고 다듬어져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에 傳統의인 特色을 지닌 文化가 形成되듯이 “태권”도 例外는 아닌 것이다. 즉 우리의 傳統武藝인 “태권”의 흐름도 攻防手段이 오늘날과 같이 체계화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 속에서 모진 시련과 變遷과정을 겪으며 形成된 것이다. 그럼 먼저 三國中 “태권”이 가장 융성했던 新羅時代를 中心으로 그 原流를 더듬어 보기로 하자.

當時는 護國宗教였던 佛教가 그 文化의 꽃을 피우고 國家의 精神의인 根本을 이루었던 시기였다. 그 前에 “태권”文化가 佛教의 理念을 바탕으로 크게 번영할 수 있었다는 事實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儒(유), 佛(불), 선(仙)의 三教를 뛰어넘어 深遠한 場을 “태권”이 열어 놓았고 또한 이것은 어느 宗教의 편협한 理念보다도 優位를 차지하는 思想이 곧 “태권”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일찌기 新羅에는 花郎制度가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新羅 時代 法興王元年(AD 514 ~540)에 용모가 수려하고 行實이 단정한 양반가의 소년들을 모아 孝誠과 友愛와 信義를 가르치며 武藝를 研磨시켰다. 이어서 花郎制度가 정

립된 것은 24代 眞興王 37年(AD 676)쯤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하여 나라에서는 이들 花郎들에게 명확한 國家觀을 심어주고 武藝를 研磨시킴으로서 마침내 이들을 나라선비화랑(國仙花郎)이라 칭하고 後에 三國統一을 시키는 人材로 키웠던 것이다.

三國이 鼎立하여 서로 國力を 신장하고 領土를 확장하던 시기에 新羅가 國難을 극복하고 국가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愛國心에 불타는 靑少年을 모아 花郎道를 편성하고 올바른 國家觀과 바람직한 精神姿勢를 불어 넣어 주었다는 事實은 훌륭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들 花郎들은 圓光法師가 제창한 花郎五戒(一名世俗五戒), 즉 事君以忠—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事親以孝—효도로서 부모를 섬기며—交友以信—믿음으로서 친구를 사귀며—臨戰無退—싸움에 입하여 물러가지 않으며—殺生有擇—짐승을 잡되 때와 곳을 가린다—을 그들의 行動강령과 德目으로 삼고 이를 실천했으며 ① 相磨以道義—서로 道나 義로서 이성을 도야하는 지적인 修養이요—② 相悅以歌樂—서로 詩歌와 音樂을 즐겨 정서적 修養을 하며—③ 遊娛山水無遺不至—정신산채를 두루 찾아 다니며 心身을 단련한다—를 生活信條로 또 修養의 細目으로 定하고 智慧와 體力을 길러 중국에는 이들의 끊임없는 情緒涵養과 人格의 도야 그리고 心身의 研磨가 三國을 統一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 民族史에 있어서 國家에 統一이라는 획기적인 大莫를 이루게 되었다. 이들 花郎中에는 斯多舍, 昌昌, 金庚信, 金春秋, 元曉, 義湘 등의 著名한 人物들이 있어서 新羅의 發展에 赫赫한 공훈을 세웠다.

이들이 훌륭한 人物로 成長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두 말할 것도 없이 武藝인 “태권”을 통하여 강인한 體力을 기르고 精神의인 修養을 게을리하지 않은 까닭이다.

그리고 當時佛教文化의 精華인 石屈庵의 金剛力士像이나 守門佛像의 모습은 오늘날의 跆拳道에서 볼 수 있는 “몸세”와 그 姿勢가 같은 것으로 當時의 武藝인 태권이 信仰으로부터 승화된

것이라 보여진다.

이처럼 新羅人의 마음은 상징적으로 하나의 藝術域에까지 다듬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精神이 얼마나 굳세고 高貴했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한나라에 있어서의 傳統이라는 것은 그 민족이 일상생활에서 체득한 價値있는 경험을 토대로 이를 끊임없이 發展 개발, 확대, 심화시킨 結晶體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느 個人的 次元이 아니라 한 민족이하는 혈연 공동체가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喜怒哀樂을 나누면서 얻어진 그들의 共通의인 思考方式과 情緒속에서 합일된 민족의 魂이다. 花郎의 魂도 “태전”의 魂 이와같은 原理속에서 形成된 것이다. 그 當時新羅의 花郎은 愛國愛族과 殺身成仁의 고매한 精神으로 뭉친 團體였으며 이들의 本質은 結局 武藝에서 出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훌륭한 祖上の 精神遺産을 이어받은 우리는 “태전”의 傳統을 계승 發展시켜야 하는 使命을 또한 부여받고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3. 跆拳道의 基本精神(宗教性)

본시 武道는 心身の 조화로운 단련과 外部로부터의 自己防禦手段이어야지 義롭지 않게 힘을 자랑하거나 완력을 휘둘러 남을 지배하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원래 人類는 原始生活에서 점점 여러 氏族과 部族으로 번성하면서 서로의 生活手段이 달라지고 思考方式에도 차이가 생겨 남에 따라 서로가 상대방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기에는 人間은 서로간에 충돌과 마찰을 빚어냄과 同時에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겸양과 아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 무릇 人間은 社會的인 動物이기 때문에 共同生活을 하다보면 不義를 만나게 되고 때로는 他人으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아 알력이 생기게 된다. 이때 不義를 묵인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고도 그대로 작시할 수만은 없다. 마땅히 不條理와 모순된 것들에 용감히 맞서서 싸워야 한다. 그런

데 이들에 맞서서 싸우는 데는 용기가 요구된다. 이 용기가 오직 힘에 의하여 생겨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냉철하게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와 슬기, 不義를 다스릴 수 있는 德과 왕성한 體力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智, 德, 體의 研磨는 人間教育의 필수요건이 되어왔던 것이다. 아무리 뜻이 훌륭해도 뒷받침하는 힘이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體力가 강인해도 德이 不足하고 智慧롭지 못하면 그 힘은 만용에 떨어지고 義롭지않게 이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부단한 修養을 쌓아 自制力을 克己할 수 있는 體力만이 義를 지켜나가는 관건이 될 수 있다.

筆者가 우리 고유의 武道인 태권도에 관심을 갖고 익혀오는 동안에 절실히 느낀 점이 바로 이 精神姿勢의 확립이며 또한 이같은 精神姿勢의 확립을 통하여 生活의 조화를 이루고 人間生活의 원만한 發展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이제 우리는 힘의 「跆拳道」에서 한 걸음 나아가 「精神의 跆拳道」를 向해邁進해야 하는 데 거기에는 부단한 修養과 精進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무릇 참되게 살다간 옛 道人の 말씀에 聖人은 몸에는 배움을 입고 가슴에는 玉을 품고 있다. “是以聖人被禍懷玉”는 말이 있다.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머무르면 하나의 道의 境地에서 跆拳道를 익혀 훌륭한 精神의 고매한 人間性을 길러야 한다. 또 맑고 높은 자리에 서서 꾸준한 精進과 修道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저 석가세존도 六年이란 기나긴 세월을 修道의 길에서 무엇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을까? 오직 하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다. 하나의 힘차고 맑은 소리를 얻었던 것이다. 존경하는 사람이 없고 공경할 사람이 없는 生活은 괴롭다……라고. 그리고 깊이 깨닫고 하나의 의롭고 어려운 乞食沙門의 길로 精進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도 修養이 옳바로 쌓아지고 부단한 精進이 계속될 때 우리 跆拳道人은 고매한 人品과 人格을 지닌 참다운 人格人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理論만의 空念佛이 아니라 跆拳道人의 궁극적인 행동 좌표인 것이며 철두철미 이같은 思想을 眞實되게 지키고 실천하여 여하히 움직이지 아니할 때 이것은 하나의 信念이며 또한 커다란 소리와 함께 빛이發하는 또한 하나의 宗教와 같아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좌우명으로 승화시켜 나아가는 기본 자세가 절대로 必要하다고 다같이 느껴야 할 것이다.

4. 跆拳道의 世界性

작금의 世界는 各國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속에서 同一한 文化圈을 形成해 나가고 있는 추세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한 一體感은 어느 部分 보다도 뚜렷한 現狀이라고 보여진다. 言語가 다르고 生活感情이 다르고 피부가 서로 다르지만 스포츠를 통한 경쟁이 벌어질 때에는 모두가 한결같이 가슴을 활짝 열고 치열하게 힘과 技를 겨루게 된다. 여기에는 어떠한 장벽도 存在하지 않는다. 오직 뜨거운 승부의 世界가 펼쳐질 뿐이다. 그러니 일단 경기가 끝나면 勝者는 敗者를 위로하고 敗者는 勝者를 칭송하는 호뜻한 “人間味”(Humanity)의 世界가 스포츠다. 그런데 우리의 跆拳道가 世界속에 뿌리를 내리고 날로 번성하고 있다는 事實은 대단히 고무적인 現狀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모든 動作에 따르는 구령이 韓國語로 使用된다는點과 練武線도 宇宙의 攝理를 따른 東洋의 易學에 의하여 表示되고 있는點은 한없는 자랑이요 긍지가 아닐 수 없다. 즉 八卦와 太極型, 高麗(연무進行線을 “土”로 表示), 金剛(연무進行線은 “山”으로 表示), 太白(연무進行線은 “工”으로 表示)…… 一如(연무進行線은 “卍”으로 表示)等等 모든 動作과 形에 관한 表示가 主體性을 잃지 않고 우리의 옛것을 그대로 유지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社會 各층에서 하나의 자자 증상과 같이 일어나고 있는 “主體性” 찾기와 「民族文化再認諸」運動이 우리의 跆拳道界에서는 벌써부터 始

行되고 있는 셈이니 이또한 국위선양과 민족정기의 具顯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어도 좋을 것이다. 지금 이 時間에도 世界 도처에서는 韓國師範들의 지도하에 우렁찬 구령과 함께 韓國의 跆拳道가 그 기세를 떨치고 있다.

이는 실로 호뜻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기회에 말해두고 싶은 것은 海外에 파견되고 있는 師範에게 個人的 영달과 금전의 次元을 떠나서 그 영광을 祖國에 돌리고 跆拳道를 通하여 우리의 民族魂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스포츠를 通한 국위선양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얼마전까지만해도 日本의 “가라테”가 世界的으로 盛行하여 韓國의 跆拳道가 “가라테”의 亞流처럼 인식되는 잘못도 있었는데 海外에 파견되어있는 師範들은 이들의 그릇된 인식을 과감히 시정시키고 韓國武道の 體質을 널리 선양하는 사명감을 더욱 굳게 가졌다. 따라서 跆拳道의 명성이 世界的으로 떨쳐질수록 그에 대한 우리의 자오도 새로워져야겠다. 그리고 道跆拳道 宗主國으로서의 姿勢도 가다듬어야 될 줄 안다. 그리하여 海外 파견師範의 資質向上과 새로운 跆拳道의 技術開發과 원활한 競技運營等 미진한 구석은 이를 보완하고 고질적인 병폐도 가차없이 도려내는 과감한 시책을 펴야할 것이다. 多幸히 國技院의 發足으로 잠시나마 무진서와 혼돈속에서 헤메이던 우리의 跆拳道가 본피도에 올라섰으니 이제부터는 순조로운 運行만이 남은 셈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자오로 道服의 옷깃을 가다듬고 참된 마음으로 言行이 一致하는 武道人의 眞貌를 유감없이 발휘해야 한다.

5. 結 論

韓國의 固有武道人 跆拳道는 이제 世界的 스포츠로서 군림하게 되었다. 이같은 事實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긍지와 보람을 느낄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安一한 態度로서 現實에 만족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것은 제반 身體的인 條件이 有利하고 科學的인 方法으로 研究에 열을

울리고 있는 外國의 跆拳道實力에 宗主國인 韓國이 뒤로 밀려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大悟覺醒하여 新羅時代의 花郎들이 殺身報國과 滅私奉公의 거룩한 뜻을 武藝에 담아 心身을 단련하고 國家民族을 위하린 傳統을 계승하여 跆拳道를 통한 智德體의 研磨에 心血을 다하는 한편 명실공히 跆拳道의 宗主國으로서 면모를 일신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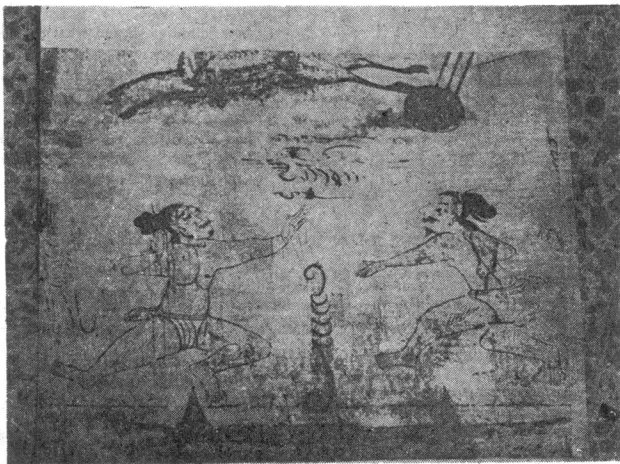
또한 주먹구구식의 跆拳道 보급이나 수련보다는 좀더 科學的으로 분석하고 研究하는 진지한 態度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야말로 20世紀의 神話를 만들 기회를 갖은 民族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삶은 어렵고 괴롭지만 努力할 수 있는 機會를 갖는 것이 또한 기쁨을 담고 있는 삶이다. 우리 世代야말로 이 일을 이룩할 榮光을 갖춘 世代가 아닌가.

—代身, 參考文獻

- 李瑄根 花郎道研究(1954) 東國文化社
申采浩 朝鮮上古史(1925) 서울: 종로서관
元曉全集 東國大學編(1965~7)
李錫浩 佳五天巫國傳(1970) 乙酉文化社
李能和 朝鮮佛教通史(1966) 慶熙出版社

- 禹貞相, 金瑛泰 韓國佛教史 進修堂
韓國思想史 古代編
韓國思想研究編(1967) 一潮閣
李基白 韓國史新論(1967) 一潮閣
趙明基 新羅佛教의 理念과 歷史(1963) 新太陽
金東華 新羅時代의 佛教思想(1963~4) 亞細亞
研究 12~13號
金永基 新羅文化와 慶州古蹟(1953) 慶趙古蹟
保存會
孫大錫 新羅史話(1952) 善一社
趙潤濟 韓國詩歌史綱(1960) 乙酉文化社
佛教의 護國思想和 花郎精神(1959)
釋德庵(現代佛教史)
風流精神과 新羅文化(1960) 金凡夫(韓國思想3號)
新羅佛教의 特異性(1959) 金東華(韓國思想1, 2號)
新羅의 世俗五戒과 國家觀(1960) 安啓賢
(韓國思想 3號)
元曉의 生涯와 思想(1968) 李箕永(政經研究 41)
元曉의 人物과 思想(1969) 李英茂
(建國大學術誌第10輯)
元曉의 生涯와 思想 李鍾益(韓國思想 3·)
元曉大師論(1963) 徐景洙(世代 號)
民族의 世界觀의 探究(元曉의 和靜思想을 中心으로
(1969) 金鍾雨(釜山大學論文集第 輯)
元曉의 現在著書에 對하여(1960) 趙明基
(大國思想 3號)
元曉著書에 보이는 引用的 整理(1955)
安啓賢(東國史學 輯)
元曉의 彌陀淨土往生思想 上, 下(1961~3)
安啓賢(歷史學報 16~2輯)



跆拳道 빗차기의 分析

金

亨

(정주대학교수)

<目 次>

I. 序 論

II. 빗차기의 根據

III. 빗차기의 力學的 分析

1. 빗차기 動作의 分析
2. 빗차기 動作의 用語 分析
3. 빗차기 動作의 基本原理

IV. 빗차기 動作의 股關節作用과 筋肉作用

1. 股關節의 作用
2. 筋肉作用

V. 빗차기姿勢와 神經作用

1. 末梢神經 姿勢反射
2. 中樞神經 姿勢反射

VI. 結論 및 提言

Dynamic Analysis of BALCHAKI' in Tae Kwon Do

<Abstract>

Tae Kwon Do which is now known to world-wide is traditionally originated in Korea and nowadays it becomes popular sport among people. After the 4th World Tae Kwon Do Championship in 1979, I felt that it is urgently needed to unify the terms in 'Bitchaki' and to provide the theoretical and scientific basis. I analyzed the dynamic movements in the act of 'Bitchaki' in Tae Kwon Do.

In my thesis, I analyzed and defined them as the following.

1. how joints move and what is the principle of Bitchaki'
2. how hip joints move and how its muscle move in the act of 'Bitchaki'
3. the forms in 'Bitchaki,
4. how the mother nerves and its peripheral nerves operate and how central nerves and its postural reflexion operate.

1. 序 言

跆拳道는 韓國의 고유 武道로서 對人對戰 武道로 이어왔다. 또한 현대의 스포츠화하여 國內은 물론, 國外까지 상당한 발전을 하여 第4回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를 치를만큼 성장 발달하였다.

跆拳道란 손과 발, 그리고 全身을 움직여 몸의 偉力과 技術을 연결시키는 운동이다.

그렇게 하므로써 신체를 强健하게 하고, 心身 修練을 통해 인격을 도야하며, 技術 단련을 통해 他人의 공격으로부터 自己의 몸을 방어하는 운동이다.¹⁾ 또 跆拳道는 뛰어오르고, 차고, 지르고, 막고 하는 운동 경기로서 인체의 關節을 무기로 基本動作을 단련하고 相對方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맨손과 맨발로 自身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護身の 武術로서 스포츠화한 것으로 精神的 修養과 闘志를 기르고, 强者에게 剛하고 弱者에게 柔하여, 공손과 겸양 또는 예의를 지키며, 나아가서는 勇猛과 忍耐로써 心身の 德을 담은 行動哲學으로서의 現代스포츠이다.²⁾

이 基本動作으로 막고, 지르고, 치고, 발차기 등이 있는데 발차기는 다른 競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技術이며, 주먹지르기보다 힘이 強하며 技術 또한 다양하다.

발차기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 빗차기를 물學的인 分析을 통하여 原理의 理解와 應用으로써 고도의 技術을 體得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빗차기 動作을 분석하여 選手의 効率的인 指導 方法은 물론 理論的 기초가 되게 하고자 한다.

II. 빗차기의 根據

어느 運動이든지 그 근원이나 發生動機가 있게 마련이다. 競技의 技術에는 時間이 흐름에 따라 潮流가 있는 것이다. 마치 流行처럼 그 시대나 對相에 따라 勝因을 잡을 수 있는 적절한 技術이 생기게 마련이다.

빗차기의 發生 動機를 살펴보면 全國體育大會 中心으로 第47回부터 第49回까지 國內에 각종 跆拳道 大會에서는 뒤차기나, 뒤후리기 技術이 많이 사용되어 뒤차기, 뒤후리기 競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第50回 全國體育典에는 이에 對應하는 技術으로써 상대가 뒤차기나, 뒤후리기를 하는 동안, 측 등을 보이면서 발이 相對의 얼굴이나 가슴까지 오기 전에 열차기나 밀어차기로 밀어 넘어트리거나, 열차기로 등이나 옆구리를 공격하는 技術

이 생겨서 뒤차기나 뒤후리기 공격이 줄어들면서 발을 든 상태에서 競技를 하는 공격자세가 발생하였다.

그 후 이러한 발 들고 공격하는 방법이 이어져서 第52回 全國體育典에 즈음해서는 발을 들고 공격해 들어오는 선수의 첫점은 아랫배를 공격하는 방법의 하나로 빗차기가 발생된 것으로 思料된다.

빗차기가 매 경기마다 全國的인 추세로 성행 발전되다가 1977년 9월 規則改正으로 아랫배가 得點 部位에 제외되기 전까지 全盛期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初步者나 熟練者를 막론하고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다양하게 성장 발전하였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빗차기는 차기 중에서 비교적 쉽고 특점력이 크다는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報告한 바 있다.

그런데 跆拳道 技術 중에는 競技에서나 修練生의 훈련에는 사용하지만 理論的 體系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서 빗차기는 빗겨차 올리기의 준말로서³⁾ 得點源으로서 훈련과 경기에 많이 사용되는데 研究者는 빗차기를 다음과 같이 定義하였다.

빗차기의 概念 定立⁴⁾

1. 빗차기는 앞차기와 돌려차기의 中間차기로서 땅에서 目標地點을 向해 45°角 정도로 빗겨 올려차는 것이다.

이때 支持된 발은 正面에서 보아 90°角이 넘지 않아야 하며, 股關節은 펴지면서 半側面 姿勢가 된다.

그러나 얼굴이나 그 以上の 높이 차는 경우에는 關節, 특히 股關節의 柔軟度가 작으면 地面

1) 문교부, 태권도(서울: 서울신문사 출판국, 1976) p.11.

2) 대한 태권도 협회, 태권도 수첩, (서울: 대한태권도 협회 사무국, 1977), p.11.

3) 故鄭甲淳, <면담> 前 忠清北道 跆拳道協會長 (1976年 仲秋節 前日)

4) 金亨默, 跆拳道 빗차기가 勝負에 미치는 影響 (慶熙大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7), p.38.

의 支撐된 발이 正面에서 보아 90°角을 넘게 된다.

2. 차는 발은 앞축 발등, 발목으로 加擊한다.

3. 빗차기를 하는 발은 차기의 高低에 따라 다르지만 90~120° 정도 回轉한다.

이것이 本 研究者의 見解이지만 이에 대한 좀 더 깊은 研究를 필요로 할 것이다.

Ⅲ. 빗차기의 力學的 分析

跆拳道에 있어서 차기를 주먹치기보다 重視하는데 이것은 競技에서 得點數도 많고, 攻擊技術도 다양하기 때문인 것이다.

발차기에 있어서 重要的 要因 중의 하나는 몸의 힘을 발에 집중시켜서 상대, 즉 目標點에 최대의 힘으로 가격하는 것이다.



〈그림 Ⅲ-1〉



〈그림 Ⅲ-2〉



〈그림 Ⅲ-3〉



〈그림 Ⅲ-4〉

이것은 동작의 靜의 자세로 구분한 것이며, 다음의 구분은 心理的인 면이나 기본적 行動面에서 구분하여 보면,

- (1) 意圖: 攻擊하여 相對에게 加擊하므로써 勝因을 잡기 위하여 발로 찬다.
- (2) 姿勢: 半側面 姿勢
- (3) 技術의 區分: 相對나 物體에 衝擊을 준다.
- (4) 加擊部位: 발목이나 발 등
- (5) 主攻擊目標: 얼굴, 목, 가슴, 배
- (6) 準備姿勢: 앞서기 姿勢(狀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 (7) 運動의 型: 身體 各部의 中心은 回轉運動
重心은 直線運動

이러한 動作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運動 원리의 분석과 理論의 정립이 불가피한 것이다.

빗차기는 回轉運動과 直線運動 並進運動으로 이루어 지는데 허리부분, 股關節, 膝關節, 足關節 등은 回轉運動을 한다.

그러면서 重心 Center of gravity은 直線運動을 하므로써 前進하면서 차기가 이루어지므로 並進運動이 된다.

1. 빗차기 動作의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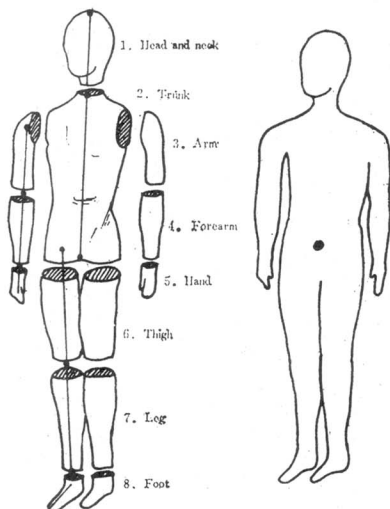
빗차기 動作을 分類한다면,

- (1) 앞서기
- (2) 앞으로 발들기 姿勢
- (3) 앞으로 발들고 물들기 姿勢(허리와 股關節 물기)
- (4) 빗차차 올리기 姿勢
로 나눌 수 있다.

全身은 並進運動

〈그림 Ⅲ-5〉와 같이 인체의 중심은 關節을 軸으로 회전을 하므로써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리는 股關節 Hip Joint를 중심으로, 정강이는 膝關節 Knee joint를 중심으로 발은 足關節을 중심으로 회전하므로써 빗차기 동작이 이루어지며, 모든 인체의 移動運動이 일어난다.

인체의 重心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높이가 50~60%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빗차기나 각종 발차기 동작을 행할 때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곡선으로 이어지지만 區分動作의 重心을



〈그림 Ⅱ-5〉 人體의 여덟 〈그림 Ⅱ-6〉 人體의 重心
세로 中心

(Modified from J.N. Barham, Mechanical Kinesiology St. Louis, The C.V. Mosby Co. 1978)

연결하면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나가거나 직선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地面에 支持된 발은 앞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이 된다.

2. 빗치기 動作의 用語分析

運動 位置의 용어, 즉 공간적인 면과 關節의 운동 상태, 또는 신체 各部의 운동용어의 종류를 考察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왼다리는 支持하고 오른다리로 차는 것으로 가정하여 예를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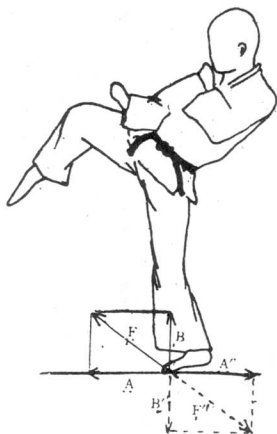
- (1) 머리와 목: 左에서 右로 回轉, 矢도록 Sagittal Plan⁵⁾을 向함.
- (2) 몸통: 右에서 左로 回轉, 약간 伸展
- (3) 다리 右: 回旋 Circumduction, 屈曲 flexion, 伸展 extension, Inward Rotation⁶⁾
左: 屈曲, 伸展,

- (4) 무릎 右: 내전 adduction, 伸展, 回轉, Rotation
左: 回轉, 약간 屈曲
- (5) 팔과 손 右: 외측 lateral, 원위 distal, 伸展
左: 외측, 원위, 伸展
- (6) 발 右: 伸展, 내반, 저축굴곡 Plantar flexion
左: 외반, 고상 Elevation

3. 빗치기 動作의 基本原理

運動의 기본원리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Newton의 運動法則을 보면 첫째: 慣性의 法則 law of inertia, 둘째: 加速度의 法則 law of acceleration, 셋째: 作用과 反作用의 法則 law of action and reaction⁷⁾을 들 수 있다.

Newton의 運動法則은 운동의 基本原理를 나타내는데, Newton學說의 출현 배경을 보면 筋肉에서 힘의 발현을 실험 조사하여 기계적으로 활동하는 動物을 研究한 G.A. Borelli(1608~



〈그림 Ⅱ-7〉

5) J.N. Barham, Mechanical Kingiogyol(St. Louis. The C.V. Mosby Company, 1978), p.69.

※ 正面에서 보아 좌우 대칭을 이루는 人體의 전후리 지나는 수직면.

6) Ibid., p.79.

7) 李經世, 키니어얼러기 (서울: 同和文化社, 1980) pp.21~23.

1678)를 일컬어 “生體力學 Biomechanic의 아버지”라고 부른다.⁸⁾

그는 筋肉의 기능을 통한 數理的법칙과, 뼈에 의한 지체의 理論的 체계를 세웠고 새가 나르고 물고기가 물장구를 치는 것에 대한 심장과 내부 구조에 關한 研究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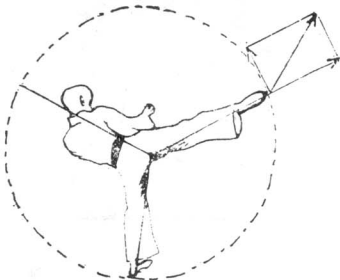
이를 이어 外部의 힘으로부터 筋肉의 힘에 事實的 關係에서 오는 것과 단지 그것에 가까운 것일지라도 Isaac Newton(1642~1727)에 의해 그의 운동의 법칙을 명확한 體系下에 공식으로 나타내었다.⁹⁾

以上の 세 가지 法則과 筋肉의 作用과 回轉運動 등에 관한 원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1) 慣性의 法則에 따라 문제는 그것에 힘이 작용하기 전에는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¹⁰⁾

이 발은 다리에 힘을 작용시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인데 빗차기를 하는 다리에는 重力, 空氣의 저항, 地面에 대한 摩擦力 등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慣性力보다 큰 힘이 작용되지 않으면 빗차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慢性의 法則에 따라 빗차기를 실시하는 발은 신체적 한계 거리에 가기전에 방향을 바꾸



〈그림 Ⅲ-8〉

모래 위에서 차기를 설치할 때 F 가 F' 보다 게 나타나므로 단단한 地面보다 힘이 더들게 되는 것이다.

(5) 加速度法則에 의하면 물체에 속도는 힘이 부과될 때에 한해서만 변할 수 있는데 이때 생긴 加速度(感速度)는 가해진 힘에 비례하고 힘의 방향과 같게 된다.¹²⁾

거나 정지시키려면 힘이 필요하다. 빗차기를 하는 자체의 힘이나 충격, 外力 등이 있어야만 정지되거나 방향이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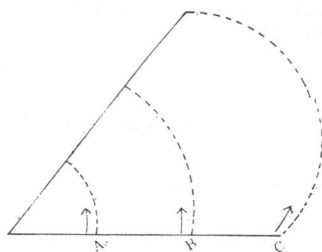
(3) 慣性의 法則에 따라 빗차기리 실시한 다리는 어떤 外力이 작용할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한계 거리에 도달하면 拮抗筋에 의해 정지된다.

(4) 作用, 反作用 法則에 의하면 작용하는 힘과 그에 反하여 작용하는 힘은 같다는 法則인데¹¹⁾ 빗차기를 하는 경우 地面에 支持된 발은 支持된 상태에서 다른 발로 차기를 행할 때 힘의 방향은 각각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의해 平衡變換法則에 따라 변화가 결정되는데, 이것은 〈그림 Ⅲ-7〉과 같이 작용된다. $A=A'$, $B=B'$, $F=F'$ 같다는 等式이 성립된다.

作用力은 앞으로 향하는 힘과 위로 향하는 힘이 작용해서 F 와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反作用力은 밑으로 향하는 힘과 뒤로 향하는 힘이 작용해서 F' 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차기를 하는데 支持하는 발에 작용하는 反作用力은 지면이 단단할 수록 作用力에 가깝게 된다.



〈그림 Ⅲ-9〉

8) J.M. Cooper, Biomechanic (Chicago, Illinois: The Athletic Institute, 1970), p.4.

9) Ibid., p.4.

10) 李經世, 前掲書, p.8.

11) 李經世, 前掲書, p.22.

12) 李經世, 前掲書, p.22.

빗차기를 행할 때 제자리에서 행하는 것보다 같은 방향으로 몇 발짝 빠르게 전진하는 힘과 빗차기의 힘이 합하여 加速度法則에 따라 강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公式로 나타내면 $V_1=at^{13)}$ (V_1 :최종속도, a :加速度, t :時間) 前術한 <그림 Ⅲ-7> 평행사변형의 A 는 더 커지므로 F 역시 커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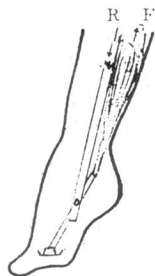
(6) 筋收縮의 力學的 원리를 보면 筋의 길이가 길게 되고, 伸張狀態로서 收縮, 즉 이 경우는 筋에 작용하는 外力이 일을 하는데 筋은 機械要素로서의 스프링과 같은 작용을 한다. 이러한 短縮性과 伸張性의 收縮을 等張性 收縮 *isotonic contraction*이라고 한다.

等張性이란 원래 張力, 또는 일정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으나 筋의 길이가 不變인 等尺性 수축에 대하여 筋의 길이가 변하는 경우를 等張性 수축이라고 한다.¹⁴⁾

그러므로 빗차기의 경우 차는 다리와 움직이는 신체의 筋活動은 等張性收縮으로 봐야한다.

물론 상대를 가격하는 순간이나, 地面에 支持된 발이 정지 狀態가 되어 等尺性收縮도 되겠지만 신체가 활동하는 상태에서 時間을 짧지 않는 한은 等張性收縮이 될 것이다.

(7) 目標 蹴점의 원리를 보면¹⁵⁾ 차기를 할 때 직접 目標物을 똑똑히 쳐다보는 것 같은 蹴점, 즉 시선을 목표에 둔다는 원리이다.



<그림 Ⅲ-10>

(8) 全體集結의 원리를 보면¹⁶⁾ 빗차기를 행할때 다리, 즉 신체의 일부힘만으로 가격하는 것이 아니라 全身을 함께 움직여 최대의 힘을 낸다는 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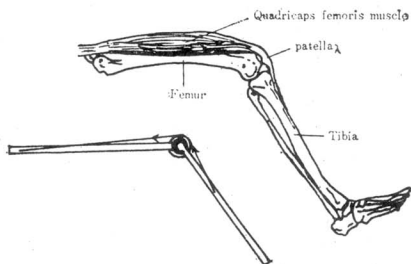
(9) 回轉力 利用에 관한 원리
힘이 물체를 회

전시키기 위해 쓰여질 때 회전력으로서의 작용의 대소를 나타내고 있는 힘의 能率이라고 한다.¹⁷⁾

<그림 Ⅲ-8>과 같이 차기는 여러 關節 특히 股關節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회전하는 데는 遠心力과 같은 크기의 求心力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빗차기나 차기는 이 遠心力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관계를 公式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 = \frac{mU^2}{a} \quad (a: \text{회전반경}, F: \text{원심력}, m: \text{질량}, U: \text{접선속도})$$



<그림 Ⅲ-11>

(10) 速度에 관한 원리를 보면 힘이란 그 힘이 가해진 물체의 질량과 單位時間에 運動速度의 함수이다.¹⁹⁾ 이것을 公式로 나타낸다면

$$F = ma \text{ 또는 } F = \frac{mv}{t} \quad (F: \text{힘}, v: \text{속도}, t: \text{힘이 작용하는 시간}, m: \text{힘이 작용된 물체의 질량}, a: \text{가속도})$$

로 나타낼 수 있는데, 만일 質量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 한다면 물체의 加速度에 따라서 運動量이 변할 것이다.

<그림 Ⅲ-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축을 股關節

13) 李經世(역) J.W. Bunn, 코우치의 科學의 原理 (서울: 同和文化社, 1977), p.44.

14) 李敏炯(번) 運動力學 (서울: 盤雪出版社, 1980) pp.223~226.

15) 문교부, 前掲書, p.65.

16) 문교부, 前掲書, p.65.

17) 문교부, 前掲書, p.62.

18) 문교부, 前掲書, p.56.

19) 李經世, 前掲書, p.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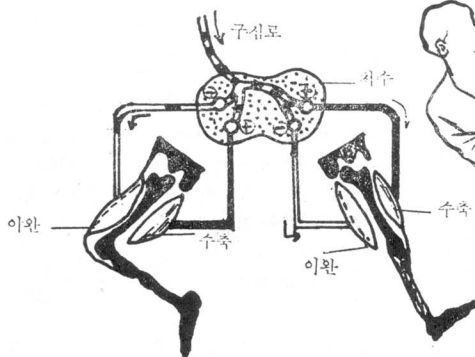
물을 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빗차기를 행할 때 도르레 작용이 일어난다.

IV. 빗차기 動作의 股關節 作用과 筋肉作用

1. 股關節의 作用

股關節은 구관절형 *ball-and-socket type*으로 대퇴골과 腿盤의 連接에 의하여 형성되는데 여기에서는 屈曲, 伸展, 外轉, 內轉, 內側回轉, 外側回轉과 回旋運動이 허용되므로²⁴⁾ 인체의 關節 大腿가 수평 또는 수직으로 屈曲과 伸展를 할 수 있다는 것은 人間의 機械의 運動의 神秘性이라 하겠다.



〈그림 V-1〉

될 것이며 강한 打力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2. 筋肉作用

빗차기를 하는 大腿骨에서 인체에서 40여cm나 되는 가장 길고 강한 筋肉도 이곳에 부착되어 있으며, 20여개의 筋肉이 筋群을 이루어 Hip에 산재되어 신체활동을 돕는다.

빗차기를 하는 다리는 回旋, 屈曲, 伸展運動을 한다는 것을 前述한 바 있다. 이 運動을 하는 筋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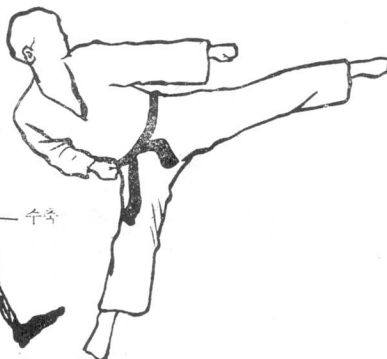
(1) 屈曲運動 筋肉은 대요근, 대퇴근막장근, 단내전근, 치골근, 박근, 퇴지근, 박근, 봉공근

또 股關節은 스포츠 外傷面에서 볼 때 脫臼나 脫骨, 靱帶擴張 등의 상처가 생기면 인체의 어느 關節보다 오랜 치료와 안정기간을 요하므로 사전 사후의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물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빗차기 또는 차기 動作은 關節의 유연성이 重視되는데 그 중에서도 股關節의 유연성은 더욱 중요시 된다고 하겠다.

일부에서는 股關節의 유연성을 측정해서 跆拳道의 成就度의 一部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跆拳道人의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股關節의 유연도가 적으면 빗차기로 얼굴 차기 등을 행할 때 支持하는 발이 90°角을 넘게



〈그림 V-2〉

등 9개의 筋肉이다.²⁵⁾

(2) 伸展運動 筋肉을 보면 대둔근, 반막양근, 대퇴이두근, 반건양근, 중둔근, 소둔근 등의 6개 筋肉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²⁵⁾ 跆拳道의 옆차기 점프, 앞차기 등에 필요하며, 이 伸屈筋이 빗차기에 강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

(3) 回旋運動은 屈曲, 伸屈, 外轉, 內轉의 一連의 運動인데 屈曲과 伸屈筋은 상기와 같고 外轉運動筋은 중둔근, 쌍자근, 봉공근이며 跆拳道

24) 李經世, 前揭書, p.253.

25) 李經世, 前揭書, pp.253~257.

에서는 이 筋活動이 열차기에 주요하며, 內轉運動筋은 단내전근, 대내전근, 박근, 대둔근, 치골근²⁷⁾ 등의 복합적 活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V. 빗차기 姿勢와 神經作用

1. 末梢神經 姿勢反射

인체의 각 組織, 器官, 系統은 각각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外界에 대하여 생명을 보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의 각 부분은 서로 협조하여 작용할 필요가 있다. 이 협조를 맡은 것은 Hormone과 神經系이다.²⁸⁾ 그 중 神經系는 운동이나 자세에 많은 관련을 갖고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흔히 운동을 잘하고 못함을 神經의 발달과 미발달을 논하기도 한다. 神經은 그 機能이 중심이 되는 中樞神經系와 신체부를 연락하는 末梢神經系로 이루어지고 있다.²⁹⁾ 反射弓에 속하는 부분, 즉, 感覺器, 知覺神經細胞, 作用器를 末梢神經이라고 한다.³⁰⁾

이러한 神經系 활동에는 伸筋과 屈筋이 있는데 屈筋에 자극이 전달되어 수축을 할 때는 동시에 反對의 伸筋에도 자극이 전달되어 몸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現象을 相互制御作用이라고 하는데 태권도에서도 발차기를 할 때나 상체의 가격으로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수도 있지만 이 末梢神經作用으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³¹⁾

2. 中樞神經 姿勢反射

前述한 바와 같이 腦는 中樞神經의 중심이 되는데 大腦, 間腦, 小腦, 延髓, 腦橋, 中腦로 나눌 수 있다.³²⁾

이 중에서 中腦는 橋와 小腦의 윗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며 背側을 中腦蓋라고 하는데 이곳에 上下의 2쌍의 문덕이 있는데 위의 것을 上丘 아랫 것을 下丘라고 한다.³³⁾ 前者는 視賞에 관한 反射中樞이고, 또한 中腦에는 姿勢反射와 눈의 運動反射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 姿勢反射는

운동에 관계가 있으며, 머리와 몸통의 경사 혹은 비틀림에 의하여 四肢軀幹의 筋의 긴장이 변하면 자세가 변화하는 反應을 말하는 것이다.

목을 왼쪽으로 돌리면 왼팔과 왼다리는 퍼지고 오른팔과 다리는 굽어지기 쉽다. 이러한 現象을 交叉伸展反射라고도 한다.³⁴⁾

除腦固縮, 즉 上丘와 下丘 사이 中樞를 절단하면 四肢를 伸展시켜도 전신이 경직되는 특이한 反應이 생겨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中腦가 발달되지 못한 고양이는 姿勢反射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空中 落下시키면 위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跆拳道 熟練者보다 初學者에게 앞으로 발을리기를 행하게 하면 支持하는 다리의 膝關節과 같은 쪽의 肘關節은 굽고 반대 쪽의 팔 다리는 퍼지게 나타나지만 熟練者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운동을 하면 中樞神經, 즉 腦가 발달하는데 Hatai는 운동을 하므로써 4%의 腦重量 증가를 보였고, Donaldron은 2~3%의 증가를 한다는 것³⁵⁾을 동물 실험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그러므로 운동을 실시하므로 뇌의 重量도 늘고 기술도 증가하는 것이다.

VI. 結論 및 提言

跆拳道 빗차기 동작을 科學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力學的으로 기술을 분석 고찰하였다.

選手의 빗차기는 공격의 기본인 찬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회전운동, 三進運動을 통한 신체

26) 李恒世, 前掲書, pp.258~259.

27) 李恒世, 前掲書, pp.259~262.

28) 李揆文, 體育解剖生理學(서울: 誠學社, 1976), p.260.

29) 李揆文, 上掲書 p.260.

30) 鄭星台, 前掲書, pp.75~76.

31) 鄭星台, 前掲書, pp.75~76.

32) 鄭星台, 前掲書, pp.74~75.

33) 李揆文, 前掲書, p.263.

34) 朴結斌, 體育解剖生理(서울: 螢雪出版社 1979), p.111.

35) 鄭星臺, 前掲書, p.97.

운동의 동작을 자유롭게 경쾌하게 조절하여 최대의 속도와 힘 正確性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차기 동작을 力學的인 원리에 따라 안정된 자세를 갖추어 股關節의 屈曲이 차기에 큰 역할을 하므로 유연성을 길러 신체적 균형과 정확한 打力을 발휘하기 위하여 체력의 단련과 더불어 神經의 통제에 이르기까지 科學的인 훈련을 쌓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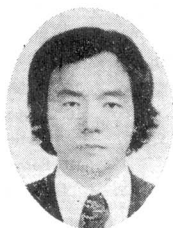
〈參 考 文 獻〉

1. 金亨默, 跆拳道 밋차기가 勝負에 미치는 影響, 서울: 慶熙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7.
2. 金桂洪, 跆拳道, 力學的 諸論, 跆拳道 第31,32합본, 1979.
3. 문교부, 태권도, 서울: 서울신문사 출판국, 1976.
4. 大韓跆拳道協會, 태권도 교본, 서울: 태권도협회, 1975.
5. 大韓跆拳道協會, 태권도 수첩, 서울: 대한태권도

- 협회, 1977.
6. 朴喆斌, 體育解剖生理, 서울: 螢雪出版社, 1979.
7. 朴熙成, '跆拳道 競技力이 體格 體力 技術에 미치는 決定要因 分析' 跆拳道 第33號, 1980.
8. 李緝世(역) J.W. Bunn코우치의 科學의 原理, 서울: 同和文化社, 1977.
9. 李緝世, 키니시얼러지, 서울: 同和文化社, 1980.
10. 李揆文, 體育解剖生理學, 서울: 敎學社, 1976.
11. 李敏炯(譯) 運動力學, 서울: 螢雪出版社, 1980.
12. 鄭望台, 體育의 生理學的 基礎, 서울: 同和文化社 1978.
13. 崔榮鎰, 격파에 대한 力學的 해설, 태권도 제30호 1979.
14. 崔永直, 正統 跆拳道 教範, 서울: 不二出版社, 1971.
15. 편집부편 태권도 教本, 서울: 고려문화사, 1979.
16. Cooper, J.M. Biomechanic, Chicago, Illinois: The Athletic Institute, 1970.
17. Barham, J.W. Mechanical Kinesionogy, St. Louis: The C.V. Mosby Company, 1978.



社會體育面에서 본 跆拳道 價値性에 關한 調查研究



李 煥 求

(空港中學校 體育教師)

目 次

I. 序 論

- A. 研究의 目的
- B. 理論의 背景

II. 研究의 方法

- A. 研究의 計劃
- B. 研究對象標本抽出
- C. 質問紙 作成 및 配付
- D. 資料處理

III. 結果 및 考察

- A. 修練生의 背景調査
- B. 設問紙의 分析 및 考察

IV. 要約 및 結論

- A. 要 約
- B. 結 論

參考文獻

附 錄

- A. 調査質問紙

I. 序 論

A. 研究의 目的

近代 人間生活은 점차로 기계화되어 身體活動이 감소되고 있으며 아울러 정신적인 不安, 焦燥, 그밖의 자연公害 및 人間的 公害로 人間 身體의 健康은 차츰 퇴보하고 있음은 世界 各國이 當面하고 있는 큰 課題의 하나라고 보아진다.

人間의 生活은 본능적 동작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自然환경간의 相互作用으로 人類社會와 더불어 오랜 세월 속에 변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개체의 건강과 幸福을 추구하는 人間의 本能 속에서 건강을 다지는 身體活動인 sports는 人間生活과 永久的인 관계를 가지고 存在한다고 느낀다.

近來에 이르러 우리는 體力이 國力으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 체위 향상에 역점을 두고 sports가 生活化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때 어느 운동보다 全人의 人間形成의 지름길이 되고 있는 운동은 跆拳道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의 歷史와 함께 발전해온 跆拳道는 政府의 國民體力 향상 政策과 體育人口 저변확대에 발맞추어 전국에 보급된후 國技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跆拳道는 우리나라가 宗主國으로써 世界의 sports가 되고 國技로 채택된 만큼 國家의 當面 과제로 生活化를 위해서 必히 권장되고 더욱더 研究해야 할 時期가 왔다고 단언하고 싶다¹⁾.

우리는 民族固有의 전통적인 武術이 얼마나

1) 金寶龍, "跆拳道 宗主國은 할일이 많다" 『태권도 제26호(1978. 8)』, p.14.

고귀하고 重要하다는 것을 史的 高증을 통하여 筆者 自身이 절감하고 앞으로 跆拳道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여 本研究를 하였다.

B. 理論的 背景

1. 跆拳道 發達의 史的 背景

創世期 이래 人類은 손과 발 그리고 두뇌의 活動을 통해 文化와 歷史를 창조해 왔다. 跆拳道 또한 다른 문화 유산과 함께 발전하여 온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²⁾ 또한 跆拳道가 맹수 및 다른 부족의 침범에 자체 방어수단으로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원시적인 형태를 벗어난 피상적인 근거를 떠나서 고증키로 해본다.

手搏, 托肩, 手壁, 空手, 花手, 跆拳道 등 다양하게 불리워진 우리나라 태권도는 1600년전 고구려, 백제, 신라의 三國時代로부터 행하여온 民族固有의 武藝이다³⁾.

跆拳道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학설이 있으나 1935년 고구려 유적 조사단이 고구려의 國都 九都城인 통구(滿洲 通化省 輯安縣通溝) 地方을 답사하여 이때 角抵塚의 壁面 玄室 천장에서 두 壯士가 태권도를 경기하는 격투기 자세를 발견한 것이 가장 확실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⁴⁾.

이러한 참 모습은 신라 화랑도의 武藝修練을 통한 三國史記에도 나타나 있으며 三國遺事의 같은 문헌에 手搏, 手擘, 托肩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⁵⁾.

國技 跆拳道의 발전은 8.15해방, 6.25동란 등으로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성공하는 듯 했으나 다시 침체된후 태권도 통합의 계기가 된것은 5.16혁명이다.

1961년 文敎部의 類似團體 統合方針에 따라 跆拳道라는 이름의 統合協會가 탄생 1962년 大韓體育會에 가입되었다⁶⁾

한편 全國體典 種目으로 채택된 것도 이때이다. 이후 태권도는 정식 태권도 협회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렀다.

2. 跆拳道의 海外 普及 現況

오늘날 우리나라 태권도가 世界的으로 크게 普及되고 있음은 1973년 5월 世界跆拳道 聯盟이 設立된 후 本部를 서울에 설치하여 더욱 급진적 발전을 거듭해 된 것이다. 더우기 100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가진 세계태권도 연맹은 1975년 10월 「몬트리올」 國際競技聯盟(GAISF) 총회에 정식 가입과 국제군인체육대회(CISM)의 26번째 公式競技 種目으로 채택되고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만도 4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국제 경기 연맹이 非올림픽 종목의 一部를 망라하여 세계대회를 1981년 미국의 「산타클라라」에서, 제 2회 대회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이것이 바로 「월드게임」으로 올림픽 다음가는 세계 권위있는 대회이다⁷⁾.

전세계 태권도 인의 숙원이었던 올림픽 種目 참가 문제가 1980년 7월 1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 8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sports로, 세계跆拳道 연맹은 IOC가 공인하는 국제 연맹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⁸⁾.

현재 세계 태권도 연맹은 5개 대륙연맹과 100개국의 회원국, 1천만명의 跆拳道 人口를 가지고 있는 방대한 sports인 것이다.

II. 研究方法

A. 研究計劃

1. 資料蒐集: 1980. 2. 3~3. 5

- 김영희, "우리나라 跆拳道의 증인", 日刊스포츠 (1973년 5월 25일), p.4.
- 羅鉤成, 韓國體育史,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p.50.
- 文敎部, 태권도, (서울, 서울신문사출판국, 1976), p.23.
- 李鍾佑, 태권도교본, (서울: 대한태권도협회출판부, 1972), p.17.
- 대한태권도협회, TAE KWON DO, A Korean Martial Art-a National sports, 1972, p.30.
- 李鍾佑, "프리월드게임 태권도대회를 끝내고" 태권도, 제26호(1978. 8), p.20.
- 金雲龍, "韓國, 스포츠 외교의 成果", 東亞日報社(1980년 8월 8일), p.8.

2. 調査對象의 標本抽出: 1980. 3. 6~3. 25
3. 質問紙 作成 및 檢討: 1980. 3. 26~4. 15
4. 質問紙 配付 및 回收: 19. 0. 4. 16~5. 23
5. 資料分類: 1980. 5. 24~6. 20
6. 資料處理: 1980. 6. 21~7. 28
7. 論文作成: 1980. 7. 29~8. 24

B. 研究對象의 標本抽出

1980년 2월 현재 서울시내 행정구역내에 산포되어 있는 태권도장 중에서 행정구 13개 지역을 모집단으로 총화한 다음 각층내에서 2개 도장 총 26개 도장을 표집한 다음 표집된 1개 도장에서 中·高生 15명 일반인(대학생포함) 10명 계 25명을 1개도장의 抽出 人員으로 하고 26개 도장에서 총 650명(中·高生 390명, 일반인 260명)을 단순 임의의 抽出法(simple random Sampling)에 의거 抽出하였다.

C. 質問紙 作成 및 配付

1. 質問紙의 構成

本研究는 文獻研究와 質問紙法을 使用하였으며 質問紙에서 얻으려는 자료는 서울시내 태권도장 수련생과 사범들의 자문을 받아 跆拳道의 價値觀을 把握하는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

서 질문지의 배경조사 4개 문항 本 調査 8個문항 計 12개 문항으로 작성하였으며 1個 문항당 平均 4~5個 응답항목을 두어 1個만을 택하여 답하는 택일형을 취하였으며 本 調査 質問紙는 附錄에 첨부하였음.

2. 本 調査實施

1980년 4월 16일~5월 23일까지 筆者 自身이 抽出된 地域道場을 직접 방문하여 師範들에게 사전협조와 취지를 밝힌후 修練生들에게 充分한 설명후 배부하여 우편으로 회송토록 하였던바 配付 質問紙는 총 650매중 621매(中·高生 379매 一般人 242매)가 회수됨으로써 全體 회수율은 95.6%를 보였다.

D. 資料處理

회수한 질문지 가운데 擇一型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나 응답 項目으로써 처리할 수 없는 설문지 21매(中·高生 19매, 一般人 2매)를 제외하고 나머지 600매(中·高生 360매, 一般人 240매)만을 최종 응답 처리로 간주하고 처리하였다. 따라서 통계자료의 산출방법은 자문항별 빈도를 백분율로 산출하여 %계산은 소숫점 이하 첫자리까지 산출하였다.

Ⅲ. 結果 및 考察

A. 修練生의 背景調査

〈表 1〉

現在의 級數

구분	급수	무	급	8~4 급	3~1 급	段	計
中	高 (%)	64(17.8)		109(30.3)	90(25.0)	97(26.9)	360(100)
一	般 (%)	35(14.6)		64(26.7)	62(25.8)	79(32.9)	240(100)
計	(%)	99(16.5)		173(28.8)	152(25.3)	176(29.3)	600(100)

수련생들은 배경 조사로서 급수별로는 총 600명중 「段」이 176명(29.3)으로 전체의 수위이며, 「8~4급」이 173명으로 28.8% 「3~1급」이 152명 25.3%, 「무급」이 99명 16.5% 등의 순위로 3급 이전에 탈락되는 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兩群別에 있어 학생에 비하여 一般이 급수는 떨어지고 단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학생들은 학업 때문에 계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머물고 있음이 아닌가 여겨진다.

修練經歷別로는 총 600명중 「1년~2년」이 20

〈表 2〉

修 練 經 歷

구 분	경 력	6개월미만	7개월~1년	1년~2년	2년 이상	계
中 · 高 (%)		61(16.9)	127(35.3)	115(31.9)	57(15.8)	360(100)
一 般 (%)		42(17.5)	57(23.8)	86(35.8)	55(22.9)	240(100)
計 (%)		103(17.2)	184(30.7)	201(33.5)	112(18.7)	600(100)

명으로(33.5%) 전체이 수위이며, 「7개월~1년」 184명이 30.7%, 「2년 이상」이 112명 18.7%, 「6개월미만」이 103명 17.2% 등의 순위로 대부분 1년 정도의 수련기간을 가지고 있다. 兩群別

에서 학생에 비하여 일반인이 수련경력이 많은 것은 재입관이 많고, 〈表 1〉과 같이 學生은 진학 때문에 수련도중 그만두는 데 큰원인이 아닌가 여겨진다.

〈表 3〉

體 型

區 分	體 型	정 상 형	세 장 형	비 만 형	計
中 · 高 (%)		198(55.0)	136(37.8)	26(7.2)	360(100)
一 般 (%)		151(62.9)	67(27.9)	22(9.2)	240(100)
計 (%)		349(58.2)	203(33.8)	48(8.0)	600(100)

體型別로는 총 600명중 「정상형」이 349명(58.2%)으로 전체의 수위이며, 「세장형」이 203명, 33.8%, 「비만형」이 48명 8.0% 등의 順位로 대부분 정상형 체형을 가진 修練生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兩群別로는 共히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만형은 一般이 더 많으며 세장형은 中高生이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學生에 比하여 社會人이 운동 부족으로 오는데에서 비만형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태권도를 극히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보아진다.

B. 設問紙의 分析 및 考察

〈表 4〉

修 練 의 動 機

구 분	동 기	신체적 결함	호 기 심	타인의 권유	스포츠의 생활화	기 타	計
中 · 高 (%)		71(19.7)	97(26.9)	104(28.9)	68(18.9)	20(5.6)	360(100)
一 般 (%)		76(31.7)	28(11.7)	14(5.8)	105(43.8)	17(7.1)	420(100)
計 (%)		147(24.5)	125(20.8)	118(19.7)	173(28.8)	37(6.2)	600(100)

修練의 動機別로는 총 600명중 「스포츠의 생활화」가 173명(28.8%)으로 全體의 수위이며, 「신체적 결함」이 147명으로 24.5%, 「호기심」이 125명으로 20.8% 등의 순위로 비교적 스포츠의 생활화와 신체적 결함이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兩群別로는 學生은 타인의 권유, 호기심 등의 순위에 비하여 一般은 스포츠의 생활화, 신체적 결함 등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학생에 비하여 一般이 건강生活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修練의 目的別로는 총 600명중 「신체보호」가

〈表 5〉

修 練 의 目 的

구 분	목 적	전 강 증 진	인 격 도야	신 체 보 호	여 가 선 용	기 타	計
中 · 高 (%)		118(32.8)	20(5.6)	169(46.9)	32(8.9)	21(5.8)	360(100)
一 般 (%)		105(43.8)	19(7.9)	74(30.8)	33(13.8)	9(3.8)	240(100)
計 (%)		223(37.2)	39(6.5)	243(40.5)	65(10.8)	30(5.0)	600(100)

243名(40.5%)으로 全體의 수위이며, 「건강증진」이 223名으로 37.2%, 「여가선용」이 65명 10.8% 「인격도야」가 39명 6.5%등의 순위로 신체보호,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兩群別로는 學生은 신체보호 一般은 건강증진에 비중을 두고 있어 現代生活에 건강증진을 위

하여 권장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修練의 目標別로는 「취미로 만족」이 180名(30.0%)으로 전체의 수위며, 「해외파견」이 153명 25.5%, 「국가대표 선수」가 142명으로 23.7%등의 순위로 대부분 취미와 해외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6〉

修練의 目標

구분	목표	해외파견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취미로만족	기타	計
中·高(%)		88(24.4)	122(33.9)	39(10.8)	83(23.1)	28(7.8)	360(100)
一般(%)		65(27.1)	20(8.3)	46(19.2)	97(40.4)	12(5.0)	240(100)
計(%)		153(25.5)	142(23.7)	85(14.2)	180(30.0)	40(6.7)	600(100)

〈表 7〉

身體의 效果

구분	신체적효과	체력증진	식욕증진	지구력보강	자세교정	기타	計
中·高(%)		231(64.2)	17(4.7)	62(17.2)	35(9.7)	15(4.2)	360(100)
一般(%)		148(61.7)	50(20.8)	27(11.3)	10(4.2)	5(2.1)	240(100)
計(%)		379(63.2)	67(11.2)	89(14.8)	45(7.5)	20(3.3)	600(100)

신체적 효과별로는 총600명중 「체력 증진」이 379名(63.2%)으로 全體의 수위이며, 「지구력보강」이 89명으로 14.8%, 「식욕 증진」이 67名으로 11.2%등의 순위로 대부분 체력 증강에 효과를 보고있음을 나타냈다.

兩群別로는 學生은 체력증진, 지구력보강, 자세교정이 많으며 一般은 체력 증진과 식욕 증진 등에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체력증진을 제외한 兩群이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精神的 效果別로는 총600명중 「투지력」이 222명

(37.0%)으로 전체의 수위이며, 「인내력」이 190명으로 31.7%, 「협동심」이 99명 16.5%등의 순위로 대부분 투지와 인내력을 기르는데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兩群別로는 일반에 비하여 학생은 투지력, 인내력, 협동심등에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일반은 인내력, 투지력, 정신순화 등의 비율로 나타내고 있다.

社會的 效果別로는 총600명중 「人格形成」이 216名(36.0%)으로 전체의 수위이며, 「시대적

〈表 8〉

精神의 效果

구분	정신적효과	정신순화	투지력	인내력	협동심	정서발달	計
中·高(%)		20(5.6)	158(43.9)	89(24.7)	71(19.7)	22(6.1)	360(100)
一般(%)		33(13.8)	64(26.7)	101(42.1)	28(11.7)	14(5.8)	240(100)
計(%)		53(8.8)	222(37.0)	190(31.7)	99(16.5)	36(6.0)	600(100)

〈表 9〉

社會的 效果

구분	사회적효과	인격형성	청소년선도책	시대적정신무장	개인생활의융화	기타	計
中·高(%)		140(38.9)	38(10.6)	127(35.3)	32(8.9)	23(6.4)	360(100)
一般(%)		76(31.7)	57(23.8)	69(28.8)	31(12.9)	7(2.9)	240(100)
計(%)		216(36.0)	95(15.8)	196(32.7)	63(10.5)	30(5.0)	600(100)

〈表 10〉

指導者の指導方法

구분	지도방법	열성적인지도	영리목적	엄한지도	흥미위주	計
中	高 (%)	187(51.9)	10(2.8)	134(37.2)	29(8.1)	360(100)
一	般 (%)	194(80.8)	6(2.5)	27(11.2)	13(5.4)	240(100)
計	(%)	381(63.5)	16(2.7)	161(26.8)	42(7.0)	600(100)

〈表 11〉

跆拳道의改善策은 무엇입니까?

구분	개선책	기술의과학화	시합의공정성	지도자의자질향상	도장의시설확충	計
中	高 (%)	79(21.9)	122(33.9)	92(25.6)	67(18.6)	360(100)
一	般 (%)	48(20.0)	53(22.1)	71(29.6)	68(28.3)	240(100)
計	(%)	127(21.2)	175(29.2)	163(27.2)	135(22.5)	600(100)

정신무장이 196명으로 32.7%, 「청소년 선도책이 95명으로 15.8% 등의 순위로 대부분 인격형성이나 시대적 정신 무장에 치우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兩群別로 보면 學生은 인격형성, 시대적 정신 무장에 비율이 높으며 一般은 學生에 비하여 청소년 선도책에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시대적 정신 무장으로서 태권도 수련을 통한 사회적 효과는 국민의 안보 총화 국력총화에 따른 國家觀이 투철함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태권도를 통한 가치관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효과 별로는 다른 운동보다 더욱 더 시대가 요구하는 운동이며, 克己 권장 되어야 할 운동임을 <表7>, <表8>, <表9>에서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指導者の指導方法別로는 총600명중 「열성적인 지도」가 381명(63.5%)으로 전체의 수위이며 「엄한 지도」가 161명으로 26.8%, 「흥미위주」가 42명으로 7.0% 등의 순위로 비교적 열성적인 지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兩群別로는 一般에 비하여 엄한지도, 영리목적은 學生이 높은 비율이며 열성적인 지도는 學生에 비하여 一般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비교적 지도자의 종합적인 능력이나 지도 평가는 學生들에게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운영상, 지도상에 관한 새로운 방법이 모색 되어야 하겠다.

개선책別로는 총600명중 「시합의 공정성」이

175명(29.2%)으로 전체의 수위이며, 「지도자 자질 향상」 163명으로 27.2%, 「도장의 시설 확충」이 135명으로 22.5%, 등의 순위로 시합의 공정성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다.

兩群別로는 學生은 시합의 공정성에 큰 비중을, 一般은 지도자의 자질향상, 시설 확충에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表6>과 같이 修練의目標과 관련시켜 改善策을 지적 하였다.

앞으로 태권도 협회 실무진 들의 어떠한 대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Ⅳ. 要約 및 結論

A. 要約

지금까지 태권도의 價値性에 관한 實態, 分析結果, 項目別 要約은 다음과 같다.

1. 背景 調査

a. 修練生の 現在 급수는 「단」, 「8~4급」, 「3~1급」, 「무급」등의 順位이며, 修練經歷別로는 「1년~2년」, 「7개월~1년」, 「2년 이상」, 「6개월 미만」등의 順位로 나타났다.

b. 修練生の 體型別로는 「정상형」, 「세장형」, 「비만형」의 順位로 태권도를 修練하므로 正常型의 體型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2. 本 調査

a. 修練의 動機는 「sports의 생활화」, 「신체적 결함」, 「호기심」, 「타인의 권유」, 「기타」, 등의 順位이며, 目的은 「신체보호」, 「건강증진」, 「어

가선용], 「인력도야」, 「기타」 등의 順位를 나타냈다.

b. 修練의 目標은 「취미를만족」, 「해외파견」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기타」의 順位이며, 身體의 効果는 「체력증진」, 「지구력보강」, 「식욕증진」, 「자세교정」, 「기타」 등의 順位를 나타냈다.

c. 精神의 效果는 「투지력」, 「인내력」, 「협동심」, 「정신순화」, 「정서발달」 등의 순위이며, 사회적 效果는 「인격형성」, 「시대적정신무장」, 「청소년선도책」, 「개인생활의 융화」, 「기타」 등의 順位를 나타냈다.

d. 指導者의 指導方法은 「열성적인지도」, 「엄한지도」, 「흥미위주」, 「영리목적」 등의 순위이며, 「태권도의 개선책은 「시합의 공정성」, 「지도자의 자질향상」, 「도장의 시설 확충」, 「기술의 과학화」 등의 順位를 나타냈다.

B. 結 論

上記 要約을 통하여 태권도의 價値性에 관한 結論을 다음과 같이 얻었다.

1. 修練生의 實態는 1~2년의 경력으로 有段者가 많고 體型은 正常型이 많음을 나타냈다.

2. 修練의 動機가 sports의 生活化 및 身體의 健全에 集中되는 한편 目的은 신체보호와 건강증진에 치우친 傾向을 나타냈다.

3. 修練의 目標은 취미와 해외파견, 국가대표 선수로의 성장 등에 比重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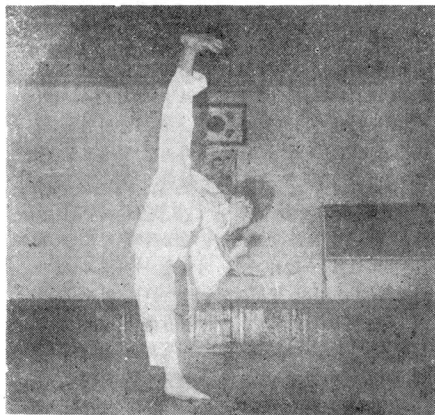
4. 修練의 效果는 체력증진, 지구력보강, 투지력, 인내력, 인격형성, 시대적 정신 무장 등으로 나타냈다.

5. 指導者의 指導 方法은 열성적이고 엄한 편임을 나타냈다.

6. 跆拳道의 改善策은 시합의 공정성과 지도자의 자질향상, 시설의 확충 등을 바라고 있어 이상의 문제점을 改善 檢討 研究함이 國技로써의 品位와 全國民의 體力 增進에 萬全을 기하게 될 것이라 料된다.

參考文獻

1. 金雲龍, 「跆拳道 宗主國은 할 일이 많다」, 跆拳道, 제26회, 1978. 8, p.14.
2. 金영희, 「우리나라 태권도증인」, 日刊스포츠, 1973, 5.25, p.4.
3. 羅絢成, 韓國體育史,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4. 대한태권도협회, TAE KWON DO, A Korean Martial Art-a National sports, 1972.
5. 文敎部, 태권도, 서울:서울신문사출판, 1976.
6. 朴喆斌, 申吉洙, 體體育成의 科學的 基礎, 서울:敎學社, 1977.
7. 尹南植, 體育측정검사의 實地, 서울:대광인쇄공사, 1976.
8. 李鍾佑, 태권도교본, 서울:대한태권도협회출판부, 1972.
9. 趙明烈, 體育社會學, 서울:螢雪出版社, 1976.
10. 崔仁範, 體育管理, 서울受賞界社, 1976.
11. 韓國大學體育敎材研究會, 體育評價의 方法, 서울:學校體育社, 1966.
12. 韓國大學體育敎材研究會, 體育原理, 서울:學校體育社, 1966.



태권도품세의 일반적 분석



金 柱 洪
(東洋工業專門大學教授 授課)

1) 人體 活用과 動作의 限界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과 활동에는 힘의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것은 태권도 경기에서 3회전을 시합하려면 라운드마다 휴식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권투에서도 올라운드를 뛰는 선수를 지켜볼 때 작자가 지니고 있는 체력과 콘디션에 따라 베스트 플레이를 기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올라운드를 뛸 수 있는 체력의 바탕위에 작자의 작전의 묘를 살리는 것이 힘의 분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흔히 타이틀전에서 게임 초반부터 무리한 체력을 소모하여 중반과 후반에 가서 경기를 지속 못하고 결국 힘의 한계를 초과하여 패인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같은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취지라고 하겠다. 그리고 인체활용에는 선수 자자의 적성에 따라 체력 분류별로 동작의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되돌려 말하자면 사람의 연령 체중 신체구조의 특수성에 따라 동작능력의 한계가 평가된다. 그리고 양다리가 정상적인 사람과 절름발이의 양자의 보행동작(步行動作)을 비교 측정할 때 100m를 뛸다고 가정하면 불구자는 체력소모가 많아지고 기록에 있어서 목적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볼 때 사람들의 신체구조상의 결합이·결구몸의 균형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힘의 한계도 가속(加重加速)으로 소모된다는 논리(論

理)가 된다. 덧붙여 말하자면 태권도 경기에 있어서 불안정한 자세는 힘의 분배(分配)를 가속(加重)시킨다는 원리(原理)가 된다. 이와같은 현상은 연령적(年令的)인 대조에서도 덧붙을 수 있다 만일 4세의 어린아이의 양다리가 건전한데 비해 20세의 남자는 한쪽다리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두 사람의 100m 뛰기 경주는 연령에서 오는 체력의 이유(理由)로 20세의 청년이 불구요건(不具要件)에 불구하고 100m 경주에서 어린이를 재치고 앞서 갈 것이 명약하다. 이와같은 이유로 인체활용과 동작의 한계에는 필(必)히 신체적인 요건이 조직과 연령의 대조가 상대적 비례(比例)로 뒤따른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전술한 설명(說明)으로 무학상(武學上)의 역학적 분석론상(分析論上)의 어떤 점을 해명하고 있느냐 하는 예(例)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公式)을 태권도 유단자(有段者)를 중심으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보기》

연 령	연속동작한계	호 흡
3세 ~ 7세	30초	초 급
8세 ~ 12세	1분	"
13세 ~ 16세	1분 30초	"
17세 ~ 21세	2분	"
22세 ~ 25세	3분	"
26세 ~ 29세	2분 30초	"

30세~35세	2분	〃
36세~39세	1분 40초	〃
40세~45세	1분 20초	초 급
46세~50세	1분	〃
51세~55세	30초	〃
56세~60세	15초	〃

상기의 보기에서 인간의 체력이 가장 힘찬 고비가 무술 수련상의 경험으로는 22세~25세가 가장 절정기임을 알 수 있다. 연속 요령으로는 손 발을 계속 움직이면서 도장을 한바퀴 돌아가며 치고 때리고 차는 순서로 쉬지않고 실기를 연습하는 실험을 하는데 있었다. 그것으로서 시간(時限)의 정점(頂點)을 호흡이 아주 급박하여 더 이상 동작능력이 당초의 속도(速度)와 강도에서 아주 뒤떨어져 무가치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같은 실험은 인간의 人體 活動과 그 동작의 한계는 연령과 체형(體型)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므로 무술 역학분석상(力學分析上) 이러한 점을 감안(勘案)하여 본지 제34호에 게재한 역학적 분석(力學的分析)에 따라 그 용도는 달라져 또 그 진행에 따라 힘의 한계가 정해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폼세(型)의 동작 순거(順擧)

무술상의 동작을 논(論)하고자 할 때 먼저 무술의 기반(基盤)이 되고 있는 폼세(型)의 동작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형(型)이란 무술 문화를 전승(傳承)시키는 형태(形態)임을 밝혀둔다. 현재 우리 태권도계에서는 형(型)을 “폼세”라고 하는데 폼세는 태권도의 기본적(基本的)인 순서대로 행하는 동작이라고 하여도 과언(過言)은 아니다. “폼세”를 설명하기전에 “폼세”의 근본적인 것부터 말하고자 한다. “폼세”동작 중 형(型)은 거동(舉動)과 동작으로 엮여져 있다. 거동이라하면 동작의 세분체(細分體)이고 동작이라함은 거동의 연결체(連結體)이다. 다시 쉽게 말해서 한 거동거동이 모여 동작이 되고 동작의 연결에서 하나의 형(型)을 형성(形成)하고 있다 즉 ‘아래막기’를 타고 한걸음 전진하여 하복부

를 찔렀다는 과정이라면 (아래막기가 한 거동이 되고 두번째 하복부를 주먹으로 찌른것이 두번째 거동이 된다. 이와같은 막고 찌른 두 거동이 바로 한 동작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 동작이라 말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경과(經過) 결과(結果)가 있어야 한다. 적(敵)의 공격을 막고 동시(同時)에 반격(反擊)하여 주먹으로 찌른것이 바로 결과이다. 고로 이것이 동작임으로 이제부터 기술하는 거동(舉動)과 동작의 낱말의 뜻을 이해(理解)하기 바란다. 다시 원론(原論)에 들어가서 형(型) 즉 ‘폼세’는 먼저 말한 거동과 동작의 연결로 이어진 체(體)이다. 또 이 동작과 거동을 세분(細分)하여 동작분석과 그 역학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거동에는 격동(激動)과 휴동(休動) 그리고 폭거(暴舉)및 정거동이 있다. 환언(換言)하면 격동이라함은 전신의 힘을 집중(集中)하여 강(強)하게 집약(集約)한 힘을 발산한 동작 즉 거동임으로 역학적(力學的) 측면에서 바라볼 때 체력(體力)이 소모되는 힘의 움직임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움직임의 거동은 빈번히 쓸 수 없는 거동이며 적을 결정적으로 타도할 위치와 환경이 아니면 쉽게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휴동(休動)이라 함은 격동과는 정반대(正反對)의 거동이다. 즉 호흡조정을 해가면서 쉬는 동작 즉 쉬운 움직임으로 가볍게 방어(防禦)하는 거동의 움직임등으로 휴동(休動)의 거동에는 전연 체력의 소모가 되지 않는다. 또 폭거(暴舉)라 함은 매우 강(強)한 역량(力量)으로 격동과 격동을 합(合)친 연결력, 적을 강타(強打)하는 동작을 뜻한다. 때문에 이 폭거에는 매우 체력의 소모가 가중(加重)된다. 그러므로 특수한 경우 이외(以外)에는 자주 동작을 쓸 수가 없다. 말하자면 격동과 격동의 연결로 이루어진 동작이 폭거이다. 다음은 정거(靜擧)라함은 폭거 동작을 급히 정지(停止)하는 거동(舉動) 즉, 스로모션을 말함인데 적(敵)의 강력한 공격을 급정지시켜 방어하거나 혹은 자기가 폭거로 공격하다가 위험을 느껴 급정거하여 대비(對備)하거나 할 때 취(取)하는 동작임으로 오히려 폭거못지 않게 체력(體力)의 소모와 힘

의 능력(能力)이 필요한 수단(手段)이라 하겠나 이와같은 것은 상호의 쟁투상(爭鬪上) 또는 대련상(對練上)에 흔히 볼 수 있는 동작으로서 우리들 무학(武學)을 논(論)하는 입장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型)의 동작에는 필히 순거(順舉)가 있는 법이다. 순거(順舉)라 함은 거동(舉動)의 순서(順序)를 뜻한다. 형(型)을 행(行)함에 있어서 유의(留意)할 사항은 맨손체조하 듯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품세(品勢) 즉 형(型)의 동작을 하는것이 아니라 거동(舉動)이 약하고 강하며 격(激)하고 부드러운 점(點)과 쉬고 진행(進行)함을 섞어 형(型) 그 자체의 성격(性格)에 따라 그 순서적인 거동이 나열(羅列)되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한 예(例)를 들면 먼저 발로 차고 앞찬발을 뒤를 차고 다음은 높이 뛰어서 양팔차는 식의 무질서(無秩序)한 동작의 연속 나열이라면 형(型)을 취(取)하는 자(者)만 힘겹고 호흡(呼吸)이 거칠고 체력(體力) 소모가 급량(急量) 가속(加速)하여 집에 따라 인체 발육상의 모순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형(型)이라하면 무도의 유파(流派)에서 수백년 또는 천년(千年)가까이 답아 흘러오는 동안 인체 발육상의 문제로 부터 기량(技倆)의 발전 위생(衛生) 학적인문제와 육신의 조직상의 단련 및 인간 해부학적(人間解剖學的)인 원리(原理)에서 무리하게 벗어나지 않게 조직(組織) 수련되어 내려온 것으로 불과(不過) 한 유파(流派)에서 기껏 다섯개 내지 여섯개의 형(型)이 수련되고 있다고 하겠다. 역사적인 예를 들면 중국의 소림(少林) 태극(太極) 팔괘(八掛) 형의(型意) 당랑(螳螂) 태조(太祖)등의 십수개파류(派流)에 따라 수백년 수도(修道) 해오면서 이룩한 각 유파별(各流派別)의 형(型)이 불과 몇개되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보면 관계상 상세히 형(型)을 예거하지 못함을 뒤로 미루고 가까운 일본(日本)의 후나 교시류(富名腰流)와 마부인류(磨文仁流) 미야끼준순(宮本長順) 혼베아사기(本部朝基) 다케우찌영(竹內縁) 우에지마미찌쓰케(上島三之助) 도오몬나잔료(東恩那寛量) 다이

도오케이류(大東界流) 소레이류등(昭靈流等) 오끼나와로 부터 일본본토(日本本土)를 뻗어간 공수도(空手道)(카타테)의 유파 역시 한 유파에 따라 수개씩 형성되고 있으며 그 역사 또한 오래된 고전적(古典的)인 메놀란다. 그러나 근간(近間) 우리나라 태권도가 바야흐로 세계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고 있는 이때 한번더 수련면에 들어가면 물론 경기도 중요하지만 내면적(內面的)이고 도장내(道場內)의 수련상에도 이제는 좀더 신경을 쓸때가 왔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품세」를 만든 과정에 비추어 이제는 새로운 과학적이고 무학적(武學的)인 내면에서 좀더 신중(慎重)하고 멋진 형(型) 즉 품세를 조직하여 세계화(世界化)시킬 임무가 있다고 봐 몇가지 참고가 될 성립론(成立論)을 설명하고자 한다.

3. 한국 문화는 형(型)의 문화라 하여도 과언(過言)은 아니다. 옛부터 기능(技能)을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는 「형」의 수련을 통하여 전승(傳承)하여 왔다. 형은 가도(歌道) 농락(能樂) 다도(茶道) 화도(華道) 무가(武道)등의 예도적(藝道的)인 한국의 문화에 공통(共通)되어 형(型)의 전승(傳承)을 통하여 이러한 기술이 현재까지 전하여 지고있다. 무도에 있어서는 조태도(組太刀) 조(組) 격(格) 세법(勢法)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요는 「형」의 구체적인 수련의 내용이 있다. 형이란 것은 선인(先人)이 고안(考案)한 기술의 전승 형태(形態)이며 그 운동의 방법과 양식을 허술함이 없이 압축(壓縮)한 것이며 오랜동안의 체험과 공부(工夫)로 부터 고안(考案)한 「형」이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기술의 지도 학습은 이러한 형(型)을 바르게 본따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무도기술의 학습에 있어서 형을 존중(尊重)하고 형에 따르는 것이 엄격(嚴格)하게 요구되었다. 이와같이 운동기술을 정형화(定型化)하고 그것을 강제적(強制的)으로 배우게 하는것은 현대의 체육스포츠오즈의 입장(立場)에서는 비판적으로 내다보는 것이된다. 「운동기술의 정형화(定型化)」를 줄여 말하자면 과제 해결(解決)을 위한 어느 운동 경과(經過)를 일정(一定)한 형(型)의 틀에 박아 그

것을 그 운동의 기본형(型)으로 하고 운동의「개인성」과 「발전성」의 원리(原理)를 모두 무시(無視)하고 과제해결의 방법을 형식화(形式化)하고 있다 다시 정형화(定型化)된 운동은 물론 기술로서의 영역부터 완전히 구별(區別)되며 더욱 기술의 개성화(個性化)로서의 운동양식이란 바로 반대(反對)의 방향(方向)에 있다고 비판(批判)된다. 이러한 운동의 정형화(定型化)와 무도의 형(型)은 서로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된다. 무도에 있어서의 형(型)은 오랜 경험과 고생(苦生)끝에 연구 창안(創案)된 것이며 기능적(技能的)으로나 형태적(形態的)으로 단순화(單純化)되어 세련(洛練)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심적경지(心的境地)로서의 성격(性格)을 지니게 된다. 형에 도취되어 거듭 반복연습 함으로서 형과 자신(自身)이 일체(一體)가 되었을 때 형을 떠난 개성적(個性的) 창조적(創造的)인 기술로 실현하기에 이른다. 한국의 전통적인 운동문화의 기술 학습에 있어서 정해진 형(型)을 충실(充實)히 공부(工夫) 연구(研究)하면서 반복수련함으로써 형을 신체에 익히게 되고 그곳에서 자유롭고 개성적인 기술이 표현(表現)된다. 무도(武道)에 있어서의 기술과 마음은 항상 일체(一體)의 것이 되고 기술의 습득 발전은 마음의 세계와 불가분의 관계로 있게 된다.

3. 형(型)의 조직 구성의 십대요소(十大要素)

형(型)에는 다음과 같이 열가지 요소(要素)가 있다. 이 열가지 요소에서 한가지라도 빼놓을 수가 없다. 만일(萬一) 한가지라도 빠졌다면 고장난 우주선 모양으로 진행(進行) 여부를 불문하고 위험이 따로 진행(進行) 여부를 불문하고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바로 형의 구성(構成)도 마찬가지이다. 「형」의 한 뭉치는 하나의 우주선이다. 그 형 자체(自體)의 조직에 있어서 예거(例舉)할 하나가 결핍(缺乏)되어 “형”으로서 기능(機能)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상적(理想的)인 발육이나 무학적 조직으로 진보하지 못한다. 이상적인 「형」이란 앞서 기술(記述)한 폭거(暴舉) 정거(靜摘) 및 격동(激動)과 휴동(休動) 등이 잘 안배(按配)되어 해부학적(解剖學的)인

요령에 무리가 없이 호흡(呼吸) 조절이 선명(鮮明)하며 기량의 차이(差異)도 선명해진다. 오늘날 태권도가 세계화되고 있는 만큼 스포츠경기는 경기로서의 사명(使命)을 다하고 내면적(內面的)인 수련면에 있어서 「품제」의 조직면에 다시 한번 반성과 재고(再考) 있기를 바라며 다시 형(型)의 십대요소(十大要素)를 예거 하고자 한다.

※ 형(型)의 조직(組織) 십대요소(十大要素)

(1) 거동(舉動)의 성립(成立)

정확한 거동(舉動) 순거(順舉) 속도(速度)와 힘의 한계 및 그 진행으로 얻어진 거동(舉動)의 발생(發生)

(2) 연결동작(連結動作)

폭거(暴舉) 정거(靜舉), 휴동(休動) 격동(激動) 급방어 공격 피신(避身) 돌진(突進) 대비(對備)등

(2) 해당(該當) 속도(速度)와 힘의 분배(分配) 속도(速度) 조절(調節)의 힘의 분배(分配)

(4) 호흡조절(呼吸調節)

거동(舉動)과 동작순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호흡을 조절해야 한다.

(5) 거리규정(距離規定)

거동(舉動)의 정확(正確)한 거리규정과 한계(限定)된 동작의 위치(位置)와 지침(指針)및 간격(間隔)

(6) 거동(舉動)의 적용성(適用性) 여부(與否) 이유(理由)있는 거동(舉動) 목표의 정확성(正確性)과 동작의 타당성(妥當性)을 가늠.

(7) 인체변화(人體變化)의 조절(調節) 및 영향여부(影響與否)

동작과 동작의 연결로 인한 그 수련(修練)에서 인체의 발육상(發育上)의 영향과 그 무술상의 장단점(長短點) 여부(與否)를 가늠.

(8) 전체형동작의 균형

형(型)의 짧고 길고 높고 낮고하는 동작 자체의 움직임의 균형이 시종일정(始終一定)한 질(質)로 행(行)해야 하기 때문이다.

(9) 형(型)의 시발(始發)과 정과 그리고 결과 형을 취하여 시발(始發)부터 정과 그리고 결

과에서 원점原點에 돌아올때 까지의 유동성(柔軟性)과 강강성(剛強性)등 그 초중말의 조직상(組織上)의 여부(與否)가 안전되어야 한다는點.

(10) 연무선(源武線)의 정확도와 전체형(全體型) 조직의 진행 및 그 타당성 여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대목임을 알 수 있다. 고층(高層) 건물에 이쪽과 저쪽에 한 일자(一字)로 매달아 놓은 줄을 타는 서카스의 줄타기 광대처럼 하나의 형(型)도 형 자체의 연무선(練武線)에 따라 경해진 선으로 동작한다.

〈社 告〉

계간 태권도지 구독안내

날로 뻗어가는 태권도는 세계를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권도지 애독자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 회를 거듭할수록 발행부수가 늘어가는 기쁜소식을 애독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태권도지 구독을 문의하시는 많은 애독자를 위하여 정기구독 신청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접수하고 있으니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우편번호 134-03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73 국기원內 태권도지 구독 담당자앞

1년간 구독료	2,000원(송료 포함) 국내
	8,000원(송료포함) 해외

.....절.....취.....선.....

No _____

주 소			우편번호	
성 명		구독구분	년	개월
* 1. 정자로 정확히 명기할 것. 2. 구독구분에는 년간과 개월을 정확히 구분하여 쓸 것. 3. 구독료는 소액환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				

태순양

최경천





○비 오는 계절○

○金 健 中○

〈지난 즐거이〉

십여년 동안 후진육성의 참뜻만을 안은 채 문호체육관을 운영하던 한문호 관장은 같은 동료로부터 무인가 도장이라고 고발을 당하자 회의를 느끼고 후배 문사범에게 도장을 물려준 뒤 떠난다.

문사범은 한관장의 그 뜻을 받들어 도장을 운영하던 중 이 지역 자체 대회에서 그릇된 처사와 심판의 편정이 동심을 울린 것을 못내 가슴 아파하며 도장에 돌아 왔을 때, 미국 Q체육관 하사범으로부터 한문호 관장을 초청한다는 편지를 받고 한관장의 행방을 찾게 된다.

어쨌건, 문사범은 미국에서 날아온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 보았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환희. 그 환희는 문사범을 가벼운 흥분속에 휘말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주인공인 한문호 관장은 정작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모르지 않는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었다.

다만 짐치는 게 있다면 강원도 원주의 소인이 찍혀서 온 편지로 보아 그 방향 어느 쪽에 있는 산에서 산수도에 입하고 있을 것이라든가 막연한 짐작 외엔 갑자기 문사범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평소 애 친구인 있던 원주 김사범에게 시의전화를 넣었다. 물론 한관장의 행방을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일이 지났을 때.

원주 치악산 아래 영원사라는 절에 한관장이 머물고 있다는 시의전화가 걸려 왔다.

문사범은 흡사 어린시절 동네에 꼭마단이 들어왔을 때 설레었던 것처럼 막바로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출곳 한관장과의 상면을 그리며 고속버스 차창에 기대서 두시간이 채 못되어 원주에 도착했다.

원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도 없을 뿐더러 초행길인 그로서는 생소하기만 했다. 알고 있는

전 군사도시라는 것 외엔 생각 같아서는 황량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않았다. 깔끔하게 정리된 소도시의 정취가 더욱더 포근하게 몸에 와 닿는걸 느끼는 것도 어쩌면 좁은 도장의 공간속에서 늘상 기계적으로 생활하던 문사범이었기에 더했는지도 모른다.

웬지 한잔의 커피가 그리워 졌다.

문사범은 휘적휘적 터미널 부근에 있는 “대학천” 다실로 들어갔다.

마침 모짜르트의 경쾌한 음악이 끝나고 안토니오 뷔발디의 사제 중 거울이 실내를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웬지 문사범에게 그 음악이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왜일까.

여느 다방과는 달리 이곳은 남자 종업원이 빨간 옷을 걸치고 테지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그가 갈다준 커피를 마신 뒤 대충 영원사로 가는 길을 묻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치악산 아래 위치한 영원사에 도착하니 어둠이 스멀스멀 온 주위를 삼키고 있었다. 영원사 뒤뜰에서 내려오던 한 관장과 마주친 문사범은 말문이 막히어 알 수 없는 눈물이 핑그르 돌며 눈시울이 화끈해 짐을 느꼈다.

「……관장님.」

불썬소리로 문사범은 불렀다.

「……자네가?」

한관장도 놀란 표정으로 의외라는듯 문사법을 향해 반가운 표정을 띄며 다가오고 있었다.

둘은 뜨거운 감정이 눈빛으로 오고 가고 있었다. 이내 어깨를 두드리는 한관장과 같이 문사법은 산사 뒤뜰에 자리를 같이했다.

단풍이 완전히 물들은 성숙한 가을의 초저녁은 서늘하면서도 청취가 있었다.

그동안 산속에서 묻혀 태권도 수련에만 전념했던 탓인지 한관장은 외계의 소식에는 어두웠다.

문사법은 그동안 한관장이 떠난 뒤에 있었던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커렁커렁한 울성이지만 차분히 이야기 했다.

「그러니까 얼마전 학생들의 과외금지 조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세제능계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교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행이었읍니다. ……그런데……」

말끝을 흐리는 문사법의 얼굴은 어둠에서도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

빠르게 반문하는 한관장하였다.

「……그런데 저희는 인가없는 도장이기 때문에 과외교습자 등록을 하고 규정에 의해 심명이내 즉 아홉명까지 개인지도를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아홉명 뿐이란 말인가 ?」

「…처음에는 그랬는데 조금 완화되어 약간은 늘었읍니다.」

「음…… 자네가 고생이 많군. 어떻게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구먼.」

「……」

문사법은 한관장의 그말에 아무말도 던질 수가 없었다.

얼마의 침묵이 신사의 교요함과 같이 흘렀고 대신 가끔씩 어둠을 가르며 산속에서 뻗뻗욱 하는 새소리가 전해졌다.

「문사법, 자네는 내가 왜 도장을 떠났는지 알고 있나 ?」

침통한 표정으로 한관장은 새삼스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거야 파별을 찾는 관의식에서 비롯된 같은

동료의 고발 때문이 아니었읍니까 ?」

「물론 자네야 그렇게 생각하겠지. 사실 그정도 부인할 수 없는 원인이겠지만 이제 파별이나 관의식 따위를 고수하고저 하는 태권도인은 많지 않을 걸세. …… 그 보답두 근본적인 것은…」

한관장은 갑자기 말허리를 툭 끊으며 망설이고 있었다.

「아니 ? 그럼 또다른 원인이 있읍니까 ?」

「물론이지」

「네에 ?」

문사법은 한관장이 말하는 또다른 원인이 있다는 데서 저속기 놀라고 있었다.

「문사법 ! 근본적인 것은 나자신에 대한 전일 수 없는 회의 때문이지. 바꿔말하면 가령 지금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법들이 과연 얼마만큼 운영의 자세에 진실 된다고 믿는가 ? 바로 그점이야. 어떤면에서 보면 분명 사법 그 자체는 직업이 아닌 전문 기능인이거든. 그러나 현실은 사법이라는 그 자체가 전문적인 체육내지는 태권도 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머구나 돈발고 그 대가로 가르치는 영업내지는 상업행위도 아니란 말야. 흠사 비산비야(非山非野) 처럼 모호 한거야. 도대체 어디까지가 순수한 후진육성이고 어디까지가 돈을 받아야 되는 상업행위냐 하는 문제로 골몰해보니 그런 행위를 하는 나자신에 대해 회의가 일기 시작했던 걸세.」

한관장은 거침없이 토해 내고 있었다.

성을 점령하려는 북병처럼 외로운 달빛은 어스세 소리없이 두사람의 머리위로 숨어들어 차갑게 와닿고 있었다

「그러면차에 마칠 도장이 고발되어 한차례 수난을 겪고나니 나의 그 회의는 주체할 수 없는 파도를 만났던 걸세. 허나 태권도 그 자체는 죽어도 떠날 수가 없었기에 그 파도를 떠나 어떻게 입산수도에 임하고 있는 걸세.」

「…… 관장님의 그 심중을 저는 미처 몰랐읍니다. 죄송합니다.」

「웬 사람두 마안하긴… 자 안으로 들어가세」

받은 소리없이 깊어가고 있었다.

또 다시 산속에서 알 수 없는 긴 어운을 남기는 소리가 들려 오고 있었다.

「관장님 미국 초청에 응하시죠.」

「...글쎄... 다시는 돈받고 남을 가르치는 그런 행위는 하고 싶지 않네.」

「아닙니다. 외국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행위는 어쨌거나 국위선양이고 아울러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타민족에게 과시하는 민간외교입니다. 이제 태권도가 올림픽종목으로 공인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네의 의도와 맞닿을 알고 있네. 나 또한 공감하는 문제이기도 하네만……」

웬지 한문호 관장은 미국에서 초청한다는 조건에 선뜻 수락하지를 않았다. 문사범은 한관장의 그런 태도가 영 답답하기만 했다.

문사범은 여러 방향의 말로써 한관장을 설득하려 했으나 좀체 한관장은 어떤 생각에서 있는지 설득되질 않았다.

자정이 지나도록 긴 이야기가 오갔으나 결국 아무 결론도 없는 이야기의 공회전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튿날.

문사범은 한관장을 설득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그는 정밀기계를 분해놓고 조립하지 못했을 때의 기분처럼 석연찮은 마음을 털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런 기분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그로인해 체육관에서 수련생들을 지도 하면서도 한관장의 말들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계절은 완전히 탈바꿈을 했는지 거리의 옷차림새는 한결씩 두터워 지고 있었다.

허긴 엇그제 눈발이 흩날리지 않았던가.

사람들은 참으로 민감하기도 했지만 자연에 대해서는 용감하게도 대처하고 있었다. 조금 춥다 싶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이 겨울의 의무까지 등장시키는 자연에 대한 인식함에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이제 체육관에 입관 문의가 서서히 뜸해지기 시작했다.

자연을 받아들인다는 자세가 있다면 이런 현상은 오지 않으련만……

문사범은 체육관 창밖으로 지나치는 바람결에

휩싸이는 뿌우런 초겨울의 건조하고 매캐하기만 한 먼지를 쳐다보며 느끼고 있었다.

벌써 한관장에게 다녀온 지도 달포가 지난 셈이다.

체육관에 매이다 보니 잠이 없었다.

평일에는 수련생 지도로 바쁘고 일요일은 승품내지는 승단심사로 소일하고 또한 각종 시험에 참여하느라 시간이 없다 보니 본의 아니게도 한관장을 잊고 있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엔 무겁게 한관장이 자리하고 있지만……

이런 태권도 사범의 생활이 보통 피곤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문사범은 피곤하다는 걸 새카맣게 잊고 있는 것도 어쩌면 그 나름대로의 보람에서 있으리라…….

그런데 바로 어제 오후 미국 Q체육관으로 부터, 한관장의 초청에 대한 확답을 달라는 편지가 왔다.

문사범은 다시한번 원주에 다녀 와야할 것 같았다.

(이번만은 내 기어히 설득하리라.)

이런 계산을 되새기며 문사범은 곰곰히 생각에 잠겼다.

담배에 불을 부쳐 한모금 길게 빨더니 갑자기 좋은 묘안이 떠올랐는지 문사범은 싱그레 웃으며 계속 담배연기를 빠르게 빨아들었다.

(음지, 한관장님에게 타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는 중얼거리며 이제껏 태우던 담배를 재털이에 부벼 꺾다.

며칠후.

문사범은 원주에 내려와서 한관장과 자리를 같이 하기가 무섭게

「관장님 미국에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자네가 수고가 많군. 그래 이번에도 나를 설득하러 왔나? 미국 가라고……」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고 실은 미국에 관장님이 태권도를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얼마만큼 태권도가 제대로 전수되고 있는가 알아 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Q체육관 하사범들도 만났잖 판광도 합검……」

「……자네 그말은 타당성이 있군」

문사범은 속으로 패재를 부르고 있었다. 문사범 자신이 한관장의 성격을 알고 미리 계산했던 점이 아니었던가.

「관장님 어쨌거나 미국에 한번 다녀오실 필요성은 인정하실 겁니다.」

「…글쎄…」

한관장은 또다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얼마간 침묵에 잠기더니 미국에서 온 하사범의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한관장은 말없이 편지를 접어 넣고는 문사범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문사범. 좋다. 내 미국에 가겠어.」

「…관장님 진작에 결단을 했어야…」

「자네 먼저 올라가면 내 며칠내로 정리하고 올라가지.」

문사범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원주에서 올라왔다.

그후,

예정대로 한관장은 문호체육관에 다시 나타났다.

전관원들은 기합소리도 높아지고 한결 운동하는 자세도 열의로 가득차으며 약동하는 분위기가 넘치고 있었다.

한관장은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태권도 수련에 임하고 있었다.

그런 한관장 자신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 태권도의 진수를 보이리라하는 또다른 차원에서 비롯된 한관장의 투철한 정신에서였다.

한관장의 이런 피나는 수련이 물론 입산수도

를 할때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곳 문호체육관에서 수련하는 그 자세는 너무도 인간으로서의 건디기 힘든 수련과정을 스스로 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떤 한관장이 이곳에서 수련에 임한지 한달이 되던 날.

오피스로부터 여권이 나왔다는 전갈이 왔다.

한관장은 문사범과는 달리 별로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심진 품세를 힙주어 하다 말고 체육관 창밖으로 초연하게 시선을 던질 뿐이었다.

창밖에는 점심때부터 내리던 눈발들이 아직도 들성들성 내리고 있었고 오가는 거리의 행인들은 세모를 앞둔 탓만은 아닐텐데 분주히 오가는 것 같았다.

한동안 이런 풍경들을 말없이 응시하던 한관장은 문사범을 힐끗 쳐다 보며

「문사범.……」

하고 부르더니 말끝을 흐렸다.

(다음호에 계속)

—원자 푸로필—

1947 충북 음성 태생.

단편 : 「치명타」 「눈의 행진」 「탈춤」 「송사리」 「점사 소견서」 등 다수 발표.

저서 : 장편소설 「모래성을 쌓는 아픔」.

제1회 성남시 문학상 수상.

현재 한국문학 성남지부 이사.

「성남문예」 동인. 「산성소설 문학」 동인.

주소 : 성남시 신흥1동 184-85호 T. 성남 ③2737

〈中庸〉의 道論中에서

在上位하야 不陵下하야 在下位하야 不撓上이오. 正己而不求於人이면 則無怨이니 上不怨天하며 下不尤人이니라. 故로 君子는 居易以俟命하고 小人은 行險以徼幸이니라.

子曰 「射, 有似乎君子하니 失諸正鵠이면 成求諸其身이니라.

윗자리에 있어서 아랫 사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아랫자리에 있어서는 윗사람을 불잡지 아니한다. 자기를 바르게 하고 남에게 구하지 아니하면 곧 원망함이 없을 것이니,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아래로는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壇에 처신하여 승을 기다리고 소인은 危險에 행하여 요행을 바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활쏘기는 군자에 비슷함이 있으니 정공을 없으면 돌이켜 그의 자신에서 구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1. 태권도 연구실 설치

國技院에서는 未來를 向한 方向 설정과 跆拳道에 포함된 여러 部門의 科學的인 理論과 競技技術에 관한 研究를 通해 跆拳道 發展을 도모하고자 「태권도 연구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跆拳道人 여러분의 意見 및 研究論文을 모집하여 「태권도」誌 및 論文集(發 刊예정)에 게재코자 하니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는 소정의 料를 드릴 예정입니다.

1. 보내실곳 : 134-03 강남구 역삼동 산 73번지 국기원내

태권도 연구실

Tel; 57-3024, 1058, 1059

2. 내 용 : 태권도연구논문 문의사항

3. 방 법 : 직접방문, 서신

2. 태권도인의 意見모집

이제까지 확실히 않았던 태권도 각 단체간의 업무관계를 뚜렷이 하고 전 태권도 인의 요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제껏 태권도협회에서 집행하던 승단 및 승품심사 대회를 1980년 3월 1일부터 국기원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권도협회와 산하단체는 본연의 업무인 태권도 경기발전에만 전념하 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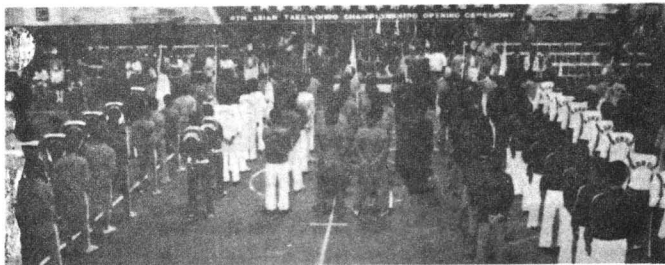
따라서 본 국기원에서는 81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심사집행 규정마련을 위해서 태권도인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과 높은 뜻을 기다리고 있어야오니 적극 참 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적인 의견이나 정책적인 건의사항을 보내주시면 심의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 기 원—

제4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

The 4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개회식 광경
Scene of the Opening ceremony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는 김운용회장
Dr. Un-Young Kim, President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deliver
congratulatory add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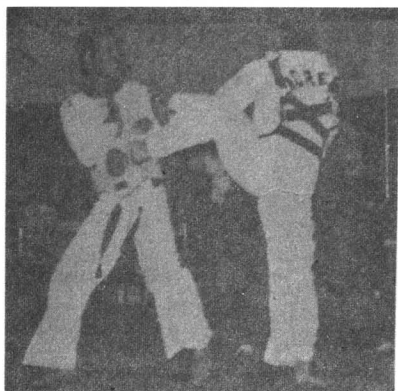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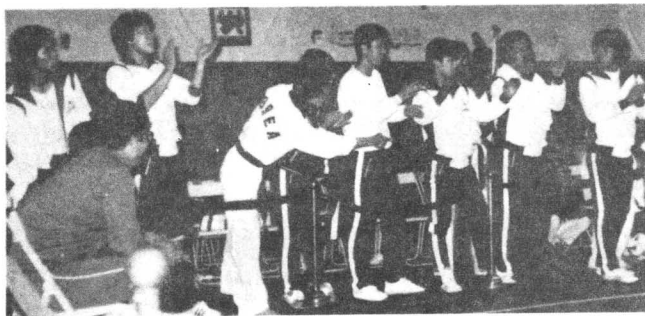
각국의 선수단 입장을 격려하는 귀빈석
Distinguished guests present at the
Opening ceremony.



입장하고 있는 한국선수단
The Korean national team get in
the Opening ceremony.

경기스냅 (Competition Sce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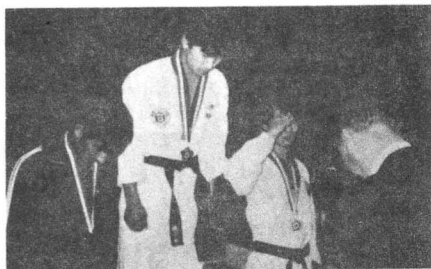




한국선수의 경기를 응원하는 선수단
The Korean national team cheering
for competition of Korean player.



핀급 입상자들
Champions of Fly
weight division



메달을 받은 라이트급 입상자들
Awarding of medals to Light weight division winners



헤비급 입상자들
Prize Winners
of Heavy weight
division.



라이트미들급
입상자들
Awarding of
medals to
Middle weight
division win
ners



라이트 헤비급
입상자들



플라이급 입상자들
Awarding of medals to Fly weight division winners



페더급 입상자들
Prize Winners of Feather weight division.



종합우승을 차지한 한국대표팀의 경기후 기념촬영
The Korean national team souvenir photography after took the championship in the 4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종합우승을 차지한후 선수들이 전영화 단장을 행가례하고 있다.

The overall champions Korean team throws their coach up high to thank him.



김포공항에 개선귀국한 아시아 태권도대회 파견 임원 선수단

Korean national team at the kimpoo Airport upon arriving from the Republic of China.



체육훈장을 받은 한국대표선수수와 임원들이 이규호 문교부장관을 방문하여 환담을 나누고 있다.

Education Minister Lee Gyu-ho encourage Taekwondoists who return from the 4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Members of Korean team received sports medal "Ki Rin" and appreciation from President Jun Doo Hwan.)

제1회 국제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The 1st CISM Taekwondo Championships.



축사를 하는 김윤용 회장과 귀빈석에
자리한 내외귀빈들

Dr. Un Yong Kim, President of
WTF, delivers congratulatory
address at the opening cere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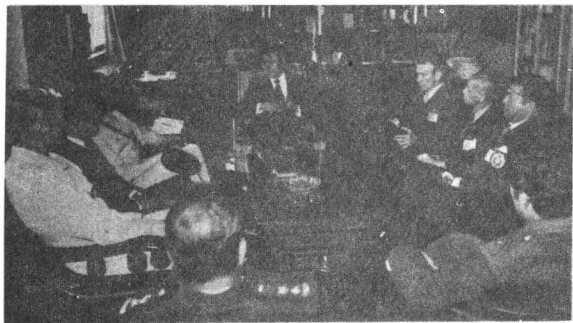
개회식 광경

The opening ceremony.



종합우승을 차지한 한국대표팀

The Korean army Taekwondo team took the championship in the 1st CISM Taekwondo championships.



국기원으로 김운용회장을 방문한
각국 대표들

Delegates visit at Kukkiwon
before the champio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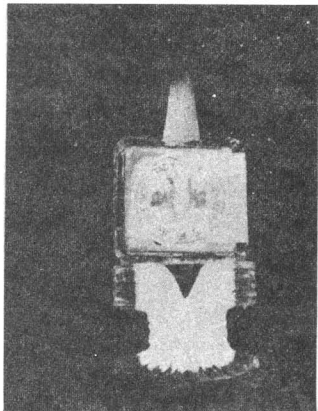
국제군인 태권도 대회에
참가한 각국의 선수단을
위한 리셉션에서 주영복
방부장관과 박찬균차관 및
정호영 특전사령관 강경순
국방부 인사국장과 함께
편담을 나누는 김운용 회장

President Kim chats with
Joo Young-bok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Park Chan Gyun Vice
Minister, Jung Ho-yong
General and Mr. Kang
Young Soon.



리셉션에 참여한 정호영특전사령관을 접견하고 있는 김운용 회장

Dr. Kim, president of WTF, talk with Jung Ho-yong Gene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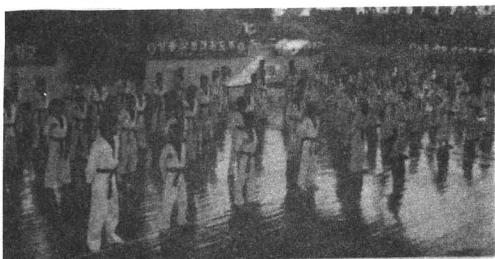


종합우승을 차지한 한국대표팀의 기념촬영
The Korean national team souvenir photography



1980년도 최우수 선수권 대회

National Taekwondo
Competition for best
player of the
year 1980.



개회식장면(Scene of the Opening ceremony)

선수대표 선서

Oath by contestants' representative.



제6회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 대회

The 6th Primary School's
Taekwondo Championships

국교연맹의 광영훈회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

The opening address by Kwak Young-whun,
president of Korean Primary school Taekwondo
Fed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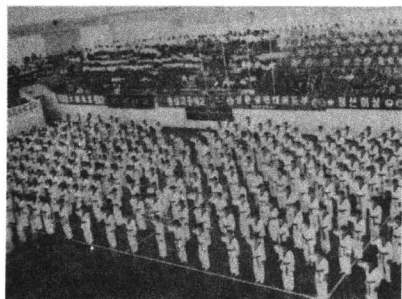
대회에 참가한 국민학교 선수들
The opening ceremony.

제9회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회장기쟁탈 태권도 대회 The 9th Middle & High School Taekwondo Championships.



개회식을 하는 김한선 중고연맹회장

The opening address by Kim Han-sun,
president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Taekwondo Federation.



개회식장면(Scene of the Opening cere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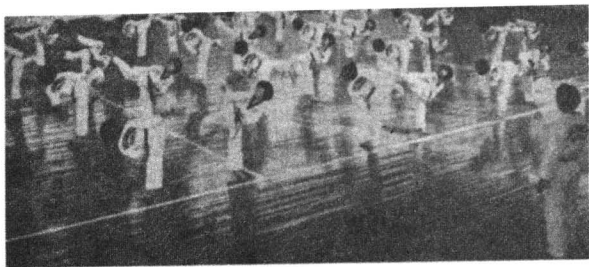
우승팀 시상광경

Kim Han-sun awards championship certificate
to the Winning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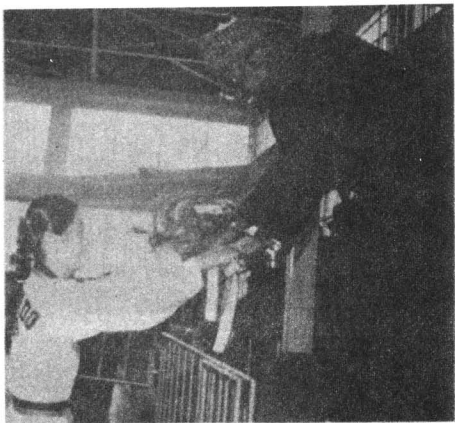


나이지리아의 경제사절단이 국기원으로
김운웅 회장을 방문, 명예단증을 수여받고
어린이 태권도 시범을 관람했다.

Nyzeria Economic mission recieved
Honorary Dan Certificate and watches
Taekwondo demonstration during his
visit to kukki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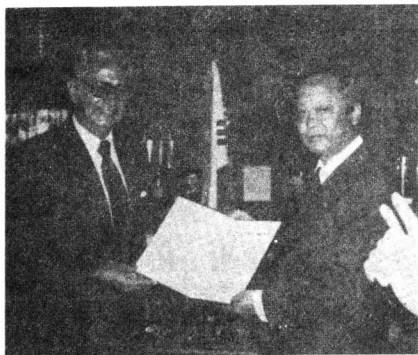
미동국민학교 어린이태권도 시범단의 시범
The demonstration of the Midong
primary school's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미동국민학교 태권도 시범단원이 사절단
대표에게 꽃다발을 주고 있다.
Midong primary school's Taekwondoist
presents a bunch of flowers to a mission.



멕시코의 국영석유공사 총재 세라노와 일행이 국기원을 방문, 명예단증을 받고 태권도 시범을 관람했다.
 Mr. Jorjge Diag Serrano President Mexico Pemex and his follower recieve Honorary Dan
 Certificateand, watches Taekwondo demonstration, at kukkiwon.



케냐국 태권도협회회장이 경찰대학을 방문하여 협회 사무장으로부터 명예단증을 수여받고있다.

President of Kena Taekwondo Association recieve Honorary Dan Certificate, during his visit
 to the police university.